

2010年度
國政監査

保健福祉委員會會議錄

(임시회의록)

國會事務處

被監査機關 國民年金公團

日 時 2010年10月11日(月)
場 所 國民年金公團會議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재선 감사장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1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지난 88년부터 실시하여 2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규모가 300조 원을 넘어서고 수급자도 300만 명을 돌파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제 노령이나 장애 또는 사망이라는 급박한 사유가 발생할 때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생활이 안정되고 복지가 증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업무 전반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국민연금기관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고 자금운용을 할 때 수익성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성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성 외에도 공단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도 아울러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 등 개인신상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단 직원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철한 의식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나 개인정보 무단 열람이나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민연금공단의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고민해 보고 공단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요구한 김호중 전국건설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김호중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인 김호중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출석한 참고인의 신원은 전문위원실에서 미리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에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식은 증인을 대표하여 전광우 이사장께서 증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이사장이 일괄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은 선서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광우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광우 이사장님 나오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국민연금공단

이	사	장	전광우							
감		사	이영우							
기	획	이	류지형							
업	무	이	김상순							
기	금	이	김선정							
연	구	원	장 백화중							
기	획	조	정 실 장 김경식							
경	영	지	원 실 장 배성훈							
고	객	지	원 실 장 김용기							
가	입	자	지	원 실 장 이종신						
연	금	급	여	실 장 양동권						
정	보	시	스	템 실 장 최 현						
감	사	실	장	허 광						
홍	보	실	장	김신철						
시	설	사	업	단 장 류덕렬						
기	초	노	령	연	금	지	원	센	터	장 박해용
미	래	사	업	추	진	단	장 양동석			
기	금	운	용	지	원	실	장 임진우			
증	권	운	용	실	장	장재하				
대	체	투	자	실	장	양영식				
해	외	투	자	실	장	김희석				
운	용	전	략	실	장	한동주				
리	스	크	관	리	실	장 하영호				
준	법	감	시	인	박용덕					
연	금	제	도	연	구	실	장 김성숙			
기	금	정	책	분	석	실	장 박태영			
장	애	심	사	센	터	장	오관술			
4	대	보	험	정	보	연	계	센	터	장 이재석

○위원장 이재선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전광우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국정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공단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은 국민연금을 시행한 지 23년째 되는 해입니다. 현재 세계 4대 연기금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가입자 1900여만 명, 수급자 300만 명, 기금 300조 원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3대 업무과제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신뢰 제고입니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께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며, 공단은 시민사회단체 및 정부와 공동으로 내연금 갖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안내와 홍보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증진과 신뢰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 및 업무개선을 통하여 비정규직, 특수직종 근로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편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서비스 확충 및 경영 혁신입니다.

국민들께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후준비지원 사업 강화와 장애판정 및 연금지급, 재활에 이르는 다양한 장애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복지서비스 허브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조직문화 창출과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 그리고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국민들께 사랑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기금 운용의 역량 강화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부여한 투자원칙과 운용 기

조에 맞추어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국내외 투자 다변화와 함께 전문인력 확충과 해외사무소 설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세계 4대 연기금 규모에 걸맞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선진운용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금융네트워크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단이 국민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선진복지국가 구현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단경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의 임원과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 이영우입니다.

기획이사 류지형입니다.

업무이사 김상순입니다.

기금이사 김선정입니다.

연구원장 백화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경식입니다.

경영지원실장 배성훈입니다.

고객지원실장 김용기입니다.

가입자지원실장 이종신입니다.

연금급여실장 양동권입니다.

정보시스템실장 최현입니다.

감사실장 허광입니다.

홍보실장 김신철입니다.

시설사업단장 류덕렬입니다.

기초노령연금지원센터장 박해용입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양동석입니다.

기금운용지원실장 임진우입니다.

증권운용실장 장재하입니다.

대체투자실장 양영식입니다.

해외투자실장 김희석입니다.

운용전략실장 한동주입니다.

리스크관리실장 하영호입니다.

준법감시인 박용덕입니다.

연금제도연구실장 김성숙입니다.

기금정책분석실장 박태영입니다.

장애심사센터장 오판술입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장 이재석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주요현안, 감사 및 민원처리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의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단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1987년 9월 설립되어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1999년 도시지역까지 전국민 연금시대를 열었으며 2008년에는 완전노령연금이 지급됨에 따라 본격적인 연금수급시대를 맞이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직은 본부에 8실 1단 2센터, 기금운용본부, 준법감시인, 연구원을 두고 있고 하부조직으로 91개 지사, 7개의 센터에 4930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9조 5000억 원으로 2009년도보다 17.3% 증가하였으며 이 중 연금급여지출이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8월 말 기준으로 주요통계를 말씀드리면 가입자 1906만 명에 수급자가 283만 명이며 연금보험료와 운용수익 등 360조 원을 조성하여 연금급여로 57조 원을 지출하고 304조 원을 운용중에 있습니다. 8월 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월 말 기준으로는 더 늘어서 312조 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 노후소득 보장강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10년 8월 말 현재 소득신고자는 1378만 명이고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수는 493만 명이며 연금수급가능자는 35.8%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년 1000만 건이 넘는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27만여 명을 소득신고자로 편입시키고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 대학 시간강사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가입확대, 현장 방문을 통한 가입신고, 교육홍보 및 캠페인 등 노후소득보장 저변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초 경기하락 등 어려운 징수 여건 하에서도 효율적인 징수 노력으로 전체 누적 징수율이 97.5%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선 자발적으로 납

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였고 개별상담을 통해 미납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사업장 근로자 미납사실 개별통보, 고의 미납자 특별관리 등 가입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징수업무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됨에 따라 업무이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노후소득보장 전달기관인 공단은 2008년부터 노후준비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노후설계상담서비스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전문사이트를 정비하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후설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200여 회에 걸쳐 20여만 명에 노후준비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문가 양성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노후준비에 꼭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더욱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연금서비스 가치 제고 노력에 대해서 잠시 보고드리면 임의가입자 연금보험료 부담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청구지 관할 폐지,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그리고 외국인 반환일시금 즉시지급 등 업무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고객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콜센터와 지사 간 리얼타임 전화 연계, 전자서명청구서 운영 등 IT를 활용한 고객편의 제공에도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여 민간 수준 이상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서비스 다양화입니다.

지난 2009년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법이 정비됨에 따라 금년에는 복지체감도가 큰 소액금융서비스, 주택연금, 복합노인복지시설 조성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단은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심사업무 외에 2007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심사 업무와 금년에 시행한 장애인연금 등급심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금년 중 12만 건을 심사하여 장애판정 전문기관으로 그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장애심사업무 개선 노력과 함께 심사자료 직접 확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도 하여 장애인 편의 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심사시스템 운용, 심사결과 사전 안내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성 강화에도 주력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수행, 국민연금 가입자를 중심으로 장애인 생활설계서비스와 재활서비스 도입 준비를 함으로써 장애인자립지원 관련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 2차 시범사업과 장애인생활설계서비스 모의적용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금운용 글로벌 경쟁력 강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금년 8월 말 기금적립금은 304조 원으로 누적 수익금은 125조 원이며 금년 8월 말까지의 수익금은 15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참고로 가장 업데이트된 9월 말 기준으로 자산이 312조 원, 금년도 9월 말까지 수익금은 22조 원에 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투자다변화를 추진하고 폭넓은 수익기반 확보에 역점을 두어 안정성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전 국내 채권 중심의 투자패러다임으로부터 주식, 대체 그리고 해외투자로의 적절한 분산투자를 통해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 하에서 기금의 장기 운용 성과개선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상시 투자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종합리스크관리시스템 운영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금운용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내년에 공단 역사상 최초로 해외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단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전달조직 신설을 포함하여 관리시스템을 획기적

으로 개선하고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경영가치로 삼아 공공기관 중 가장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 강력한 처벌 및 인사조치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외부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직원의 윤리의식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공단 노사는 2009년도 임·단협 갱신을 위해 단체교섭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고 특히 올해는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으로 인한 인력 전환 및 조직 효율화 추진 등으로 노사갈등이 그 어느 해보다 심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생산적인 노사문화를 조속히 구축함으로써 국민들께 더욱 사랑받는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감사 및 민원처리사항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선 예, 주승용 위원님.

○주승용 위원 주승용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오늘이 지금 월요일인데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주승용 위원 오늘 월요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날 연금공단 국정감사 준비하셨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했습니다.

○주승용 위원 쉬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계속 저희가 준비해 왔습니다.

○주승용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금요일 날 오후에 자료를 주고, 이 자료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전화를 사무실로 했더니 사무실이 전화를 안 받아요. 출근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 또 과장, 실장, 차장, 팀장, 선임운용역, 부장 7명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어렵게 핸드폰 번호를 다 알아 가지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도 핸드폰 전화를 또 안 받아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승용 위원 고의적으로, 아무리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해서 전화를 안 받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국감 전날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저희가 어제 저녁 밤을 새면서까지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주승용 위원 기금운용본부장님 계세요?

○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 김선정 예, 김선정입니다.

○주승용 위원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했습니까?

○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 김선정 예, 했습니다.

○주승용 위원 그런데 왜 사무실 전화를 안 받고 또 실장, 차장, 팀장, 과장, 부장 7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7명이 다 핸드폰 전화도 안 받습니까? 모르십니까? 고의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 김선정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제 핸드폰은 어저께 하루 종일 켜 놓고 있었습니다.

○주승용 위원 그러면 그 핸드폰에 찍혔을 것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 김선정 그러니까 위원님 핸드폰 전화번호는 안 찍혔습니다. 혹시 제 번호는 011-261……

○주승용 위원 아니, 본부장님 전화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명단을 다 부를 수는 없으니까, 내가 드릴 테니까요.

○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 김선정 예, 확인하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이분들이 다 찍혔어요. 토요일 일요일 날은 기금운용 안 합니까? 이자 안 올라갑니까? 이걸 뭐 고의적으로 받지 말라고 하지 않은 이상 이렇게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 조사해 가지고, 명단을 드릴 테니까 그 사유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대로 10분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김금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래 위원** 김금래 위원입니다.

현안질의부터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국감장 주변에 노조에서 피켓 들고 시위 중이던데 쟁점이 뭐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우선 위원님들 출입하시는데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핵심 쟁점은 연봉제를 확대하는 이런 부분에 이견이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핵심 쟁점이, 저희로서는 공단이 노사문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성과주의문화의 도입이 매우 지체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도의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 경영진의 입장이고 노조에서 이것을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대치 상황에 있습니다.

○**김금래 위원** 파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인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전체적인 파업은 아니고요. 지난 7월……

○**김금래 위원** 전체적인 파업은 아니고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김금래 위원** 지금 기간은 얼마쯤 됐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이 노사 대치 말입니까?

○**김금래 위원** 예.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제가 취임할 때부터 그렇습니다.

○**김금래 위원** 아, 계속……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작년 12월부터라고 봐지고 지금 단협이 해지된 것은 9월 중입니다.

○**김금래 위원**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300조의 국민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곳인데 이렇게 파업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연금지급이나 민원상담 이런 데 있어서 혹시 불편을 끼칠까 걱정이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지난번 파업으로 인한 대국민서비스는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준비를 하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

들, 간부들 전체 협조를 통해서 큰 어려움이 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다른 기관하고 달라서 300조가 넘는 막대한 국민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저희는 공공기관 분류 중에 연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16개 기관 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6개 기관 중에 대부분 11개는 이미 전 직원들에게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저희는 5년 전에 1·2급 도입을 하고 3·4·5·6급들에 대한 연봉제 도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단기적인 진통이 있어도 이 부분의 의미 있는 진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래 위원** 하여튼 국민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인데 이렇게 파업이 장기화되면 여러 가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노사 간에 그 점을 유념해서 가지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서로 전향적으로 양보하셔서 잘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래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300조 넘었다 그랬는데요, 보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수도 132개이고 공단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수가 지금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89개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건수도 2014건으로 6년 사이에 2.5배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김금래 위원** 그런데 현황에 보면 지금 의결권 행사를 투자위원회 한 10명 미만의 인력이 589개 기업을 담당하고 있고 2014개 안건을 처리하니 업무가 과중해 가지고 개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의결권을 행사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그 회사 발전에 저해되는 그런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획일적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르기보다는 유연성을 갖고 컨설팅을 하든지 선진화된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의결권 행사지침을 좀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해서 유

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시는 게 어떤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그간은 매우 소극적 투자자로서의 재무적 투자자 입장을 견지해서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았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5% 이상의 회사만 하더라도 130군데가 넘고 앞으로 그 지분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중장기 저희 투자 전망을 감안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국민의 재산을 맡아 가지고 운용하는 수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디테일한 부분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행사위원회의 역량이나 인원이나 그런 부분에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래 위원 지금 보면 경영권 분쟁 등 민감한 사안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 회의가 2009년도에 두 번 열고 올해는 한 차례도 없었던 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의 어떤 기업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공단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가지고 손해를 끼치고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전문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지금 얘기했다시피 점점 회사수는 많아지는데 관리하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제대로 된 기업분석이나 이런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아주 잘 알겠습니다.

○김금래 위원 국민연금 과오납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336만 건에 3510억 원이 과오납이 됐는데요, 지금 보면 과오납이 발생했을 때 67.3%만 반환해 주고 32.7%는 미납 월 및 향후 월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왜 즉시 반환하지 않고 이렇게 처리하나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지금 저희가 과오납이 발생하면 우선 미납 월에 충당을 해서 가입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머지 금액은 즉시 반환하고 있고, 향후 월에 충당은 납부자가 원하는 경우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이체 등 금융기관 계좌 정보가 확보된 가입자는 청구 없이 즉시 계좌번호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금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을 보면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반환율이 낮은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지금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무선으로 과오납을 알려주고 통장으로 바로 이체를 해 주고 있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사업자한테만 통보를 해서 그 당사자는 국민연금이 과오납된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판단하에 개인에게 지급되거나 혹은 또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도 이와 같이 이제 과오납이 발생했을 경우 지역가입자같이 유·무선으로 본인에게 직접 통보하고 통장으로 이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직장에 오는 법인이 휴·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해서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안내를 통해서 저희가……

○김금래 위원 직장가입자도 본인한테 꼭 알려주는 그런 조치를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래 위원 지금 지역가입자 보면 871만 명인데 이중에서 59.3%가 납부예외자이고 또 31.9%가 1년 이상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72.2%인 629만 명이 지금 연금 사각지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납부예외자이고 체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말씀하신 사각지대의 해소 또 납부예외자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공적 자료를 최대한 입수하고 활용을 하고 또 현장 확인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의 업무추진 방식을 개선하고 있고 저희가 제도홍보나 교육을 강화하고 또 노후설계, 상담서비스를 실시하는 것과 같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금래 위원 지금 납부예외 연장주기를 1년에

서 3년으로 연장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사각지대에 방치될 확률이 더 높은 것은 아닌지요. 이게 행정적인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으나 사각지대에 방치될 우려가 더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위원님, 저희가 이제 그것을 도입하게 이렇게 바꾸게 된 데에는 장기간 소득이 없는 사람도 1년마다 반복적으로 납부예외 연장신고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민원불만 해소 차원에서 3년으로 연장을 한 것인데 현재는 공단에서 납부예외자의 소득 관련 공적 자료를 정기적으로 입수해서 수시로 소득신고자로 이렇게 편입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금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주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승용 위원 전남 여수 출신 주승용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연금 적립금이 300조를 넘어섰고 앞으로 2040년이면 2000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제 연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 사용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익성을 높이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제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UN 책임투자원칙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랬습니다.

○주승용 위원 기금의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고 이마저도 매년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기금운용 평가액이 지금 312조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복지부문은 0.04%인 1365억 원에 불과하고 그것도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청풍타운, 충북에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주승용 위원 거기에 710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어려운 곳에 대출해 주는 것은 654억 원에 불과합니다. 저 화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민간보육시설에 399억 원, 노인복지시설에 75억 원, 생계자금대여에 4000만 원, 신용회복대여에 180억 원 이렇게 했는데 기금은 매년 늘어나는데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는 매년 급속하게 감

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책임의무를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단의 사회적 책임을 더 크게 감당해야 되는 복지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그것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다각……

○주승용 위원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해야지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UN 책임투자원칙에는 왜 가입을 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두 가지를 말씀드리지요. UN PRI에 가입한 그건 거기에서 우리가 실제 주식투자라든지 이런 투자를 함에 있어서 SRI이라고 해서 사회책임투자 이런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조 이상 지금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는 것은……

○주승용 위원 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복지투자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주승용 위원 복지투자를 좀 증액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이사장님, 해외출장 때 항공기 1등석만 타고 다니셨어요, 금년예? 금년 4월달과 9월달에 두 차례 이용을 했는데 한 번은 영국이고 한 번은 미국이에요. 영국의 왕복항공료로 1170만 원을 지불했고 4월 미국 출장 때에는 미국 측에서 비즈니스석을 제공했는데도 공단에서 400만 원을 추가 부담해 가지고 굳이 1등석을 타시고 가셨어요. 그랬지요, 맞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

○주승용 위원 맞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탄 것은 맞습니다 마는 굳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은 조금 그런데……

○주승용 위원 400만 원을 추가로 공단에서 부담 안 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랬습니다.

○**주승용 위원** 더욱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여비 규정에 이사장의 해외출장 때에는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공단에서는 출국하기 직전에 규정을 바꾸어서 1 등석을 탔습니다.

지금 규정 개정을 2010년 4월 2일날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4월 25일날 출국을 했어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정 전에는 “1등은 비즈니스 정액, 2등은 이코노믹 정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 후에는 “1등은 퍼스트(이사장) 또는 비즈니스(이사장 이외 임원)” 이렇게 해서 바꿨어요. 이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안전부 예규에는 대통령부터 장관까지는 퍼스트 클래스, 차관부터 3급 국장까지는 비즈니스 클래스, 기타는 이코노믹 클래스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알고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이사장은 장관입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뭐 꼭 그렇게 급으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차관급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도 지식경제부나 이런 데, 공기업 사장들 전부 다 비즈니스로 다 이렇게 바꿨어요, 예규도.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연금보험료 받아 가지고 경비를 사용하는 연금공단 아닙니까? 여비지급 처리지침을 바꾸시겠습니까, 원 상태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서 유감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승용 위원** 처리지침을 바꾸시겠습니까? 개정하시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검토할 사항입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왜냐하면 저희 공단뿐만이 아니라 여러 공공기관이 있고……

○**주승용 위원** 공공기관이 다 대부분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뀌어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또 질의할게요.

이사장님께서 국내 지사를 방문할 때도 현지에도착하면 공항에서 지사 오가는 데 회사의 업무

용 차량이라든지 지사장 차량을 이용해도 충분할 텐데 별도로 에쿠스 프리미어나 체어맨 최고급형을 렌트를 했어요. 잠시 이동하는데 굳이 최고급형 승용차를 렌트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제가 그런 것을 지시한 기억도 없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쓰는 차량 수준에 준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주승용 위원** 업무용 차량이 아니잖아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아마 앞으로, 저는 공직을 하는 동안에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하고 공직자로서의 모습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더욱더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이것 시정하십시오.

답변 안 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계속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그것은 개선 노력할 것 아니라…… 노력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지시하면 되는 것이고.

공단의 퇴직자들이 국민연금 동우회라고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 건물 지하 1층에 한 50평 정도 공단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요, 맞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이 건물은 아니고 저희 신사동에 있는 지사 건물입니다.

○**주승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주승용 위원** 그것 무상 사용하고 있어요.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푼도 임대료를 안 내고 사용하고 있고요.

또 공단에서는 그 동우회가 만든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구만요. 거기에 공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업무용차량 보험계약을 거의 독점적으로 몰아주고 있어요. 최근 3년간만 보더라도 총 계약한 보험은 583건에 3억 5000만 원인데 거의 90% 이상을 국민연금 동우회에서 독점적으로 차지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보고받았습니다.

○**주승용 위원** 보증금은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보험계약 같은 것도 좀 조정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런 방향으

로 하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다음에 지금 연금공단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임의가입자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주승용 위원 이게 지금 재테크, 투기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임의가입자 증가현황을 보면 2005년 말에서 2008년 말까지 3년 동안에 한 1000여 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금년 들어와서 8개월 만에 3만 명이 증가해 버렸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알고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임의가입 제도는 소득이 없는 계층이 노후에 국민연금마저 못 받을 경우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다 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만든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주승용 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빈곤층을 위한 정책이 부유층들이 재테크라든지 투기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지적을 합니다.

금년 7월부터 하한보험료가 12만 6000원에서 8만 9100원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증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월 8만 9100원도 중산층 이하의 주부들이 가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결국 이것은 여유가 있는 주부들만 낼 것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금년 들어 8월까지 임의가입자가 6만 5000명인데, 시도별로 봤어요, 저기 그래프가 나옵니다, 서울과 경기도가 53%예요. 또 서울에서는 송파구·강남구·서초구·강동구 4개 구가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성남시·고양시·수원시·용인시·안양시 다섯 군데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임의가입자가 부자 동네에 좀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중산층 이하의 계층은 가입자가 많지 않다, 이런 것이 지금 통계 결과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8만 9100원 하한보험료를 폐지해 버리고 적은 금액도 좀 가입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어떡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위원님 뜻을 감안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자면 임의가입자가 늘어난 부분이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는 우리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체고를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의무가입자들, 그동안에 우리 국민연금을 기피해 오고 있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분들이 최근에 급속도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수적인 효과로 매우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임의가입자에 대해서는 이따 보충질의 때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영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예, 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제가 지난주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사장님이 규정을 어기고 주 1회 기금운용본부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회의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 규정에 따라서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한 회의자료만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주 1회 진행한 회의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 각 실장들을 배석한 주 1회 하는 그런 회의인데 자료를 만들지 않고 그 회의를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숨길 내용이 없다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300조가 넘는 기금 관련 점검회의를 자료도 없이 구두로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가 끝나기 전에,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처음에 제 기억에는…… 있는 자료는 물론 그렇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으로는 주간 점검회의가 상당히 인포멀하게 하는 회의가 돼서 자료준비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기억은 제가 납니다. 그런데 자료가 있다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기존 회의록 메모라도 있을 수 있고요. 준비자료가…… 여기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회의를 했을 수

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선** 다음에는 정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균 위원** 미래희망연대 정하균입니다.

우선 이사장님께 보통의 상식을 가진 국민의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의 불안에 대한 가입자들에 대한 의견을 또 견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정하균 위원** 저희가 알아보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한번도 그 가입자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조사를 한 사실이 없더군요. 물론 있는데 자료를 제출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5월 달에 한 취업 포털사이트에서 월급 중에서 공제되는 것 중에 가장 아까운 것이 뭐냐라고 조사해 보니까 그중에서 63.3% 정도의 답변을 보면 국민연금이 가장 아깝다, 돈만 내고 혜택을 못 받을지 모른다는 어떤 불신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안타까운 통계인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최근에 임의가입자가 느는 것도 그렇듯이 요즘은 인식이 그래도 개선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달 9월 30일 날 발표된 경제기획원이 낸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 보면 2060년이 되면 연금금이 고갈될 수 있다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것은 저희 장기추계가 그렇습니다.

○**정하균 위원** 사실 그럴 수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지금 현재의 출산율이라든지 또 징수율 또 보험료율 9%, 여러 그 가정하에 그리고 수익성이 더 이상 개선 안 된다는, 지금 6~7%의 수익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2060년에 고갈이 예상되는 것은 맞습니다.

○**정하균 위원** 국민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그것은 고갈될 것이 아닌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구조 자체가 국민들을 도와드리는 구조니까 그것은 저희 시간의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정하균 위원** 이것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현재 데이터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뢰를 받아야 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정하균 위원** 그런데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 입구에 노조의 항의성의 플래카드도 봤고 더군다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앞서 존경하는 주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등석을 타는 문제 그다음에 렌트하는 문제 이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더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노사문제가, 지난 9월 달까지 파업일수가 12일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하균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3급 연봉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타임오프제에 의해서 노조전임자가 몇 명 있느냐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있더군요. 맞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타임오프제는 더 이상 현안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정하균 위원** 사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겠다, 어떻게 하라라고 말할 위치에는 있지 않고 또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마는 국민연금공단이 보다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것제가 내용을 보니까 크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사장님이 좀더 무릎을 낮추고 또 자세를 낮춰서 노조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서 이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위원님께서 꼭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3급으로의 연봉제 확대라고 하는 것은 연금금을 관리하는 기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수가 지금 이미 전 직원에 도입하고 있는 연봉제를 우리는 부분적으로만이라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하균 위원** 아니, 그런 대답을 저한테 하실

것이 아니라 노조한테 모든 것을 터놓고 한번 말씀해 보시라 그런 의미로 드린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계속 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겠습니다.

○정하균 위원 이사장님은 너무 신사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노조 즉 가장 어려움을 겪는 실무자들하고 터놓고 얘기하는 것이 좀 적지 않나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사장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그들하고 같이 가까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지 그런 사항을 저한테 설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균 위원 국민연금 중에 장애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로 인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에 따른 소득보장 목적으로 장애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게 잘 지급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가입자가 중도에 장애를 입었을 때 그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장애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등급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정하균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주기적으로 장애의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미리 드렸는데 전혀 준비를 안 하셨군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정하균 위원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이 달라지는데 장애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료가 되면 장애가 완화될 수도 있고 또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주기적으로 장애를 체크해서 연금이 제대로 지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장애유형에 따라서 2년에서 5년 사이로 이렇게……

○정하균 위원 장애유형이 아니라 장애등급별로입니다. 장애유형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 장애가 있는 것이고 장애등급이라는 것은 장애 정도가 얼마만큼 심한 것이냐를 따지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정하균 위원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애

가 더 악화될 수도 있고 또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습니다.

○정하균 위원 그것을 제때에 체크를 하지 않아서 더 혹은 덜 주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정하균 위원 그냥 ‘예’ 하고 대답하실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저희가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업무착오로 일부 지연 처리된다거나 과다 또는 과소 연금지급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 좀……

○정하균 위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과소지급된 것이…… 2009년도에 1750명을 했는데 등급변경자가 430명이었습니다. 즉 18% 정도가 등급이 변경됐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연금을 소비자한테도 덜 준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너무 많이 간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저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정정을 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래서 저희가 전산시스템을 최근에 보완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시정해 나가도록 그런 노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하균 위원 전산시스템을 바꿨다는 얘기입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8월부로 그 보완을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하균 위원 8월 중이면 지지난달에 이미 끝났다는 얘기인데 저희 자료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전산시스템이 완벽히 됐다면 그 결과를 주시고, 만약에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따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균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개인정보 열람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정하균 위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부분은 우선 시스템 차원에서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개인 담당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문제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차원에서의 개선하는 노력 그리고 윤리교육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징계를 철저히 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는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균 위원 물론 징계를 강화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징계하기 전에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일이 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현재 3단계 인증절차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개인별 공인인증서를 한다면 많은 부분은 지금 염려하는 것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즉 개인이 개인인증카드를 우리가 은행거래 할 때 쓰듯이 쓴다면 이 부분은 훨씬 강화가 되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균 위원 1분은 추가질의 때 다시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1분은 따로는 안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해봉 위원님.

○이해봉 위원 이해봉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이 동일 부서를 감사를 하다 보니까 다소 질의에 중복이 되는 점이 있을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습니다.

○이해봉 위원 다만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보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께서 국내 주식의 최대 투자자인 연금공단이 앞으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주주권 행사 관련해서는 금년 안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의 4% 정도인 국내 투자 비율을 5년 내에 7, 8% 정도로 높이면 현재 5%

대인 100대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지분율이 10% 가까이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습니다.

○이해봉 위원 그러면 국민연금이 100대 기업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국민연금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또는 보호하기 위해서 의결권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그 취지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를 않습니다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공적 기관입니다.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경영과 기업 이윤 차원을 떠나서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또는 정책적인 고려에 의해서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개연성도 과거에도 있었지만 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기업들 사이에서도 물론 입니다만은 본 위원도 그렇게 우려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아무리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100대 기업은 수십 년 동안의 소위 경영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전문인력도 물론 보장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화된 세계 어느 기업하고 경쟁을 붙여도 경영 측면에서는 그렇게 예를 들면 밀리지 않을, 뒤지지 않을 그런 노하우를 가진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공적 기관 인력의 역량하고 또 사기업 민간기업의 인적역량을 비교해 본다면 80년대가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공무원 내지 공적 기관의 인력들이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대학 출신들, 박사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고급인력들이 거의 다 대기업으로 빠져나가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이후의 인력들은 공적 인력들이 민간 대기업의 인력에 비해서 역량이 모자라는 이런 상태까지도 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이야기가, 어린애가 무슨 어른을 교육시키고 있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쓴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연금공단의 몇 사람 안 되는 인력 가지고 100대 기업의 수많은 전문인력들이 인력들이 결정하는 그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참여해서 무슨 의결권 행사를 했을 때 과연 그 기업을 위

해서나 또는 우리 연금공단의 이익 증식을 위해서 나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문제를 많이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본 위원의 걱정이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는 몰라도, 기준을 만들어 놔도 그 기준을 운영할 전문인력들이 최소한도 대기업 내지 금융기관보다 더 우수한 인력들이 있어야지 그렇게 잘 될 거다 이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고 또 매우 민감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매우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이 저희 기본 생각이구요.

그러나 외국의 경우를 보면 저희 규모의 그런 대형 연·기금의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합니다. 그것은 주주 이익을 확보하고 이제 높여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탁자의 의무를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의 기본 방향은, 이런 주주권 행사를 국민연금이 강화해 나가더라도 이것이 경영개입이라든지 경영 간섭의 형태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구요.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주주권 행사를 넓혀 나가더라도 그 근거가 아주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가이드라인하에 이런 주주권 행사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서 위원님께서도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관치가 됐든지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입김에 의해서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더라는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저희가 다루어 야 된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금 운용에 있어서의 투자 결정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주주권 행사도 수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방향으로의 제한된 범위의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그것이 큰 방향으로 보면 저희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인력이 있느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외국에 보면 주주권 행사 관련된 팀을 따로 둔다든지 그런 위원회를 더 강화해서 두

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과제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일부는 외부의 주주권 행사를 도와주는 전문컨설팅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이 있겠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저희가 서두를 부분은 아니고, 다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중장기 전망으로 보면 국내의 웬만한 기업의 1대 주주로 가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민하고 또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봉 위원 이사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은 아주 이상적이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봐서 사기업은 이윤 추구가 아주 철저한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회사에서 근본적으로 회사 이익에 반한다든지 이윤 추구를 못 한다든지 그런 경영에 잘못이 있으면 그것은 가차없이 바로 거기에 따라서 응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공기업이란 것은 사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느슨한 것은 다 아시잖아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습니다.

○이해봉 위원 느슨한 것은 다 아시고, 그리고 이사장이 아무리 이상적이고 투명한 그런 기준을 내세웠다 하더라도 그 기금을 운용하는 사람들,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보좌진들에 의한다면, 가정해서 우리가 일반 통상적으로 봐서 공기업 내지 공무원의 공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유혹이 굉장히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정해서 아무리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도 운용하는 역량이 설사 있더라도 그 역량이 그렇게 공정하게 국민연금을 증식시키기 위한, 또 국민을 위해서만 집행된다고 우리가 보장을 못 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바로 공기업의 운용에 있어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내 재산 같으면 왜 철저하게 안 하겠어요? 그러나 공기업의 공적 자산이란 게 때에 따라서 여러 보좌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공기업의 특성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하고자 하는 보좌진들에 의해서 공적 권위를 가지고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본 위원은 과거 경험으로 봐서 꽤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들을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될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노력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봉 위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위원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곽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곽정숙 위원** 건설일용직 근로자용 국민연금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개선 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을 제가 요청을 해서 오늘 나와 주셨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참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참고인 김호중** 저는 건설 현장에서 작년까지 형틀목수 일을 했었고 지금은 전국건설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직에 있습니다.

○**곽정숙 위원** 건설 현장에 근무했을 때 사업장 가입자였습니까, 아니면 지역가입자였습니까?

○**참고인 김호중** 제가 근무하는 동안 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사업장 가입자였었던 적이 있었구요, 대부분은 지역가입자였습니다.

○**곽정숙 위원** 왜 대부분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못하고 지역가입자가 되셨습니까?

○**참고인 김호중** 건설 현장의 경우에 1년에 평균 한 200일 미만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절기 장마철 제외하고도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장가입자가 못 되고 지역가입자였었고요. 그리고 20일 이상 일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장에서 신고를 게을리해서 이제 그 지역가입자로 있었습니다.

○**곽정숙 위원** 사업자가 신고를 게을리해서?

○**참고인 김호중** 예, 그렇지요.

○**곽정숙 위원** 참고인 외에도 다른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참고인 김호중** 예, 마찬가지로입니다.

○**곽정숙 위원** 20일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20일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은 가입이 가능할 텐데 국민연금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참고인 김호중** 일단은 20일 이상 일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건설 현장에서 20일 이상 일하기 어렵다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20일 이상 일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실제로 우리를 고용해서 하는 회사의 경우에 영세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를 게을리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원천·하청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원래 이제 원청회사가 정산해 주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산받게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곽정숙 위원**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노후에 거기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현장에서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국민연금 가입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참고인 김호중** 예, 그렇습니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40대 후반, 50대 초반입니다. 진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가장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의 경우에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날들이 많다 보니까 현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장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이 최소한이 9만 원인데 이 9만 원을 내는 것도 실제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이번 장마철 같은 경우는 열흘도 일을 하지 못했었는데 열흘 일한 사람이 100만 원 벌어서 가지고 9만 원을 내야 되는 거지요.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가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누구나 늙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건설노동자들도 늙게 될 텐데 이 건설노동자들이 늙게 됐을 때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못함으로 해서 실제로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곽정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한 달에 20일을 못 한다는 이유 때문에 가입 자체가 막혀 있고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려면 9만 원 대야 하는, 자기가 받는 급여의 10% 정도에 달하는 돈을 가입비로 내야 한다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가입도 또 어렵

고 그래서 결국 국민연금 가입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장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우선 지금 말씀 통해서 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 매우 마음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취약 부분이야말로 저희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될 그런 사각지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지금, 달리 말씀드리면 건설 일용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적용 기준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곽정숙 위원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명확한 답변을 주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공감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정책당국은 아니다 보니까 담당 부처, 정책당국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정숙 위원 협의를 하시되 이것은 연금공단에서 정한 지침 개정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 시행령에는 1개월 미만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공단에서 마련한 지침에서 20일 규정을 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에 20일을 일하지 못한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놔야 됩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사회보험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곽정숙 위원 일할 수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 가입을 못 하도록 막아 놓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곽정숙 위원 20일 규정을 좀 푸셔서, 아예 풀든지 최소한 10일 미만으로 낮추셔서 이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을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곽정숙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조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정숙 위원 그다음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단체협상 미체결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

니다.

지금 연금공단이 1년이 넘도록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9월 15자로 실효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곽정숙 위원 2009년 본교섭 5회를 포함해서 28회의 교섭을 실시했고 노사 양측은 2009년 12월 23일 날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잠정합의라는 부분은 사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곽정숙 위원 이사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제가 12월 2일에 왔습니다.

○곽정숙 위원 이사장님 오셔서 한 건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곽정숙 위원 잠정합의안 도출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곽정숙 위원 이것 자체가 제대로 체결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주 핵심사안이 연봉제 도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노조도 우리 직원이고 우리 공단의 가족인데 제가 왜 자꾸 일을 어렵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우리 노사문화는 개선해야 되겠다고 느꼈던 것은 그때 가장 핵심쟁점이 노조전임자 숫자 문제와 연봉제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대폭 개선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적어도 우리가 잠정합의를 하려면 의미 있는 진전이 두 부분에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지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곽정숙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런데 전혀 그런 변화가 없는 것을 잠정합의라고 가지고 와서 그것은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잠정합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곽정숙 위원 잠정합의안이 아니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곽정숙 위원 그리고 지금도 합의할 어떤 상황이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저는 그동안 여러 번 만났고, 노조 집행부 대표와 식사도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겁이 제 희망만큼 그렇게 빨리 좁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곽정숙 위원** 연봉제 도입 및 성과연봉 확대가 이사장님의 경영약정 내용이시잖아요, 그러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런 것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곽정숙 위원** 본인이 제출하셨던 함께했던 약정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것을 고집스럽게 지키기 위해서 노조가 요구하는 것, 노조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이것은 그냥 노사의…… 연봉제 도입을 하려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노조와의 아주 적절한 이런 교섭이나 논의를 묵살하시면서 고집스럽게 내 약속, 내 경영방침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곽정숙 위원** 그래서 내 생각을 일정 부분 내려놓고,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일정 부분 내려놓고 양보할 부분은 한 발짝 양보해 가면서 노사가 적절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앞번에 마련되어 있었던 국민연금노사 평가제도개선위원회를 2005~2009년까지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오시면서 이것도 폐지되어 버렸고 국민연금이 연봉제를 도입한다라는 것은 성과주의를 얘기한 건데 2004년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있었던 심각한 성과주의 폐해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우리 공단의 경우……

○**곽정숙 위원** 2004년 국민연금공단 직원이었던 분이 ‘오늘도 하기 싫은 일을 했다.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강제 부과하는 문서를 보냈다. 선량한 말 한마디 못 하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보험료를 부과했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고 또 이 성과주의 도입에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율을 높여야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죽음 직전

까지 내몰린 것은 물론이고 자동차 이런 것들을 압류하고 독촉을 해 대니까 국민연금 거부운동이 국민들로부터 일어났었습니다. 이게 2004년도의 일이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래서 저희가……

○**곽정숙 위원** 이런 폐해가 있는 건데 이것을 좀더 이전에 있었던 노사 평가제도개선위원회처럼 적극적인 노사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동위원회를 꾸려서 의견수렴 해 가면서 이것을 해결하도록 하셔야지 내 의견만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이재선** 예.

○**곽정숙 위원** 주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을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이 단협이 빨리 체결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기관장으로서 책임도 느끼고 제가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것을 고집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는 제가 참 더 당혹스럽게 느껴지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이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성과주의문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제한된 범위의 것입니다. 저희 공공기관, 우리 공공기관의 특성을 감안한 적절한 수준의 성과주의문화 도입이 바람직하지 무리한 성과주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는 민관기관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의 직원들이 4, 5, 6급 직원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는 도입을 하지 않고 3급 직원들, 3급 직원들은 지사에 가면 부장도 하고 간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준 간부 직원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결코 무리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제 경영계약에 들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니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

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위원장 이재선**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꼭 이 조직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어서 하는 것이지 제가 어떤 무슨 성과급을 잘 받으려고 그러겠느냐? 노조에서 얘기가 이것을 해 가지고 제가 성과급을 많이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일하는 동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받는 성과급은 직원들을 위해서 다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진정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대로 그것을 지키고자 합니다.

○**곽정숙 위원** 단체협상이라는 것은……

○**위원장 이재선** 곽정숙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이 있으시니까 혼자 그렇게 시간을 쓰시면 안 되시지요. 다음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최경희 위원님.

○**崔敬禧 委員** 시작하기 전에 보건복지위원회에 경사가 있어서 축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위원님께서 민주당 사무총장님이 되셨고요, 양승조 위원님께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 비서실장님이 되셔서 축하드립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해외·대체투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주요 연기금들이 2000년대 중반까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투자 비중을 높여 왔으나 오히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대규모 수익률 하락과 함께 유동성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300조가 넘는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미래이고 노후 희망입니다. 이사장님은 경영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가지셨으니까 그만한 이해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국민연금은 향후 5년 내 해외투자 비중을 20% 이상으로 대체하고 자산 비중을 10% 이상 높일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2009년 6월 이후 총 7건, 약 3조 2000억 원 규모의 해외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 중 3건, 1조 8000억 원 규모가 영국 런던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도쿄가 한 군데이고 투자금액은 970억, 미국은 1520억, 영국이 게트워공항은 지분율이고 다 합해서 네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88우드스트

리트라는 빌딩과 HSBC타워 이것은 100%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 한 군데, 독일에 한 군데, 프랑스 한 군데인데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지난 15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데서 투자의 시기나 지역적인 집중에 대해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 2010년 초 일부 EU 국가들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간적 지역적 집중 또 공격적 투자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라면 잘못된 투자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기간적으로도 한 군데로 집중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위원님 말씀하신 해외투자의 확대, 그것이 또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것 아니냐 또는 투자의 대상이 일부 부동산으로 너무 몰려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의 말씀이십니다. 우려에, 일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전체의 포트폴리오, 총자산의 비중으로 보면 아직도 저희 해외부동산 투자의 비중은 1% 남짓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규모의, 세계적인 연기금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보다는 훨씬 지금 낮은 수준으로 운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하나 드리고요.

저희가 해외 부동산 투자할 때의 주요 투자 목적은 장기적으로 안정된 임대수익을 받는 구조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HSBC 같으면 18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매달 임대수익을 받고 또 물가가 오르면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가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률은 채권수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가 집중적으로 작년 하반기, 또 금년 상반기 이렇게 해외에 투자한 부동산들은 경기 사이클로 보면 대체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서 저희가 최근 통계를 보니까 임대수익 또 실제 가격 오른 걸 계산해 보면 13%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론 바로 지적해 주신 너무 일부 국가에 편중되는 것은 막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보면 오스트레일리아 또 여러 국가로 이렇게 다변화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기간에 걸친 어떤 가격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너무 과도하게 안지 않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崔敬禧 委員**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상세한 투자 기준이나 절차를 가지고 투자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사전에 어떤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투자 이후에는 어떻게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나중에 자세한 내역을 본 의원실로 보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敬禧 委員** 그리고 물론 장기투자를 목표로 하는 대체투자겠지만 최근의 대규모 해외 대체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기조에 비추어볼 때 부동산 재산가치의 상승률 혹은 하락 또 임대료 등 당해연도의 수익률이 그저 투자할 당시에, 투자결정 시 예상했던 기대치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방으로 보내……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자세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아주 구체적인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崔敬禧 委員** 그리고 이사장님의 그동안의 명성과 실적을 제가 익히 알고 있어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감사합니다.

○**崔敬禧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 반환청구 기각결정에 대해서 2010년 1월부터 연기금에 대한 전면적인 증권거래세 과세 전환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적용 대상 논란이 뜨겁습니다. 올해 공모펀드 기금에 대해서 증권거래세가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 등 43개 기관이 증권거래세 납부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올해 1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기금운용을 하면서 56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했는데요, 공단은 지난 3월 한국예탁결제원에 2010년 1월분·2월분 납부세액 126억 5900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했

습니다.

공단 주식거래는 기금운용법의 하나로 실제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국고금 운용인 국가행위라 볼 수 있으므로 증권거래법상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2010년 6월 관할 영등포세무서는 ‘국민연금공단은 거래세 과세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대해서 반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각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각결정을 받은 이유와 또 거기에 대해서 심사청구나 감사원 재청이나 행정소송을 준비하셨는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세무서는 과오납도 자진 반환하는 예가 절대 없습니다. 꼭 소송에 의해서만 반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예외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려웠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그 건이 편입된 이후에 최근에는 기획재정부 우정사업본부도 과세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정사업본부는 케이스가 면제될 더 강한 케이스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포함된 걸로 봐서 저희가 이 소송으로는, 심판청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敬禧 委員** 그 심사청구 다음에 또 행정소송까지 좀 해서, 이것은 국민의 노력의, 땀의 결정체이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옳습니다.

○**崔敬禧 委員** 꼭 되찾아서 국민연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崔敬禧 委員** 노력해 주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감사합니다.

○**崔敬禧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중 참고인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김호중 참고인은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원희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희목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전광우 이사

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 국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감사합니다.

○원희목 위원 현재 연금공단은 사회보험 징수 통합으로 700여 명의 가족 같은 직원들을 건보공단으로 보내게 되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습니다. 712명……

○원희목 위원 순탄치 않은 노사관계로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말끔히 씻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국민연금공단이 다시 한번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국민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국민연금의 해외 부정수급이 189건이 있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원희목 위원 건수는 많지 않고 국내 발생 14만 건에 비하면 별건 아니지만, 그런데 적발된 1건당 부정수급액이 96만 원으로 한 50%가량이 높습니다. 그렇지요? 제일 큰 것은 지난 5년 동안에 한 1674만 원의 부정수급을 받은 사람도 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해외 부정수급 적발률이 2005년도에 비해서 54%가 감소했다고 이렇게 보고서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원희목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적발률이 낮으면 좋은 건데 이것은 좋아도 좋은 게 아니라 해외 수급자에 대한 관리 부재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외 수급자들로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수급권확인서를 제출받지만 해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현지 확인 같은 게 거의 다 힘들지요? 거기에 비해서 국내는 약간의 자격변동만 생겨도 금방 파악해서 연금수급을 바로 중단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해외 수급은 상당히 확인에 어려운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해외 수급자가 4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절대 액으로 크지는 않지만 해외 수급자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걸로 예측이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 연금관리의 사각지대로 굳어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사장님께 세 가지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들었는데요, 우선 인력과 조직의 확대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해외에 인력이 한 10명 정도 되지요, 전담 인원이?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국제업무센터에 있습니다.

○원희목 위원 그것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관리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걸로 봐서 보건복지부나 기재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득이나 장애 같이 수급권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쪽 국가 간에 동시에 할 수 있는 국가 간 사후관리 협조체계를, 그런 구축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원희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제도도 연금지급 특례조항을 도입하고 있지요? 그래서 해외 수급자에게 연금액을 일시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관리 관계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제 의견인데요, 이것 말고도 저의 제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추후에 이견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희목 위원 이 부분은 지금은 크지 않지만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말씀하신 세 가지 제안은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희목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국민연금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얼마 전의 보도로 잘 아시겠지만 직접투자와 위탁투자 간에 중복투자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원희목 위원 그래서 국내주식 부문에서 특히 주식투자 총액이 19조 1408억인데 그중에서 86%인 16조 5000억 원 정도가 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투자하는 종목에 중복투자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희목 위원 그래서 해외주식에서도 한 50% 이상이 55% 정도가 중복투자가 되고 있는데 특히 국내투자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투자율이 높으면, 일단은 우리가 위탁투자를 하는 목적이 됩니까? 위험분산 효과를 보는 거지요? 위험을 좀 분산시키겠다는 건데 이렇게 애초 목적인 위험분산 효과도 없으면서 위탁투자 운용사에게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더 들으시고 얘기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희목 위원 지난 3년간 국민연금공단이 위탁 운용사에 지불한 위탁수수료가 국내주식 부문에서 1675억 원, 그리고 해외주식 부문에서 944억 원, 2619억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수수료를 줬으면 그만한 또 수익을 내면 좋겠는데 그런 막대한 수수료를 준 위탁투자가 오히려 직접투자에 비해서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올해는 1% 정도 위탁투자가 수익률이 좀 나은 것으로 돼 있는데 2008년도에는 8%,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13% 정도나 위탁투자의 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일부 낮았던 해가 있습니다.

○원희목 위원 일부가 아니라 2008년, 2009년도 가 그렇게, 이것은 정확할 겁니다. 올해만 1%가 낮았는데…… 그러니까 위탁수수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직접투자보다도 수익률이 낮았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직접투자와 중복투자를 함으로써 현재 위탁투자의 애초 목적인 위험분산 효과를 보고자 하는 건데 그것도 달성하지 못했고 직접투자에 비해서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운용사에게 연간 800억 원이나 넘는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돈이 중복투자 되고 있는데 위탁투자를 왜 하는 겁니까? 위탁투자의 목적이 됩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원희목 위원 아니, 그래서 이걸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위탁투자가 소기의

목적은 달성해 가지고 있게 하든지 아니면 국내 위탁투자를 여건상 그렇게 중복될 수밖에 없다면 위탁투자를 하지 말든지 하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짧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우선 금액상 80%가 이제 중복이 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요, 사실 그 투자 중복수를 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한 90개 대형주에다 하고 위탁하는 것은 한 580여 개 주식에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도 이제 투자를 분산 해서 하는 것이지요, 위탁을 했을 때는.

○원희목 위원 잠깐만, 지금 질문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다 들은 다음에 제가 말씀을 올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원희목 위원 예, 제가 일단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위탁투자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 위탁투자가 거액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소기의 수익률도 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이따가 답변을 주세요. 만약 안 되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원희목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부정수급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만 하고 이제 그것 합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부정수급으로 발생하는 것은, 부당이익금은 수급자의 잘못으로 이제 대부분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단의 잘못으로 생기는 부당이익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원희목 위원 지난 3년간 공단의 과실로 발생한 부당이익금이 무려 360%나 증가했다. 그러니까 절대 액수는 크지 않는데 액수보다도 가파른 증가세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2007년도에 7억 7000만 원이었던 게 2009년도에 35억 6000만 원까지 증가를 했다. 그래서 발생건수도 905건에서 1421건으로 이것도 57%나 증가했고 입력 착오로 인한 부당이득금은 460%가 증가해서 건당 무려 324만 원이나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49%나 증가한 확인 오류도 건당 168만 원이나 되고 있다. 그러니까 공단의 잘못으로 생기는 부당이득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

다는 겁니다.

연금받는 사람들이 관리가 이렇게 부족한 연금공단이라면 연금공단에 대한 불신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금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사장님, 공단의 과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희목 위원 그리고 이것은 하나 짧은 질문인데요, 질문이라기보다도……

지난 6년간 네 번이나 C등급을 받았지요, 경영평가를 보면? 2006년과 작년에만 B등급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경영자 측·노조 측, 노사 측이 모두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려니까 지금까지 노사관계가 이렇게 원만치 못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연금공단은 국민의 어떠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의 노사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은 상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전에 노사관계를 하루빨리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생각하는 그런—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큰 틀에서 간략하게 좀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직접투자와 위탁투자와의 관계 부분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듯이 실제 투자를 한 대상이 직접투자의 경우나 위탁투자의 경우나 금액으로 보니까 86%가 비슷하더라 이런 말씀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직접은 대체로 소위 블루칩, 그러니까 좋은 대형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90개 정도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고 위탁은 전문화된 운용사에다가 맡겨서 하기 때문에 한 580여 개에다 나뉘어서 하는데 워낙 대형주들의 시가 비중이 크지요, 가치가. 그렇다 보니까 일부 겹쳐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겹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투자대상 기업체 숫자는 훨씬 차이가

많다라는 말씀을 우선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분산효과와 다른 위탁운용을 하는 것은 수익을 계산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수익성도 안 좋으나 하는 말씀은 저희 통계는, 저희가 자료로 다시 한번 별도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까마는 저희가 지금 축약을 해 놓은 자료에 보면 지난 5년간 위탁이 직접에 비해 연평균 1.4% 포인트 초과 수익을 나타낸 것으로 돼 있거든요, 5년 동안에. 그래서 실제로 보면 5년간 연평균 수수료는 520억을 내주었고 연평균 초과 수익금은 1200억을 올려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통계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난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나중에 그것은 저희가 파로우업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희목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고, 그것 마지막에 코멘트를 하라고 하신 노사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잘 마음에 담아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이런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로서 참 쉽지 않는 것이 원칙을 지키고 원만하게 처리한다 하는 것이, 늘 2개를 갖춘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그런 현실적인 딜레마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낙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낙연 위원 최근 일본에서 장수 노인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자식들이 연금을 받기 위해서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는 뉴스가 국내에도 전해져서 우리를 경악케 한 적이 있습니다. 한테 유사한 사례가 국내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연금공단으로부터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A모 씨,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이렇게 가립니다. 2009년 4월 18일에 사망했습니다. 그 유족이 인우보증서를 첨부해서 실제 사망일 보다 1년가량 늦은 2010년 4월 6일에야 지자체에 사망신고를 합니다.

연금공단은 올해 3월 화장장 자료를 조사하던 중에 사체검안서를 입수해서 생존 여부를 유선과

우편을 통해서 문의합니다. 그래서 사체검안서상의 사망일보다 1년 가까이 늦게 사망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결국은 허위신고 사실이 적발됐고 그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이낙연 위원 일본에서 벌어진 그런 일과 매우 닮은 사건입니다. 꼭 이런 패륜적인 일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공단이 잘못 지급한 연금액이 무려 949억 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연도별 건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12만 2000건의 부당이득 환수 결정이 나오고 있지요? 이렇게 부당수급이 늘어나면 기금재정 손실에도 큰 영향을 끼칠 텐데 신고율을 높이는 방법이 없습니까? 짧게 답해 주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저희가 자진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신고 지원 시 이자를 가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이 금년 8월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위원 법안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깊이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가입자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게 된 이유를 보면 부양가족 기준 미달 사유, 또 자격정수 내역 변경 사유, 소득이 있는데 무소득자로 파악하는 경우 사망 등으로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사망 등으로 수급권이 소멸했는데도 가족에게 계속 연금이 지급된 경우가 5년간 264억, 저쪽에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전체 부당수급액의 27.8%에 해당되고 있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연도별 통계가 그다음 화면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발생 건수에 대한 미환수율이 2006년에는 2%였습니다마는 그것 또한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당수급이 줄어들지 않는다, 늘어난다는 것은 연금운용 및 관리의 큰 문제입니다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별도로 치더라도 고의적인 부당수급자 이런 사람들은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부당수급을 조사하는 담당자가 따로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사후관리 중에 우연히 알게 되면 환수하고 모르면 넘어가고 이런 관리 가지고 과연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올해 부정수급 조사부를 따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주위에서 제보를 받아서 포상금도 지급하고 기획 조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연금공단은 그러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게 없는지 혹시 부당수급 조사 전담팀이라도 만들 용의는 없는지 이사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낙연 위원 부당수급 조사 전담팀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것 포상금이라든지 실효성을 높이는 그런 대책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위원 알겠습니다.

과오납금 문제를 묻습니다.

공단이 88년에 설립된 이후에 올해 6월 말까지의 과오납금은 모두 330만 2494건, 그리고 액수로 3411억 원에 달합니다. 저쪽 맨 윗 칸의 네모 칸 처진 것이 바로 그 총계액입니다.

해마다 과오납금 발생 건수가 25만 건 전후를 넘나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줄지 않고 때로는 늘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공단 측은 줄었다고 하는데 그 이전 해에 많이 늘은 것에 비해서 살짝 줄었다 이것을 가지고 만족한다 그러면 우스운 얘기가 될 겁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만료돼서 주인을 찾아 주지 못한 금액도 같은 기간 동안에 2만 2644건, 9억 6000만 원이 되고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255건이 추가로 소멸시효가 만료가 됐습니다.

과오납 사유를 보면 70%가 자격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경우입니다. 가입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기만 했더라도 상당수의 자격신고 지연이 줄었을 텐데 공단이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는 과오납 환불을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조회한 후에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고요. 각 금융사들 또한 홈페이지에서 휴면계좌를 조회해서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연금공단도 이처럼 손쉬운 환급 방법을 마련해서 잘못 낸 돈을 찾아가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과오납금을 손쉽게 반환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돼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청구안내에 더 힘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위원 대부분의 국민들이 홈페이지에 그런 게 올라와 있더라도 잘 보지를 않고 또 봐도 잘 모를 거예요, 아마도. 전문적이지 않은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분야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알기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낙연 위원 구상권 문제 질의합니다.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금공단이 구상권을 가졌다고 고지한 금액 중에서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58억 원을 넘습니다. 전체 고지액 중에서 무려 66%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표에 연도별 미징수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상권이라는 것은 공단의 고유한 권한, 공단을 위한 권한이 아닐 겁니다. 연금을 내는 국민들의 권리를 공단이 대행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구상권의 행사를 잘못 해서 징수하지 못한 비율이 해마다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 행사를 소홀히 한다는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상권 행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지금 구상금 발생 주요 사유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폭행 살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현실적인 문제가 적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가해자가 지금 감옥에 있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납부 독려는 물론이고 소득파악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소송 진행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징수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위원 가해자가 배상능력을 갖지 못해서 피해자가 충분히 배상을 받지 못한다든가 하는 것은 연금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왕왕 있는 고민이지요. 연금공단이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낙연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자니 시간 내에 못 마칠 것 같고 2차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양승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승조 위원 양승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현황이 어떻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514만 명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조 위원 예, 그렇습니다. 514만 4309명으로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서 12만 7119명 정도 늘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승조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납부예외자가 늘어나는데 이 납부예외자가 늘어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일부는 가입 대상자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고요. 아무래도 실직이나 지금 경제여건이 어려워져서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생계형 그런 것에 처해져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양승조 위원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양승조 위원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중 실직이나 사업 중단, 생활 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납부를 못 하고 있는 경제적 곤란 예외자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전체에서 한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위원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양승조 위원 464만 명 정도로 90% 정도를 차지하지요? 이 중에 실직에 해당되는 분들이 390만 명 정도,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서 무려 한 9만 2000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또 사업 중단과 생활 곤란의 경우에 전년 대비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 42만 명 정도, 31만 명 정도로 파악되었지요?

결국 이사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들 경제적 곤란 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위원님 말씀처럼 사각지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될 그런 대상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양승조 위원** 이분들이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아무래도 노후대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사회적 인 문제가 생길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양승조 위원** 결국에는 저연금자 내지 무연금자가 되겠지요, 이사장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양승조 위원** 결국 안정적인 노후대책이 안 된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저희로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납부예외자를 줄이기 위한 공적자료를 최대한 활용을 한다든지 현장확인 중심으로 업무추진의 강도를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또 제도 홍보라든지 교육을 강화해서 노후설계 상담서비스와 같은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노력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이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활곤란자들의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보험료를 지원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위원**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우리가 공단에서 노력하고 본인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양승조 위원** 이사장님 마지막 말씀하신 납부예외자 증가 문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대안으로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말씀하신 뜻에 공감합니다.

○**양승조 위원** 이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무연금자 및 저연금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재정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양승조 위원**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가입자, 특히 최저생계비를 조금 웃도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과중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금년 6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15만 8000명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정률로 지원할 경우에는 440억 원이, 지원액 상한을 1만 5000원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2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그 발표 보신 적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말씀 들었습니다.

○**양승조 위원** 이 정도라면 재정여건상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우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다만 금액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아무래도 국가 재정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의 공감대 또 부처협약이 필요한 그런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위원** 아마도 이사장님만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고 또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정책 도입을 역설하고 반드시 실천할 수 있기를 우리가 촉구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조 위원** 시간관계상 한 가지 짧게 묻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반환일시금, 지금 어느 정도나 반환하셨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 비중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10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양승조 위원** 이미 반환된 게 한 1200억 정도 되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1200억 조금 넘습니다.

○**양승조 위원** 2010년 8월까지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고 이미 출국하신 외국인근로자 분들 7만 2463명 이분들에게 한 1204억 정도 지급됐고요.

지금 남은 인원과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미지급 말씀이신가요?

○양승조 위원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38억 정도인가요?

○양승조 위원 저희가 받은 통계에 의하면 7391명의 외국인노동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금액이……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130억 정도로 이렇게……

○양승조 위원 한 47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고 출국하신 분들에게 끝까지 찾아서 지급하는 것은 대한민국 품격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양승조 위원 그런 면에서 이사장님께서 남은 7000여 분 정도, 금액으로는 한 50억 정도, 이 부분을 철저히 파악해서 가지고 남은 한 사람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승조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공성진 위원 질의 순서고 오전질의는 박상은 위원까지 하시겠습니다.

○공성진 위원 공성진 위원입니다.

전광우 이사장님은 제가 정무위원회에서 일을 할 때 금융위원장으로서 함께 일을 한 경험이 있고 또 금융인으로서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1등석 문제 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1등석을 탄다고 1등 기관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LG그룹의 모 회장님 같은 경우는 해외출장 시에 비서를 대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착 공항에서 약속장소까지 택시를 타고 간다 하는 이런 얘기도 많이 소개가 되었고 또 저희 당의 박근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번도 이코노미 외에 비행기를 타지 않는 그런 겸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공성진 위원 제가 놀라는 것은 최근에 독일 통일 20주년이 되었고 한반도의 소용돌이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금 몰고 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연금공단의 어느 부서에 확인을 해도 우리 한반도 통일 혹은 대량 탈북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런 위기상황의 연금 정책에 대해서 혹은 좀더 확대를 하게 되면 사회 보장정책에 대한 자료가, 연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자료가 없겠습니까라는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알기에 백화종 원장이 재임하고 계시는 국민연금연구원 같은 경우가 연구역량도 탁월하고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활용도가 낮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을 먼저 하고요.

우선 화면을 통해서 제가 이사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독일 통일 과정에서 연금제도 관련해서 투입된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전광우 이사장님께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총 15년, 1991년부터 2003년까지 15년간 1조 3000억 유로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공성진 위원 그런데 그 1조 3000억 유로 즉 우리 돈으로 한 1772조인데 저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라는 연금이나 노동시장 보조, 육아보조, 교육보조 등의 사회보장성 지출에 투입된 비용이 거의 50%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공성진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왜 2003년까지만 나와 있느냐 하면 이것이 서독 국민들에게 상당히 사회적인 재정부담감 증가 때문에 갈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2004년부터는 이런 분리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3년까지만 나와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결국은 통일 과정에 보게 되면 지나치게 후한 연금복지가 동독 국민에게도 제공되었지요. 이는 막대한 연금재정 적자와 통일비용의 부담을 남기게 되었는데 결국은 막대한 재정적자라는 것은 보험료를 늘릴 수밖에 없었겠고 또 국고 보조 이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공성진 위원 보험료도 90년도에 독일의 경우 18.5%에서 2009년에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텐데, 결국은 독일 통일 당시의 동·서독 소득 격차와 지금 현재 남북 소득 격차를 비교를 해 보게 되면 또 어떤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자료에는 통일 직전에 즉 1987년도 독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서독의 66% 수준입니다. 그런데 2008년 기준으로 볼 때 남북한 GNI 즉 1인당 국민총소득을 비교해 보게 되면 북한이 남한의 6%밖에 되지 않습니다, 1065달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동·서독 간의 격차를 줄이는 이런 사회보장성 제도의 수립보다 훨씬 더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공성진 위원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북한 주민에 대한 긴급구호적인 조치라든가 혹은 체계적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적 측면의 개입은 필수불가결하고 또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돈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평성을 제고한 그런 국민연금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그다음에 세 번째 자료로 넘어가 보게 되면 저렇게 남북한 연금 제도를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을 텐데요.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이제 남한에는 다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금제도라는 것이?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공성진 위원 그러나 북한은 단일 소득비례연금제도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간은 1946년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63년부터 실시한 이런 연금제도가 있습니다마는 훨씬 더 연금이나 이런 사회보장정책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익숙하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공성진 위원 그래서 결국은 남한의 공적연금 제도를 북한지역에 그대로 적용하게 될 경우에는 엄청난 재정 적자가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급격한 통일에 대비할 수밖에 없고, 또 통일이 아니더라도 한반도 소요……

지금 현재 하나원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연금정책이나 이런 것을 한번 직접 연

결해서 대책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구체적인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공성진 위원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공성진 위원 제가 연금연구원의 원장님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나눠 봤고, 또 국정원 통해서도 해 봤습니다만 전혀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독일 통일 20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래서 남북한의 통일이 가까워졌다는 통일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성 정책을 마련해야 될 국민연금이 통일부나 국정원 관계자와 TF팀을 마련하거나 혹은 여기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관련 기관에 발주를 하거나 하는 이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지금 공공 연·기금 기관의 기관장들이 해야 될 1차적 책무라고 나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심각한 그런 이슈로 앞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연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침 제가 봄에 세계은행 총재를 만났을 때 비슷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로서는 지금 너무 다른 일이 많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제가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공성진 위원 특히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지만 워낙 전광우 이사장께서 그 부분에 금융위원장으로 있으면서도 문제 해결을 잘해 왔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따로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저에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성진 위원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 때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사각지대에 대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몇 분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번째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국민연금이 98년도 법 개정으로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2013년부터 이제 매 5년마다 상향조정을 하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공성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2013년이 되면, 앞으로 2년 뒤지요,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60세에서 61세로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가입연령은 조정하지 않았어요, 이 법을 만들 때. 그래 가지고 2013년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연령자가 18세에서부터 59세까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에 60세가 되는 37만 8000명의 가입자는 연금수급도 못 받고 가입자의 신분도 잃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지금 그렇습니다.

○공성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2013년에는 만 61세에서부터, 그다음에 5년 후인 2018년부터 만 62세, 그리고 5년 뒤에는 만 63세, 이렇게 해 가지고 2033년이 되어야 만 65세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연령을 조정하지 않으면 중간에 그 간극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긴단 말씀이에요,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노란 줄로 쳐진 겁니다만. 그래서 2033년에는 총 242만 8000명 규모가 연금 수령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다니까 대책도 나와 있을 텐데,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제도 변경에 따른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공대위에서 가입연령을 현행 59세에서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상향 조정 1차 계획에 따라서 함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성진 위원 이것은 그쪽에서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가입연령도 그때에 맞춰서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성진 위원 오늘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니까 그렇게 깊은 연구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것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깊은 연구는 없는데 더 깊게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성진 위원 그래서 준비를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박상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상은 위원 박상은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공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아마 최근에 해외에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세계적인 환율 전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더블딥(double dip)이 다시 올 거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이 최근에 우리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안보 문제와 연결시켜 갖고 항상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아까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근자에 지금 우리 국내 기업들의 회계의 투명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회계의 투명성은 저희가 IMF 위기를 겪으면서 그 이후에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많이 개선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은 위원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세계의 우수기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의 투명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시다라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박상은 위원 과거에 비해서야 뭐, 과거에 100등이 넘었으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의 국력이라든가 이걸로 볼 때에 제가 볼 때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국민연금에서 직접투자 비중하고 위탁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주식의 경우는 거의 반반 정도이고요. 채권의 경우는 저희가 직접을 한 90%, 위탁은 한 10%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은 위원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박상은 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른 나라의 비교되는 기금들하고 볼 때 지금 레이셔(ratio)가 어떻게 됩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자체 역량을 키움으로써 내부, 직접 운영하는 포션이 늘어나는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박상은 위원 그런데 문제는 워낙 여러 가지, 이것을 한 가지씩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지금 펀드매니저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전문인력이 많고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저것을 할 수도 있겠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습니다.

○박상은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과 인력과 여러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습니다.

○박상은 위원 그러나 이제 본 위원이 지금 인력을 보면 펀드매니저가 100명 정도가 안 되는 것 같고, 더군다나 대우도 지금 보니까 평균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우수한 인력을 우리가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습니다.

○박상은 위원 그래서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이 직률도 꽤 높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런 상황입니다.

○박상은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기업들의 회계의 불투명성도 있고 이런 것으로 볼 때 직접투자 부분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전 이사장님이 와 갖고, 제가 몇 년간 보니까 비교조건이 많지는 않지만 좀 줄었더라고요, 줄었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 지구상이라는 여러 가지 경제 여건으로 볼 때 또 우리나라의 국내 사정으로 볼 때 직접투자 부분은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가 인력의 전문성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인력이 지금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일례를 들면 지금 전체적으로 310조를 아까 보면 93명이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한 90명 됩니다, 전문인력은.

○박상은 위원 그러면 1명이 움직이는 펀드 금액을 쉽게 얘기하면 단순하게 하면 지금 3조 5000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박상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를 갖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으로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채용광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단 역사상 가장 한꺼번에 최대의 인원을 채용하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 봐야 숫자는 한 24명 됩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투자를 다변화해 나가고 특수한 분야에 투자를 점점 하게 되면 그만큼 외부의 전문 역량을 활용하는 그런 노력이 아울러 필요하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냥 국채에 투자했을 때는 사실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의 기본 방향은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수익성을 높이자,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이런 과정에는 내부 인력 확충 그리고 외부 역량을 레버리지(leverage)하는 이런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은 위원 지금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어떻든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310조라고 그러면 우리 GDP의 거의 30%입니다.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금년 예산보다 많습니다.

○박상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뭐냐 하면, 안정성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연관되어 갖고 과거에도 제가 알기로는 복수 기금운용공사 내지는 독립성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저희가 어떻게 보냐 하면, 기금운용공사는 별도 공사화하자는 정부 법안 나가 있는 것 그것은 다른 이슈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을 분산해서 여러 개 복수의 펀드로 운용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안이 있었지요. 그리고 해외의 경우도 보면 스웨덴 같은 데는 그렇게 하는 경험이 있는데 경험상 별로 효과가 없다 하는 것이 중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제 우선 기금의 규모가 커졌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독립성이라든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도 K1 K2 K3 해 가지고 죽 나누지 않습니

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박상은 위원 그래서 50조 30조 이렇게 나뉘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방안들을 과거에 지적한 것이 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여기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큰 저거를 해야 되겠고……

특히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여기도 앞으로 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하고 연결시켜서 내가 볼 때는 기금 운용에 대한 독립성·전문성도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은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문인력 얘기는 제가 드렸고……

그다음에 특히 대우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이직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사람들이 결국 여기에서 트레이닝되어 갖고 다른 데로 스카우트되어 가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되면 우리 기금의 여러 가지 정보가 썩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한 60% 정도의 인원들이 여기에서 그만두고서 자기가 거래했던 그런 기관들로 이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제가 단적으로, 제가 모털해저드 얘기까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박상은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우를 충분히 해 주고 우수인력도 확보해야 되겠다, 또 특히 아까 원희목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해외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해외 조직이 너무 약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박상은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해외에 우리 안테나를 세워 갖고 그쪽에서 충분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저희가 이번에 24명 중에 상당수가, 근 반 정도가 해외 인력 쪽으로 하고, 내년 7월 1일자에 저희 공단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사무소를 뉴욕에 그렇게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폭제로 해서 계속

해외에 우리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은 위원 물론 아직까지 없다가 뉴욕도 빨리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뉴욕이라든가 유럽 쪽에 안테나숍(Antenna shop)을 세워 가지고 24시간, 전 세계가 격동치고 있는데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정보 네트워크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은 위원 물론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뉴스가 전 세계에 15초마다 한 바퀴씩 돌지만 그러나 우리 자체에…… 그렇잖아요? 정보가 또 다른 것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습니다.

○박상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 저는 좀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전문성 제고와 함께 기구도 확대시키고……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은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사각지대 문제 이게 특히 농민들, 어민들 소득은 분명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박상은 위원 그런데 그 농어민들에 대한 보험료를 제가 볼 때는 좀더 낮춰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어떤 제도적인 것을 좀 강구하고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농어민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추가적인……

○박상은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원도 지원이지만 보험료를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차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저희가 현재는 국고지원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지원합니다마는……

○박상은 위원 너무 급한 데만 하시니까 저거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 농어민들 어렵습니다. 농어민들에 대해서 특별한 차등 보험료도 해 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연금이 국민들한테 신뢰받게 그렇게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

습니다.

○박상은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이재선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은수 위원 오전 질의 답변에서 이사장은 “노조하고 사이에 단체교섭 잠정합의를 한 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9 12월 23일, ‘2009년 임금 분야 단체교섭 잠정합의 내용’ 그래서 이것을 경영지원실에서 타이핑을 쳐서 노조사무실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장이 오전 질의에서 명백하게 위증을 한 것인데 이사장 어쨌습니까? 분명히 경영지원실에서 타이핑한 문건입니다, 이게. 이런 명백한 사실을 두고 어떻게 그렇게 위증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점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 잠정합의라 하면 사측의 대표가 되는 제가 합의를 한 내용이라야 되겠지요. 지금 경영지원실 차원에서의 공문이 오가고 한 내용은 제가 정확히 어떤 문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박은수 위원 아니, 거기에 잠정합의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없습니다. 제가 한 적이 없어요.

(위원장 이재선, 신상진 간사와 사회교대)

○박은수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이 건물에 직원이 있으니까 좀 불러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영지원실 노사협력부의 강수영 대리하고 그리고 노조의 김영균 부지부장이, 바로 이사장으로부터 전권을 받은 경영지원실장과 그리고 지부장으로부터 전권을 받은 김영균 부지부장이 5일 간에 걸쳐서 합의한 내용을 경영지원실에서 직접 타이핑해서 노조사무실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강수영 대리하고 김영균 부지부장을 위원장님이 바로 국감 회의장으로 불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신상진 지금이요?

○박은수 위원 예.

○위원장대리 신상진 그러면 지금 부를 수 있습니까?

○최영희 위원 지금 질의예요, 아니면 의사진행발언……

○박은수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상진 시간은 가고 있는데 의사진행……

○박은수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으로 아까 이재선 위원장님이 저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상진 그런데 시간은 왜 가고 있지요?

○박은수 위원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상진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박은수 위원 아까 제가 이재선 위원장님 계실 때……

○위원장대리 신상진 의사진행발언이셨어요?

○박은수 위원 예.

○위원장대리 신상진 그런데 왜 시간은……

○수석전문위원 김종두 시간은 5분을 드리는 걸로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상진 5분 끝났어요, 의사진행발언.

○최영희 위원 아직 안 됐어요.

○박은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5분이 지났다니……

○위원장대리 신상진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다 마치셨습니까?

○박은수 위원 강수영 대리하고 김영균 부지부장……

○위원장대리 신상진 이사장님, 그 두 사람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대리 신상진 그러면 지금부터 본질을…… 그러면 그분들이 오시고 난 다음에 질의하실 겁니까, 박 위원님?

그러면 순서를 좀 바꿔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설명을 더 드려도 좋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박은수 위원 우선 설명을 좀 듣고, 오는 동안에 또……

○최영희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신상진 진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신상진 예, 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조금 전에 박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하시는 중에 “잠정합의는 내가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합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잠정합의는 이사장님이 사인하면 진짜 합의가 되는 거고 잠정합의는 양측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전권을 갖고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잠정합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위임을……

○최영희 위원 제가 지금 발언 중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최영희 위원 임금 분야나 비임금 분야의 단체교섭 잠정합의 내용은 잠정합의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양측의 전권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위임을 받아서 합의를 한 겁니다. 이것은 잠정합의이지 진짜 합의는 당연하게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제가……

○최영희 위원 그런데 잠정합의 자체를 거부하신 건데 아까 “잠정합의라는 것이 없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월 2일 취임하자마자 이 문제 때문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었던 부분이라. 위임받은 사람이라 한다고 하면 위임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노사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때, 4·5일 지방에 가서 협의한다는 것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지시사항을 했느냐 하면 이것이 과거와 달리 국민연금공단의 노사문화가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의 의미 있는 진전이 필요하다 그것이 포함되지 않으면 내가 수용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 저희가 노조전임자 숫자가 10명이었는데 정부 가이드라인은 5명이었지요. 그

래서 5명으로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그대로 10명을, 기존의 숫자를 그대로 받아온다는 것은 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유념해서 협의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연봉제 확대에 있어서 우리가 전 직원들에게 연봉제 확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3급 직원에 대해서 연봉제 확대하는 데 대한 내용이 합의가 되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잠정합의라고 지원실장이 가지고 온 내용에는 두 가지 중 아무것도 들어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래의 얘기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합의된 것으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인즉슨. 제가 정확히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금 저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우리는 반박을 합니까?

○위원장대리 신상진 지금 5분 의사진행발언 중이지요?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신상진 계속하세요.

○최영희 위원 연봉제에 관해서는 2010년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요. 이것은 2009년도 단체교섭이기 때문에 그것은 2010년도로 넘긴다는 것이 여기 써 있었고 그다음에 전권을 위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경영지원본부에서 이것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지요. 이사장의 요구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 이런 잠정합의안을 본인들이 해서 노조에 보내는 것은 그러면 이것은 노조를 우롱하는 것이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제가 보낸 사항은 아니지요, 이것이.

○최영희 위원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지금 경영지원본부를 총괄하는 책임자이십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영희 위원 그런데 전권을 위임했을 경우라고…… 그것은 내가 책임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아니, 책임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노사합의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될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담당자가 가지고 온 내용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것을 어떻게 수용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보내지 않는다면 저건 잠정합의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자 측에서 그것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사전에……

○**최영희 위원** 그것은 사용자 측의 잘못입니다. 그건 사용자 측의 잘못이고 그리고 이사장님이 총괄하는 그 직원들의 잘못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노조를 우롱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저건 합의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신뢰 없이 노동조합을 우롱해 가지고 어떻게 노사합의가 되도록 새로운 선진문화가, 어떻게 노사문화가 됩니까? 이사장님 마음에 들면 선진문화고 이사장님 마음에 안 들면 선진문화가 아니고, 어디에다 대고 끊임없이 노사문화, “새로운 노사문화” “새로운 노사문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건 너무 독선적 아닙니까? 상대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있습니다. 그 개개인 하나도 소중한데 이 집합체인 사람들을 그렇게 우롱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선진 노사문화가 된다는 것입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아니, 제가……

○**위원장대리 신상진** 답변하실 거예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아니, 제가 결코 노조의 입장이나 또 조합원들을 우롱한다든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말씀이지요.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이 아니고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영희 위원** 노동조합에서 간 사례가 아니고요, 회사에서 합의했다고 합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노동조합에 준 겁니다. 상식적으로 사대문 막아놓고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게 노동조합의 잘못입니까? 합의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신상진** 최영희 위원님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은수 위원님께서 아까 출석을 요구했던 경우에 사실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참고인이나, 증인이나 이렇게 갑자기 지금 요청을 하셨

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참고인으로든 증인이든 1주일 전에 사실은 우리 상임위원회 의결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별히 꼭 부르신다면 지금 본인들에게 참고인으로 출석이 가능한지를 물어보고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결정을 짓기까지……

○**박은수 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저 문건을 누가 작성했고……

○**위원장대리 신상진** 어쨌든 질의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 좀 알아보시고 …… 어쨌든 아무나 막 부르면 됩니까,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물어보고 절차를 밟자고요. 그리고 그 사이 시간이 있으니까 손숙미 위원이 먼저 하시고 박은수 위원님 그것 알아보고 그 사이에 불러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숙미 위원님.

○**손숙미 위원** 이춘식 위원님인데요.

○**위원장대리 신상진** 순서가, 여기 원래……

○**박은수 위원** 제가 이춘식 위원하고 바꾼 겁니다.

○**위원장대리 신상진** 그랬어요? 그러면 이춘식 위원님 질의하실 수 있습니까?

○**이춘식 위원** 예.

○**위원장대리 신상진** 그러면 박은수 위원님 조금 기다리시고요. 이춘식……

그리고 누구 좀 알아보세요. 참고인으로 와서 진술할 수 있는지, 공단에서 누가 좀 알아보시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본인한테 참고인으로 잠깐 오라고 할 수…… 그것 지시를 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지금 확인 중이라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상진**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이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식 위원** 한나라당 이춘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금법상에 미래사업추진단이 설치되어 있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타운 건립, 복지사업 종합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 기금운용평가실무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복지사업 추진계획(4600억 원)을 보완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국민연금은 연금 자체가 복지인데 수익사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야지,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원래 비영리이고 대부분 적자입니다. 적자를 정부에서 보전하든지 민간기업에서 모금을 해서 보전해야 복지가 되지, 이것을 복지하는 데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기금으로 적자가 예상되는 이런 복지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저희가 국민연금기금 전체의 연 증액분의 1%까지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있어서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을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투자수익 전망이 아주 불투명해서 손실을 보게 되는 이런 대상이 되면 저희로서는 그 뜻은 좋지만 저희 기금의 장기재정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투자대상은 저희가 좀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식 위원 그래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예를 들면 청풍리조트가 적자가 많아서 공단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신중해야 되고 청풍리조트도 빨리 매각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매각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선 매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수익성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매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면 노후생활을 연금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프랑스에서는 정년연장을 반대하는 이런 전국적인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금으로도 충분한 생활이 보장된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에 2000만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의 노후생활 대비 연금입니다. 그리고 현재 또 300만이 수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연금이 지금 최저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급 금액으로 해서 노후생활에 거의 보탬이 되지 않는다 하는 말을 많

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앞으로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또 지금 현재도 이런 수급 금액이 최저생활비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처음에 88년도 시작할 때 그때 이게 선전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앞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연금 등이 국민연금에 통합이 되고 은행,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국민연금으로 통합되어서 전 국민의 노후생활이 이 국민연금 하나로 보장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것이 상당히 후퇴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선전하는 것을 보면 적금보다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선전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적금이 아니에요, 연금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말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질의해야겠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최저생활비 인상률이 2.75%이고 올해 2010년에서 2011년 최저생활비 인상률이 5.6%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작년 인상률과 내년도 인상 예정률이 얼마 정도 되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지금 2.9%, 3% 그런 정도입니다.

○이춘식 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도 벌써 최저생활비에 못 미치는 인상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가입을 해 봐야 나중에 생활에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 돈을 매달 떼다 이래서 불신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게 인상을 좀 높여서 실질적으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연금 최저수령액이 38만 7440원이고 20년 가입자, 30년 가입자도 최저수령액이 39만 570원입니다. 그래서 최저생활비 1인 가구 50만 4344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수급자가 수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은 경제 잘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좋잖아요, 좋은데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는 좋아지는데 왜 체감을 못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이제 기술 산업·자동차 산업·휴대폰 산업·전자 산업 이런 것은 잘 되는데 일반 서민경기는 아주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서민들이 돈이 있어야 되고 구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민에게 구매력과, 어려운 사람들이 동네에서 동네 슈퍼나 동네 미장원·동네 빵집 이런 영세 사업체를 이용해서 이런 분들이 장사가 잘 돼야 서민들의 경제가 좋아지고 체감경기가 높아지는데 이것은 이제 연금이, 전 국민이 혜택을 보는, 서민들이 혜택을 보는 연금이 제 기능을 발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서민들이 구매력이 있고 돈이 있어야만…… 서민들은 멀리 가서 무슨 큰 백화점에 가지 않고 동네에서 대부분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 경제가 좋아지려면 국민연금, 전 국민들이 또 특히 서민들이 수급하는 연금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사장님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연금을 잘 운용해서 최우수 연기금 글로벌 자산운용 역량을 갖춘 세계 최고의 사회보장 기금이라는 상도 두 번이나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연금운용이 잘 되니까 전년에 했던 소득대체율 60%를 2008년에 50%로 낮추고 앞으로 40%로 낮추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자꾸 낮추어 버리면 더 연금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앞으로 뭐 30년 넣어봐야 그것을 가지고 노후 생활이 보장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연금 기금운용이 잘 되고 앞으로 확보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소득대체율을 원 상태로 다시 복귀해서 상향 조정해서 연금의 신뢰성을 높이자 이렇게 좀 건의를 해서 이것을 다시 옛날로, 옛날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노후생활 보장이 될 수 있는 이런 연금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연구를 해서 건의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금, 특히 취약계층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수급액이 기초생활을 지원하는 데 충분치 못한 점이 있어서 국민연금이 진정한 의미의 국민연금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혜택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최근 작년·금년 기금 수익이 상당히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마는 소득대체율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지원을 늘리기에는 아직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인 지속적인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될, 가능한 부분이고요. 있어도 재정 부분하고 직접 연

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 기금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이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라고 할까 국민 지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당국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상진 이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박은수 위원님께서 출석 요구하셨던 국민연금공단 노사협력부 강수영 대리, 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연대연금지부 김영균 부지부장, 두 분이 출석하셨지요? 어디 계십니까?

○참고인 김영균 출석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상진 예, 두 분 오셨습니다.

그러면 박은수 위원님 됐지요?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수 위원 이게 질의보다도 오전질의에 이사장의 그 부분만 확인을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거든요.

○위원장대리 신상진 어쨌든 질의지요.

○박은수 위원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위원장대리 신상진 의사진행이 아니고 내용인 데요.

○박은수 위원 오전에 그것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위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대리 신상진 그러면 1분만 드릴게요, 의사진행……

○박은수 위원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사장이 인정하면 저 두 분도 부를 필요가 없는데……

○위원장대리 신상진 예, 빨리 해 주십시오.

○박은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사장님, 2009년 12월 23일자로 되어 있는 2009년 임금 분야 단체교섭 잠정합의 내용을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거예요. 저게 경영지원실에서 작성한 문건이 맞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 그것만…… 인정을 하시느냐, 경영지원실에서 작성을 해서 메일로 노조지부장실로, 노조사무실로 보낸 문건이 맞느냐 그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제가 답을 드리는 겁니까?

○박은수 위원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위원님, 솔직히 그것이 경영지원실에서 만들어서 보내졌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 기억이 없는 부분입니다.

○박은수 위원 우선 노조 부지부장 나오셨지요? 김영균 부지부장, 저 문건을 한번 보세요.

○참고인 김영균 예, 나왔습니다.

○박은수 위원 저 문건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든 거고 그래서 노조사무실에서 이메일로 수령한 것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참고인 김영균 예, 맞습니다.

○박은수 위원 그리고 노사협력부의 강수영 대리 맞습니까?

○참고인 강수영 예.

○박은수 위원 경영지원실에 근무하시지요?

○참고인 강수영 예.

○박은수 위원 저 문건 보십시오. 강수영 씨가 작성해서 메일로 노조사무실로 보낸 것 맞습니까?

○참고인 강수영 예, 그렇습니다.

○박은수 위원 그러면 오전에 문건의 제목이 잠정합의로 돼 있는데 잠정합의가 없었다고 한 것은 위증이 아니냐 그 지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사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저는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그런 합의가 잠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논의를 하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나 하면 아까 그대로입니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개선된 것이라면 그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은수 위원 지금 노사합의는 노사자율로 하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장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경영지원실장은 어디 갔습니까? 그때 그렇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때 그 이후에 바로 인사, 다른…… 지금 교육 나가 있습니다.

○박은수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인사 조치 하셨어요, 경영지원실장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우선 노사합의가 저희……

○박은수 위원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세요.

경영지원실장과 노조에서 전권을 받은 노조 부지부와 5일간에 걸쳐서 문건을 다듬은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때 4·5일간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보고를 받았습시다.

○박은수 위원 그것은 보고를 받았고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박은수 위원 그리고 경영지원실에서 저 문건을 만들어서 노조사무실로 메일로 보낸 것까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박은수 위원 지금 저 부하 직원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까? 부하직원이 서고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아니, 글썄……

아니, 거기서 그 담당 사무실에서 보냈다고 지금 하니까 보냈겠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 그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전임 노조수와 3급 연봉제에 관한 의미 있는 진전이 담긴 것이라야 우리로서는 노사문화 개선을 위한 합의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 받아들일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박은수 위원 이것 있었거든요. 산하기관의 기관장을 제가 한 경험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렇게 경영지원실에서 작성한 잠정합의한 문건을 노조 사무실에 보낸다고 하는 행위가 가지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를 벌써 이사장이 저렇게 거부하고 있는데 노조의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나무랄 수 있습니까, 노조의 태도를? 기본적으로 노사 간의 관계라는 것은 신뢰에 바탕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박은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5일간 경영지원실장이…… 경영지원실장이 나와서 그 사람이 뭐한가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5일간에 걸쳐서 노조하고 진지하게 교섭을 합의를 주고받고 그 내용을 저렇게 문건으로 잠정합의 내용 그래서 만들어서 경영지원실 직원이 노조사

무실로 보냈는데 그게 자기가 ‘아, 이것 나와는 관계없다’ 그래 가지고 일거에 그냥 무시하는 이 사장을 믿고 어떻게 노조가 진지하게 신뢰의 자리에서 교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상진 지금 우리 박 위원님 그것 확인한다 되셨고……

○박은수 위원 예, 확인 다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상진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오전 답변에서도 이 문제만 하더라도……

이사장의 그런 특권 의식이라 그럴까 이런 게 정말 본 위원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사장, 오전 동료 위원들의 질의 과정에서도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탄 것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존경하는 공성진 위원님까지도 안타까워서 그렇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지금 현재 답변 태도는 나는 그것은 내 권한이니까 퍼스트 클래스 고집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보이고, 오전에 또 지방에 지방출장 갔을 때 에쿠스 타고 한 것도 지사에서 다 그것을 알아서 한 것이다, 지사 쪽으로 책임을 넘기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 에쿠스가 상시적으로 비치돼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그 사람들이 어디 가외로 돈을 써서 렌트를 하든지 뭔가 이것을 의식해서 한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지사에서 그냥 알아서 준비한 것으로 알았다? 이게 지사 차량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분명히 잠정합의한 것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무시한다면 이게 바로 제가 판단할 때는 이사장의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정말 뺏속까지 엘리트 의식으로 이래 가지고는 저는 공단이사장으로서는 책임자가 아니다.

이게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그렇지요? 이사장이 이제는 장애인 업무도 연금관리공단에서 본다고 이렇게 업무보고 하신 바 있으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박은수 위원 그것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이 어느 정도 숫자가 된다고 이사장은 알고 계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한 240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은수 위원 장애등급에는 몇 등급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6등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수 위원 누가 뒤에서 자꾸 그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제가……

○박은수 위원 이러니까 연금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아니에요. 이사장의 오늘 답변 태도를 보면 그냥 금융기관에서, 그렇지요? 그냥 오로지 이익만 창출하는 그런 CEO로서의 의식이 몸에 젖어 있어요.

연금관리공단은 대국민 서비스, 그중에서도 장애인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측면이 훨씬 강하다 이겁니다. 노사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사장이 이야기를 한 성과급 문제 이것은 이미 제가 아는 바로는 연금관리공단도 기금 파트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다 도입돼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습니다.

○박은수 위원 이게 그런 성격만 있는 기관이 아니다 이거예요. 장애심사와 관련해서 등급을 갖다가 이렇게 36.7%나 하향이 돼서 장애인들이 울부짖고 있는데 그러면 직원이 등급 하향을 많이 시킬수록 성과급을 많이 줄 그럴 작정입니까?

노조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기금 관련 기관은 전부 다 성과급을 도입했다 그러는데 여기는, 국민을 상대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기관은 돈을 갖다가 이렇게 계량화시키는, 돈 얼마 벌어들였느냐 이런 것으로 따질 수 있는,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도가 이사장이 벌써 그런 엘리트의식이나 특권의식에 젖어 있으니까, 그리고 잠정합의의조차도 다 무시해 버리니까…… 이게 누가, 어느 쪽에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국민들은 다 알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우선 앞서 오전에 제 태도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누누이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에 하나라도 그런 자세가 잘못돼 있다는 그런 오해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수 위원 좋습니다.

준비한 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등급이 하락된다는 것의 의미는……

이사장,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알고 있습니다.

○박은수 위원 바로 수족같이, 자기 혼자서는 전혀 걷지도 못하고 문밖출입도 못 하던 사람이 직장을 가거나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이동을 도와주는 것이 활동서비스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체계가 등급이 하락되면 그런 활동서비스가 바로 끊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감 첫날에도 바로 그렇게 멀쩡하게, 인수인계조차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자기가 직장을 잃은 그런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장애인 당사자로서는 그야말로 몇 년형 징역선고 받는 거나 마찬가지의 그런 끔찍한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연금에서 심사를 맡자마자 등급 하향률이 36.7%나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예상을 하거나 원인을 분석해 본 바가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우선 장애등급의 하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장애인 여러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요. 저희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등급절차가 별도 다른, 이중으로 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박은수 위원 이봐요, 자꾸 그렇게 그런 식의 어떤 자세가 진짜, 그렇지요? 이게 연금공단에서 심사를 맡아서 36.7%가 하락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3000여 명에 가까운 장애인이 이의신청을 하니깐 이의신청 심사 결과 21.8%가 등급이 다시 상향이 됐어요. 이게 무슨 널뛰기하듯이, 이 비용은 전부 다 고스란히 장애인이 다 지불하고, 이렇게 심사하면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심사하면 저렇게 되고 비용은 다 그냥 장애인들한테 맡기고……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을 가지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 설

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2011년 증원 소요 세부 산출근거’ 그래서 장애인들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없이 연금공단은 아주 그냥 무슨 때를 만난 듯이 이렇게 인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더 예산을 달라 하는 이런 것으로 써먹고 있어요.

그다음 자료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는 이게 뭐니까? ‘기존 등록장애인 장애심사 절감 추정액’, 이렇게 36.7%를 등급하향시키면 장애인들한테 주던 TV수신료 할인, 가스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항공요금 할인 등등 해서 이만큼 예산이 절감된다, 이런 보고서나 만들고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이게 도대체가 대한민국정부가 할 일이고 국민연금공단…… 그러면서 이사장은 1등석이나 타고 다니고 지방에 나가면 에쿠스만 타고 이러니 어떻게 장애인들이 울부짖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장애인 등급 문제에 관해서 36.7%가 일시에…… 예를 들어서 기관장도 산하기관 기관장들의 판공비 조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판공비를 어떻게 썼는지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썼는지 그게 분명히 조사를, 정말로 정확하게 검찰이 나서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한다면, 그래서 수사를 해서 판공비나 업무추진비 잘못 쓴 사람, 규정대로 안 쓴 사람은 36%를 일거에 해임을 시킨다고 해 보세요. 이게 혁명기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어떻게 이런 정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연금공단이 그런 것을 예상을 하거나 대책에 대해서 복지부에 한번이라도 제대로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그리고 노사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지금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뿐이지 4대보험을 담당하는 기관 중에 이사장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식으로 성과급을 다 도입한 기관이 있습니까, 4대보험을 취급하는 산하기관 중에? 그렇게 말로만…… 이게 기금 관련 기관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이사장 그만두시고 다시 금융기관으로 돌아가세요. 여기가 돈만 벌라고, 국민들로부터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관이 아니다 이겁니다. 정말 장애인을 장애인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그런 의식을 갖고 계셔야지 어떻게 해서 이사장이 이런 자세로 나가니까……

연금지부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되면 업무서비스가 왜곡된다,

이것을 어떻게 성과급으로 다, 이렇게 다 일일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공단은 기금 파트는 이미 다 성과급 제도로 넘어가 있어요. 그러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 파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이쪽 대국민서비스를 하는 쪽에 대해서는 이제 이사장님, 그 지부의 이야기를 좀 들으세요. 경청을 하시고 그냥 기존의 내 생각만이 옳다 이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들으시면 그러면 저는 이 문제가 쉽게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제가 한 말씀만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위원장대리 신상진 예, 이사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가 마음에 답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단이 기금운용이 있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복지 관련 제도 사이드에서 일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우리 조직에 다른 11개 연기금 관련 된 공공기관들이 도입한 전 직원 성과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조직의 특성에 맞는 수준의, 적절한 수준의 성과주의 문화 도입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전 직원이 아니라 3급에 한해서, 중간부가 되는 3급에 한해서 과거 4~5년 전보다는 좀 진전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 기금운용직은 전 직원이 성과제가 도입이 돼 있는데 기금본부에는 또 적지 않은 숫자의 우리 본부에서 나가 있는 일반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성과제의 도입이 안 돼 있지요. 그래서 최근에 9월 달 파업 기간에도 그 직원들은 또 파업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 300조가 넘는 기금운용의 자금관리부서가 영향을 받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 이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더 노조의 입장에서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상진 박은수 위원님 수고 많으

셨습니다.

다음은 손숙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미 위원 손숙미 위원입니다.

먼저 이사장님께서 외국 출장 시에 1등급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으로부터 국민연금의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아마도 국민들의 연금인 만큼 좀더 아껴 달라는 뜻으로 하신 지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국감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보건인력개발원이라든가 국립암센터 원장같이 조그만 기관들도 규정을 보니까 1등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들 기관의 규정은 앞으로 또 반드시 바뀌어야 하지만 300조 원을 넘게 다루는 세계 4대 연기금인 국민연금 기관장은 또 위상에 맞는 대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했습니다.

물론 비즈니스를 탄다고 해서 위상에 안 맞는 것은 아니지만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해외투자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1등석이나 이코노미냐가 아니라 이사장이 얼마나 외국에 자주 나가는가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투자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현장 위주의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예, 아니요’로만 말씀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숙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민연금의 해외부동산 투자현황을 보니까 2009년 6월부터 1년간 약 7건의 해외부동산 투자가 있었는데 금액으로 보면 지금 3조 2000억에 달합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인수한 영국 런던에 있는 홍콩상하이은행 타워는 무려 1조 5000억으로서 당해 투자 건수로는 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전임 이사장이나 현 이사장 누구도 투자와 관련해서 현장에 가보지를 않았습시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가보지도 못할 만큼 바쁘신 건지 아니면 이 정도 투자금액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대체투자위원회에서 위탁운용사 선정 등의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보니까 과장이나 차장급 한 사람이 가서 위탁운용사의 서류를 검토를 하고 실사를 해서 투자 결정의 대부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거의 운용사 말만 믿고 3조 이상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사장께서는 언론을 통해서 해외부동산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더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이사장이 직접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현장 위주의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최소한 2명 이상이 실사에 참여하도록 해서 크로스체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위원님 지적에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손숙미 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당 국가의 상황,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KOTRA 등과 같이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들 기관과 업무협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해외부동산의 가치 하락이 발생할 경우에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한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사장께서는 규모가 큰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결정 시에 실사 인원을 늘리고 또 외국의 투자정보를 총괄하는 국내기관들과의 협조를 받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숙미 위원 다음은 국민연금기금 주식투자 관리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규모가 3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만큼 기금운용 관련자들의 중립적 업무 추진과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2010년도 4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그동안 비상장주식 거래내역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과 또 보유 주식을 신고받으면서도 직무관련성이 높거나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울러 주

식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손숙미 위원 그런데 올해 7월 달에 국민연금 내부감사에서도 또 같은 내용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금운용 담당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으로 주식거래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저희가 그간 개인 기업에 투자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인지가 안 된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자체 내에 중복감시를 통한 관리감독이 충분치 못한 측면 또……

○손숙미 위원 관리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주식거래 적발 시에 징계를 강화를 하고 고위공직자에 준해서 본인뿐 아니라 직계존비속에 대한 주식 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사장은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해서 기금운용직의 주식 거래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우선 저희가 금년 초에 준법감시실 기능을 크게 강화를 해서 관리감독은 크게 전체적으로 지금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본인 외의 존·비속을 투자제한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검토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숙미 위원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국정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국민연금연구원에 국민연금기금과 관련한 연구보고서를 요구를 했는데요. 제출되지를 않았습니다. 비공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저희 연구원장이 특별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연구 내용이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됐나……

제가 보고를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손숙미 위원 제가 알아보니 위원들한테도 비공개이고 오로지 주는 데는 기금운용위원회, 공단 이사회,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분석실에 만 준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저희 원장이 따로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기금 관련된 연구는 성과에 대한 평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대외적으로는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추가로 원장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국민연금공단기금정책분석실장 박태영 기금정책분석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위원회에만 보고되고……

○손숙미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에게도 제출하지 않은 비공개 보고서를 기금운용위원회에는 제출을 하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기금정책분석실장 박태영 예, 기금운용위원회에만 제출되고 있는 것은 5년……

○손숙미 위원 그런데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보고받으면서도 이들에 대한 주식 투자 또 재산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지요?

복지부 연금정책관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 이동욱 복지부 연금정책관입니다.

그 부분은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의자료가 비공개 부분일 경우에는 회의를 외부에 오픈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하거나 자료를 다시 회수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숙미 위원 그런데 본인들은 이렇게 의원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중요한 정보를 보고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주식 투자 또 재산 내역은 공개를 안 한다는 게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는 공무원 외에 일반인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을 위촉 시에는 재산이나 주식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하는데 생각이 어떠신지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 이동욱 그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숙미 위원 꼭 논의를 해 주시고 그 논의 결과를 저희 의원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 이동욱 예, 알겠습니다.

○손숙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주식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주식 거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완전히 차단하도록……

1분만 더 주세요.

주식거래를 완전히 차단하도록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는 주식과 펀드거래를 관리감독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은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숙미 위원 다음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상진 손숙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 연·기금의 사행성 사업과 주류, 담배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습니다.

○전현희 위원 사회보험 원리에 의해서 가입이 강제되고 연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법률로 정해지고 또 국가의 책임 아래 운영되는 그런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은 오로지 수익성만 추구하는 일반사기업의 보험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런데 최근 5년간의 국민연금공단의 투자 현황을 보니까 카지노나 도박 술 담배 그런 기업에 국내에만 2조 8000억이 넘는 기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에 2조 8000억, 그리고 또 외국 주식에는 총 6400억 원을 직접 또는 위탁방식을 통해서 투자를 해 왔습니다.

국내 사행성 이런 투자 현황을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해외 사행성 기업도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1360만 달러인데 2010년 8월 말 현재 2억 7098만 달러로 늘어나는 등 매년 2배씩 가까운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하고 올해 8월을 비교하면 19배나 증가한 셈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질의를 하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이렇게 공익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런 공단인데 이러한 연·기금을 국민 건강과 건전한 사회 상식에 배치되는 이런 기업들에게 투

자가 계속 늘어나고 또 많이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원칙적으로 위원님 지적은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공익성도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이지만 저희가 이제 수익성이 또 하나의 기금 운용의 지표가 되는 부분이 되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위 지금 신스탁(sin stock)이라고 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담배 술 도박 관련 주식들이 그 자산 배분상에 일부 포함되어 왔던 것은 아마 수익성 측면의 것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 주식 투자 상황을 보면 지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의 투자 잔고는 2008년을 피크로 해서 좀 내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공공성이 잘 반영된 그런 우리 투자전략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수익성이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이고, 또 제가 보도자료를 내고 난 뒤에 연금공단의 직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인·허가에 의한 독과점 사업으로 수익이 안정적이고 배당률이 높아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연 그런가, 수익률이?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도 연금의 성격에 배치되는 투자를 과연 수익률이 그만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받쳐 주는가 검토를 해 봤더니 최근 5년간 2006년·2007년도에는 수익을 냈습니다만 2008년·2009년도에는 손실을 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825억 원, 2009년에는 430억 원의 손실을 본 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이 꼭 높아서 이러한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이익을 낸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연금의 수익률에 크게 기여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들의 건강이나 건전한 사회 상식에 부합하지 못하는 이런 기업들에게 공익적 성격을 가진 연금공단이 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줄일 의사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점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운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복지부가 지금 금연이나 절주 사업을 하고 있고 사행성 도박을 이렇게 감소시키는 운동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고 매년 예산을 여기에 많이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연금공단에서는 이러한 기업이 잘 되도록 부채질하고 잘 되어야만이 연금공단이 흥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모순적이고 같은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으로서도 매우 부적절한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세워 주시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지역가입자 징수권 소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금법에 의하면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3년이 지나면 소멸이 됩니다. 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전현희 위원** 지금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해서 금년 8월 현재 10조 6000억이나 체납징수권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액 자체가 서울시 예산 20조의 절반에 해당되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권 소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세우고 계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저희 공단에서는 특히 금년에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5개월 이상 장기 미납자 50만 명에 대해서 납부 독려를 내실화하는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능력이 있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다는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전현희 위원** 지금 그 부분 그런 정도는 제가 이미 파악을 했고요. 그것이 부족하고 그러한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10조가 넘는 이런 금액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권 소멸 관련된 이런 대책 시급히 마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간사, 주승용 간사와 사회교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지금 과다지급된 연금액도 문제이고 또 미환수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부당하게 과다지급된 연금액이 2008년부터 해서 총 670여억 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미환수된 것은 116억입니다.

과다지급 발생도 문제이고 과다지급된 연금의 환수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연금이기 때문에 연금공단이 투자 손실을 일으키지 않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징수권 소멸이나 또 환수 문제 또 과다지급하지 않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급권자의 도덕적인 해이를 문제를 삼기 전에 연금공단에서 수급권자의 부정 수급에 관한 홍보와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사망이 되었다든지 재혼이라든지 또 소득 있는 업무 종사로 인해서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지급된 그런 사례가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금공단이 5단계 징수 방법으로 해결책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미흡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낸 연금이 어떻게 조성이 되고 있고 또 어떻게 사용이 되어야 하는지는 이사장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들께서도 이사장의 여러 가지 비행기 등급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최고급 승용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런 것을 아끼고 절약해서 사용을 해 달라는 그런 우려를 전달한 것이고, 그러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연금공단 전체의 이런 연금 관리에 있어서 이사장께서 누구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한 푼이라도 아껴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연금을 지불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다지급된 연금액이라든지 미환수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렇게 연금이 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악의적 수급자나 고의적인 이런 무자격 수급자들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관련이 전체 다 연금 재정

에 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승용**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위원** 성남 중원 출신 한나라당의 신상진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본 위원은 국민연금기금이 복지투자에 너무 투자가 저조하다라는 데서 문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보면 매년 신규 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복지시설의 설치라든지 또 기타 복지사업을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에게 그런 복지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게 2005년부터 시행됐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신상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분석한 것 보면 2005~2010년까지 그 1% 이내라는 데서 복지사업 투자금액이 총 1조 6000억입니다, 6년간 복지투자 가능한 비용이. 그런데 실제로 투자된 것은 2008년 186억밖에 안 됩니다.

이사장님께서 국민연금기금이 복지사업에 투자되는 게 낭비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꼭 필요한 국민에 대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투자 대상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보육시설이 됐든 다양한 우리 복지 관련 투자는 저희가……

○**신상진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상진 위원** 그런데 복지부에서 이동욱 연금정책관 나왔습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 이동욱** 예, 위원님. 복지부 연금정책관입니다.

○**신상진 위원** 예, 지난 6월 25일, 6·25인데 그날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또 정책관 참여하셨지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 이동욱** 예, 위원으로서

참석했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런데 그때 그 회의록을 본 위원이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 이동욱** 위원님, 회의록이 다음 회의가 열려야만 회의록이 완성이 됩니다.

○**신상진 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것 완성 안 되어 있어요? 회의 열리기 직전에 그것 완성합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 이동욱** 자료는 정리되어 있는데요, 회의록 채택이 아직 안 돼서……

○**신상진 위원** 자료 정리된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것 제출하면 안 된다는 법 있어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 이동욱**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확인이 아니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안건 중에서 2012~2019년까지 총 4604원을 투자하는 가입자 및 수급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국민연금복지사업추진계획안이 있었지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 이동욱** 예, 계획안이 보고됐었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 이동욱** 당시 논란이 있어서……

○**신상진 위원** 하여튼 부결됐지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 이동욱** 부결이 아닙니다. 보류, 보완해서 다음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런데 그때 기재부의 입장이 부정적이었던 게 사실이지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 이동욱** 기재부 관계자의 부정적 입장도 있었고요. 기재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 중에서도 또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고 반대로 또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신상진 위원** 복지부는 어땠습니까? 적극 관철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었습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 이동욱** 저희들은 일단은 의견을 내지는 않고요. 회의 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신상진 위원** 지금 보면 복지부하고 공단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그치지침에도 있고 다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복

지는 무슨 퍼주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복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또 일자리 창출하고, 또 이것이 중요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사회통합을 이루어내서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가는 데 중요한 그런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인데 5년 동안 1조 6000억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침도 어겨 가면서 기재부에 이렇게 복지부가 자꾸 힘 약하게 끌려가고 그것 관철 못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복지부장관 누구예요? 장관께 그런 건의 좀 드렸습니까, 어떻게 좀 윗선에서 정확히 해결하려고?

○**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 이동욱**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장관님께도 많이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게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좋습니다. 복지부하고 공단이 올해 5월에 국민연금의 복지사업에 대해서 국민수요도 조사를 했었지요?

이사장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신상진 위원** 했었지요? 한 데 보면 국민연금 복지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7%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런데 그 87%의 국민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또 국민연금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가입자가 점차 잘 늘어나고 이것이 튼튼한 그런 기초 위에 우리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중요한 연금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한 부처,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몇 경제부처에서 복지사업에 대해 이렇게 인색하게 잘못된 시각으로 이것을 막고 있는 데 대해서 이사장께서 어떻게 책임감이 없습니까? 관철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더 적극적으로 생산적 복지 관련된 지출은 비용이라기보다 투자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설득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좋습니다.

이사장님 앞으로 어떻게 관철을 해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노력을 하겠습니까.

○신상진 위원 그 노력에 대한 계획을 본 위원에게 계획 잡아서 이번 국감 끝나기 전까지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게 하겠습니까.

○신상진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신상진 위원 대답을 확실히 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예.

그리고 요즘에 신한금융지주사태 참 국민들 짜증 엄청나게 납니다. 다 비리의혹들이 있고 그런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하는 모습들에 정말 국민들 실증이 나는데 9월 2일 날 이 비리의혹이 터졌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신상진 위원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의 거기 주식보유가 5%가 넘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리고 1조 1000억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비리의혹사건으로 해서 추가급락이 은행 업종 대비 470억 원 이렇게 댔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알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러면 이러한 손실이 생겼는데, 물론 나중에 또 어떤 변화도 있겠지만 이사장님께서서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응방안을 갖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이 대주주로서 해당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이슈와 관계 있는 부분입니다.

○신상진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사장님은 주주권 행사를 대주주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합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저는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제 생각에는 사외이사까지 파견

을 해서 대주주의 입장에서 철저하고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전제가 공정하고 투명한 틀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과 함께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의 주주권 행사 강화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상진 위원 지금 주주권 행사에 대한 기준과 무슨 가이드라인 같은 게 아직 없는 실정이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래서 CALPERS라고 캘리포니아의 공무원퇴직연금 그런 데 또 그 외에 주요한 나라들의 연금에서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다고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습니다.

○신상진 위원 또 하나는 투자비중이나 그런 경영상태 이런 것을 다 봐 가지고 포커스리스트로 한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연금공단이 어떤 오해 없이 주주권 행사를 해서 국민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신상진 위원 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하시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꼭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진행에 대한 것도 역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도표를 보이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LH공사에 국민연금이 10조나 투자되고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과거부터 아마 누적된 부분이 그런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2003년도부터 채권매입 총 합쳐서 10조 6000억이나 됩니다.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 기관 부채가 이렇게 심각한

데, LH공사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도 해외채권 발행 이런 것도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연금은 LH공사에 대해서 무슨 빛을 쬐기에 이러한 부실기관에 대해서 계속 채권매입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올해도 벌써 1조 2000억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국가에서 채워줄 수 있으니까 그냥 이것은 안전빵이다 이러면서 그냥 무작정 나가는 겁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지 않고요. 저희 개별투자에 관한 것은 저희 자체 내에 담당자 또 투자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어쨌거나 막대한 빛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용등급이 AAA를 유지하고 있고 저희가 투자하게 되는 경우, 금년 1조 투자의 경우도 정부 지원을 포함하면 기간이 비슷한 국고채 금리 수준을 넘는 그런 수익을 예상해서 들어가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투자 확대는 신중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하여튼 국민의 자산을 그렇게 부실기관에, 부채가 많은 기관에 쓰는 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신상진 위원 다음 끝으로 시간이 없지만 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이것 제가 볼 때 대단히 심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에 16건의 징계가 있었고 경고나 이렇게 간단한 주의조치는 74건 이렇게 됐는데 보면 형태가 무단열람을 하는 내용들이 아주…… 매형의 부탁으로 무슨 매형과 채무관계에 있던 자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든가 어릴 적 지인들의 연락처를 알아보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봤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하시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최근에 저희가 양형도 높이고 철저히 징계를 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승용 신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니다.

보건복지부 정책관 일어서 보세요.

신상진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6월 25일 회의록을 왜 제출을 지금까지, 지금 10월인데 제출을 못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 이동욱 회의에서 회의록이 작성되면 다음 회의에서 그 전 회의의 회의록을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 회의가 안 열려 가지고……

○위원장대리 주승용 채택이 안 되면 채택이 안 된 회의록은 자료로서 제출 못 합니까? 그게 안 됩니까? 채택이 되건 안 되건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비밀이 아닌 이상은 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 이동욱 자료로서 제가 확인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승용 그것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채택 안 된 회의록은 줄 수가 없다는 근거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금정책관께서는 다음 복지부 종합감사 때까지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 이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승용 다음은 유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 위원 수고 많습니다. 부산 수영의 유재중입니다.

이사장님, 위탁운용사들 간에 국민연금기금을 위탁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습니다.

○유재중 위원 물론 수수료 부분도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탁운용사들이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한다는 점을 내세워서 투자유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겠지요.

국내 최대자금인 국민연금을 운용한다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습니다.

○유재중 위원 금융위원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위탁운용사들의 펀드 수익률이 낮으면 위탁운용자금을 다시 회수하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결국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지요, 그것만은 아니겠습니다.

○유재중 위원 펀드 수익률이 낮으면, 그렇지

요? 따라서 위탁운용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익률을 높이려 합니다. 그야말로 마구잡이식으로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는데요, 위탁운용하는 모 운용사가 지난 2008~2009년까지 실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펀드 수익률을 조작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유재중 위원 총 62건에 562억 원의, 어떤 자전 거래를 통해서 30억 원의 평가 차익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것이지요,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유재중 위원 자신들이 운용하던 다른 펀드를 낮은 가격에 국민연금펀드로 매도하거나 국민연금펀드에서 다른 펀드로 높은 가격에 팔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펀드에 가입한 가입자들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까? 국민연금 투자일임계약서 제13조에서도 동일 운용사 펀드 간 자전거래 등 불건전 거래행위를 못 하도록 금지하고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유재중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관리 책임을 좀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더욱 심각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운용사들이 자진해서 이런 일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유재중 위원 그래서 공단 측에서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래서 지금……

○유재중 위원 보완 대책을 좀 마련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적발보다는 예방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단이지요. 그것은 금융실명제에 의거해서 위탁거래의 상대방을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운용사의 대량 매매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유재중 위원 보완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 하나 더 짚어보면 문제가 된 위탁운용사에서 운용하던 자금은 전액 회수한 것으로

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게 했습니다.

○유재중 위원 그런데 이들에게 지급한 수익 원의 운용수수료는 회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운용수수료는 줬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불건전한 거래행위로 인해서 국민에게 손실을 입히고 국민연금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후속조치가 제대로 안 된 셈인데요, 이것도 좀 반성해야 될 문제고 이렇게 넘어가면 다른 운용사들도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불법·편법적인 수단으로 운용 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용수수료까지 회수하는 게 마땅하지요. 회수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 정말 그렇게 불법적으로 했는데, 그래야만 다른 운용사들도 이렇게 반복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기금운용본부는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요? 그러나 투명성과 공정성이 기본 바탕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습니다.

○유재중 위원 그런데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직원들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손숙미 위원도 그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금운용 임직원이 주식투자할 수 없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유재중 위원 그런데 올 4월에 기금운용본부에서 직원 11명이 8억 한 8000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이중 1명은 사기업체 임원까지 겸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유재중 위원 이 직원들 어떤 처분 받았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무런 징계 없이 그냥 주의장 발부, 특별교육 실시가 전부였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솜방망이식 징계를 쥐 가지고, 또 하면 주의 받으면 되고 해서 주식투자 안 할 기금운용 직원이 있겠습니까? 엄중한 조치가 필

요하지 않을까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다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당시 감사원의 처분요구사항에 준행을 해서 했습니다.

○유재중 위원 그랬습니까? 그 기준이 물론……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앞으로 좀더 강력한 그런……

○유재중 위원 조치를 해 주시고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제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 그런데 이런 조치랑 대비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참 언급하고 싶지 않은 내용인데 올 3월에 관악동작지사의 부장이 이사장님에 대한 비방의 글을 올려서 물의를 빚었지요? 이사장님 비방 글을 올렸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유재중 위원 올린 이유는 제가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직원이 글을 올리고 문제가 커지자 스스로 글을 삭제하고 이사장님께 사과 이메일 보냈는데 맞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유재중 위원 그런데 사건 발생 직후 이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가 이루어졌고 공단 감사실은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재중 위원 그런데 이게 이사장님 리더십인데 노사하고 여러 직원들과 화합 차원에서, 물론 부장이 인신공격적인 이메일을 올린 것은 잘못이지요. 악의적으로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직원의 행동은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스스로 사과하고 뉘우친 만큼 이사장께서 크게 용서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상 감사실의 징계권고는 중징계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유재중 위원 그러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낮은 것으로 직원들 화합 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유재중 위원 도량을 베풀고 그렇게 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유재중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다음 질의 내용입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투자가능종목군을 정해서 투자하도록 돼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유재중 위원 투자가능종목군을,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습니다.

○유재중 위원 이 규정의 10조, 제51조에 따르면 투자가능종목군에 신규 편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투자위험도 등의 투자판단요소들을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유재중 위원 그런데 이 조사보고서가 좀 허술하게 작성돼 가지고 불필요한 투자손실을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유재중 위원 공단에서는 09년도 초에 모 제약사를 투자가능종목군에 포함시켰는데요, 이때 이 제약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지 못해서 무려 29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맞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재중 위원 이 회사가 08년 4/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40% 하락하고 있었는데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08년도 12월에는 다수의 의약전문 언론에서 이 회사 주요 제품이 근육력증 등 부작용이 있다고 보도했고 식약청도 이에 대한 안전성을 경고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회사를 투자가능종목군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든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 들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유재중 위원 그래서 공단에서는 안정성·수익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투자가능종목군에 포함시켜 가지고 손실을 입었다는 것은 정말 자체적으로 반성해야 될 문제지요.

(주승용 간사, 이재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의심스러운 것은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부분과 매출 하락 부분이 조사보고서에는 생략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의도적으로 뺐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누군가는? 그게 아니면 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런 기본적인 투자정보도 제대로 확인을 못하는 수준인데 이런 수준은 넘어섰지 않습니까, 굉장하? 이사장님이 한번 해명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뭐가 잘못됐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투자가능종목군에 신규 편입을 할 때는 더 철저한 검증, 그러니까 투자리스크라든지 하는 부분에 추가항목을 포함해서 더 철저히 검증하도록, 사전 검증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중 위원 그래서 공단의 기금운용이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해야지요. 국민의 어떤 연금이고, 국민의 돈이지 않습니까? 국민 연금 다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떤 사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니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특히나 이사장님은 금감원 원장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주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 이상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순 위원 강명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최근에 국민연금 해외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수익률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벤치마크지수가 자산운용성과 비교기준이라고 하는 것 아시지요, BM지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강명순 위원 그래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이 벤치마크지수는 보건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제정한 기금운용지침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강명순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자료화면 보시면 국민연금기금 금융 부문 수익률 현황을 봤을 때 2008년도에는 대체투자의 BM, 벤치마크 수익률과 또 시간가중수익률과 비교하면 13.8% 포인트, 저 표에 붉은색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3.8% 포인트고요, 2009년도 18.14% 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습

니다. 경제상황이 나아졌는데 2009년도가 2008년보다 더 차이가 났는데 이게 10% 포인트 차이가 나면 기금 사용 시 관련 지수 사용에 문제가 된다고 예산정책처에서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또 복지부에서도 저희 의원실에서 이 벤치마크 수익률에 관련한 이 지수의 적용에 관해서 객관성이 증명되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용역을 줘서 이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답신이 왔습니다.

다른 자산군들과의 시간가중수익률과 이 벤치마크 수익률 격차를 봤을 때 대체투자의 수익률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벤치마크지수가 객관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 기금이사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명순 위원 설명을 잘 못하시군요. 그러면 제가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최근에 해외 부동산 투자의 적절성 문제에 대해서도 보면 대체투자의 경우에 세부 자산군 가중평균을 사용하고 있는데 세부 자산군별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벤치마크지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익률 비교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부동산을 매입하고 그러는 등 대체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이 근거도 이사장님은 설명 못 하시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명순 위원 간단히 좀 해 보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우선 대체투자 같은 경우에는 BM이라고 말씀하신 벤치마크 기준이 되는 것을 정형화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것은 투자 대상이 표준화가 어렵지요, 다 다른 종류의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는 대체로 그 성격이 저희가 건물을 사고 그 임차인이 그대로 임차를 해서 저희한테 임대료를 주는 구조로 대체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수익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장기수익률 예상이 한 7~8%, 그러니까 채권 수익이 한 2배 정도 수준을 기대하고 있고 또……

○**강명순 위원**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다 투자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다음 저 표를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면 대체투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도 비중이 다 줄었고 해외부동산만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는 6.4%이고요, 2009년도에는 19.5%로 3배가량 증가했는데 만약에 2008년도에 발발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그런 경제위기가 다시 오지 말라는 이유도 없고 최근에 IMF총회에서 환율 문제 조율에 실패하여서 G20 회의 때 이 환율전쟁에 관한 언급을 다시 해서 거론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정말 새로운, 이게 아주 환율전쟁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한, 아까도 BM지수가 부동산이나 이런 것에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냥 뭐 마련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객관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지금 채권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은 합의된 벤치마크 지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동산이나 사모펀드, SOC 이런 상품들은 벤치마크 지수를 선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그냥 내버려두고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대체투자의 경우에 세부자산군의 가중평균을 사용하고 있는데 세부자산군별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벤치마크 지수가 없으면 사회적으로 합의된 벤치마크 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냥, 예산정책처나 복지부에서는 대책을 세우는데 반해서 연금공단은 안 세우고 투자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못한다고 그냥 그 지수를 활용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국민이 낸 이 귀한 것을 가지고 IMF가 환율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이렇게 외화변동이 심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해외투자 하는 것에만 대폭 늘리지 말고 이것을 좀 시급하게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해외투자에 따르는 다양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율 쪽에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자산가치 차이에서도 리스크 요인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걱정한 BM(벤치마크)가 확보가 안 됐다 하는

것이 좋은 투자를 꼭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강명순 위원** 물론 그렇지만 아까, 예산정책처에서도 문제제기를 했고 보건복지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하겠다, 용역을 줘서라도 이것을 빨리 대체되는 지수를 개발해서 표준화·합리화를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마시고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방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알겠습니다.

○**강명순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에 공무원연금하고 개혁 이전하고 이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보면 2008년도, 2009년도에 각각 연금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종류의 연금에 속해 있든지 우리가 돈 낸 보험료만큼 정년 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차이가 난다 그래도 좀 엇비슷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국민들이 생각합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런 마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명순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자료 화면을 보시면 개혁 전후 차이를 비교해서 연금급여산식을 개정된 후 것을 기준으로 산출해 봤더니—지금 자료화면에 뒀습니다—공무원연금 측은 소득대체율이 낮아진 대신에 보험료를 올려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개정 후의 국민연금은 20%나 줄어들었는데 공무원연금은 보험료 인상을 감안해도 5.1%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소득대체율이 감소가 돼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연금급여의 적절성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좀더 특별한 차이를 받지 않도록 이것을 보완하시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글썬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지만 해결을 저희가 공단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데는 상당히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강명순 위원** 제한이 있어도 국민들이 그런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개혁 전후와 비교해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사각지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4.5%는 외국인뿐 아니라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근로자가 4.5%, 사업주가 4.5% 부담하지요?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를 둔 약덕업주들 사이에서는 사업주가 내야 되는 보험료도 내지 않고 외국인 취업자가 근로자가 납부하는 4.5%도 당신들이 꿀꺽 부당이익을 취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것을 돈 안 내는 사업장에 대해서 독촉도 하고 회사재산 파악하고 압류도 해야 되고 경매로까지도 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특별히 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별사법경찰관이니까 형사처벌 권리가 있지만 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권리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연금 착취 피해가 늘어나고 있을 텐데 저희들이 질의를 했더니 연금공단에서 응답이 어떻게 왔냐 하면요, '처벌규정은 없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례는 확인된 게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그러면 정말 하나도 없나 하고 여섯 군데에 외국인 근로자들과 관련된 기관을 좀 알아봤습니다. 사전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인천·대구·안산 여섯 군데 확인해 보니까 오늘 하루만 해도 30건이나 발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례를 확인하지도 않고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태도이고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명순 위원 일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이 외국인 근로자 외에도 다른 것 거짓말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G20 개최를 앞둔 나라에서 이런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석용 위원 서울 강동을의 윤석용입니다.

공단에 매번 감사를 올 때마다 참 예의 바른 공단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노조도 함께 오지만 전 간부께서 다 나오셔서 가지고 극진한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는 공단이 국민한테 더 극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도 그

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사장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더 나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러면 더 많이, 업무 중에 전직원이 다 나오셔서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좀 삼가해야 되겠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리고 간부 부서장 명단을 보고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을 보는데 우리 이사장은 여성하고 원수진 계 있습니까? 어떻게 여성간부 한 분밖에 없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이번 6월달에 공단 정 모 직원은 구속이 되었는데 죄명이 뭐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6월?

○윤석용 위원 6월달에 부산에서 콜센터……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아, 부산……

○윤석용 위원 개인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개인정보……

○윤석용 위원 개인정보를 유출해 가지고 되었습니까, 성폭행·강도·강간 이것으로 구속이 되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구속된 직접적인 내용은 정보 문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런 직원들 두고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친절은 도가 넘치고 여성들한테는 이렇게 잘못하고 이것 좀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85만 건이나 개인정보 내어도 솜방망이 하는 우리 공단, 이것 고쳐야 되겠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용 위원 이사장님은 아침부터 말씀은 아주 기가 막히게 매끄럽게 하시는데 실력이나 행동이 수행돼야 되는데 말만 잘 하는지, 말하고 행동을 같이 잘 하는지 내년에 보도록 하십시오.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있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게 중요한 회의입니까,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윤석용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국가재정법 74조에 보면, 거기에는 복지부장관, 기재부차관, 농수산부차관, 지경부차관, 노동부차관 이렇게 다 오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옵니까? 10%도 제대로 참석을 안 하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출석률이 좀 낮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용 위원 출석률이 낮는데 이 중요한 회의에 참석도 안 하고 국민연금이 300조나 움직이고, 이것 좀 문제 안 있습니까? 회의에 참석 안 하면 빼버리든지 잘라버리든지 복지부 그것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하든지 해야지 오지도 않는 사람을 이쪽으로 넣어 놓고 대리출석도 못 하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이것 합니까? 이것 고쳐야 되겠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개선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윤석용 위원 그리고 위원 구성도 그렇습니다. 보면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학식과 경험자이면 학술회의나 한림원이나 이런 데 사람들, 총장님 모셔야지 이런 사람 모셔 가지고 연금이 올라가, 뭐 수익이 나겠습니까, 복지를 하겠습니까? 그것 고쳐 가지고 ‘학식과 경험을 갖춘 연금 관련 전문가’ 이렇게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은 다양한 분들이 참석을 하시지요. 그런 전문가도 계시고 또 시민단체 대표도 계시고 노동자 대표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렇지요. 공단 위원회별로 특징이 다르지만 참석도 안 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름만 거창하게, 그런 사람을 거느리는 게 우리 위원장의 기분이 좋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체계 있게 만들어야 되겠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런 개선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윤석용 위원 그렇습니다.

혹시 위원장님은 취임하시고 청풍리조트에서 며칠 주무셨습니까? 별로 안 잤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제가 몇 번은 다녀왔습니다, 저희 세미나 관계로.

○윤석용 위원 가족들은 5년 동안 뭐 제대로 가보는지…… 청풍리조트에서 휴가 같은 것을 거기서도 주로 쉽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몇 번 다녀왔습니다마는 휴가로 간 건 아닙니다.

○윤석용 위원 아니, 아니…… 간부들도 그것 자기들은 적자가 나면 일부러라도 가서 자고 좀 적자를 메꿔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애사심 아닙

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작년에는 84억, 작년에는 93억 매번 이렇게 돈만 내버리면 뭐 합니까? 복지사업도 꼭 해야 되는데 이것 청풍리조트 외에 우리 복지사업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러니까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적자는 매일 나고…… 이것 매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지금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좀 어렵고 다행히 금년에는 흑자를 좀 내고 있습니다마는 뭐 자랑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윤석용 위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게 그 옆에 있는 모 콘도 같은 데에는 이 보다 17평에 일반 회원들한테도 6만 원, 회원이 아니고 일반 이용객도 6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보면 15평에 22만 원인데 30% 깎아도 돈이 얼마겠습니까? 제일 적은 것도 10만 6000원입니다, 30% 깎아서. 누가 거기에 가겠습니까? 이것도 경영 합리화를 해 가지고……

전문가이니까 이것은 상식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좀 매각을 할 때 하고 이게 매각이 안 되면 다른 용도로, 복지사업도 다른 게 안 있습니까. 무료로 하든지 실버타운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것 좀 연구를,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하실 생각은 없을까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렇게 하세요. 매각 안 되는 것 붙들고 몇십억씩 국민 세금 갖다 넣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늘 지적을 했지만 저희가 연금의 전문직 이직 문제 이게 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 수익의 1%를 높이면 국민연금 고갈이 9년이 늦어지고 1%가 낮아지면 연금 고갈이 5년이 앞당겨진다고 연구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별로 없잖아요? 작년에 제가 말했지만 지금 변호사는 구했다고 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윤석용 위원 변호사가 몇 명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변호사자격증을……

○윤석용 위원 자격증 있는 사람 총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지금 2명입니다.

○윤석용 위원 그러니까 300조를 움직이는데 변호사 2명이…… 그것 최고 경력 있는 변호사 몇 년짜리입니까, 법무 경험이 몇 년짜리에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

○윤석용 위원 잘 모르면 빨리 적고…… 작년에 승패율 내가 말씀했지만 패소율이 너무 높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하고.

아마 300조 움직이면 어느 타 기업 같은 데는 한 300명은 더 안 있겠나…… 우리 모 기업에 법무팀 엄청 많고 하듯이 그런 것은 좀 신경을 써야 그게 경영마인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금융전문가가 사실은 오래 안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습니다. 턱오버가 빠른 편입니다.

○윤석용 위원 사실 저희들로서는 연봉이 상상외로 많다고 보지만 국민연금의 10분의 1 되는 한국투자공사에도 이보다가 더 많이 주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해 가지고 돈을 진짜 쥐야 될 사람은 더 많이 주고 또 오래 있고 이래야 되는데 늘 감사하고 복지부 국정감사하고 또 뭐 보고해라 하고 하니까, 또 2~3년 동안 재임하면 퇴직할 때 다른 데 못 가니까 애당초 취업을 안 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들 싫어하니까 여기에 맞는 사실을 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거둬 말씀하셨지만 통일을 대비해서 남북한에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제 통일될지 모르고 통일제도 만들겠다 이러는데 북한에는 국민들한테 무조건 노후를 보장해 준다, 그런데 북한이 무너져버렸다, 앞으로 우리가 책임을 다 져야 된다, 이러면 대책은 빨리 안 짜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소라든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리고 고객만족도가 늘 중하위 된다 이것도 사실 아닙니까?

위원장님, 자료 보는 게 아니고……

늘 11개 연기금 운용기관 중에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고객만족도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국민들은 다 불안하고 공단이 무너져 가지고 나이 들면 연금을 못 받을까 봐 걱정을 많이 합니다. 또 100원 내고 55원밖에 못 받으면 이것 손해다 이래 가지고 또 안 들어갑니다. 공단에서 많이 노력해 가지고 가입자도 지금 많이 늘고 또 이렇게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한테 제대로 홍보도 해 주고 연금 고갈만 굉장히 떠들지 말고 연금을 받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도 있다 이런 것도 제대로 선전해서 정말 긍정적인 연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런데 이것 솔직하게 말해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나가도 표본조사하면 1000단위 이상은 합니다. 그런데 수급자,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했는데 100명 단위로 표본조사하면 이게 맞겠습니까?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상식에 100개 표본 가지고 어떤 표본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숫자를 늘리고 그래서 제대로 된 연구성과가 나오고 정책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래서 이것을 수급자뿐만 아니라 상담을 받으러 오는 이용자들 또 우편 이용자들이라든지 인터넷 이용자들 이런 사람도 함께 조사해 가지고 진짜 국민들한테 희망과 좋은 감정을 주는 그러한 공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용 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秋美愛 委員 이사장님, 지난 7월 27일 연금공단 보도자료를 살펴보니까 채권 편중의 포트폴리오를 지양하고, 탈피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협소

함을 극복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설정한 것이 보이네요, 맞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秋美愛 委員 그럼에도 전체 투자액 중에 70%에 이르는 국내 채권 비중, 이것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높습니다.

○秋美愛 委員 210조에 이르는 국내 채권 중에서도 국채와 공기업 채권에 대한 투자가 120조 정도로 이미 절반을 넘네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秋美愛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니까? 국민의 노후를 위해 안전하게 운용되어야 할 국민연금이 부담하고 있는 국가채무…… 2007년 대비해서 2009년 말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2%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국채에 투자하고 있는 비중, 2007년 기준해서 대비해 보면 61조에서 78조로 늘었습니다. 대략 국가 채무 대비 20%를 국민연금이 부담하고 있네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습니다.

○秋美愛 委員 공기업 부채는 훨씬 더 심각하네요. 2009년 공기업 부채는 216조 7000억이니까 2007년 기준해서 51%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 보유액은 2009년 약 42조이니까 2년간 거의 2배 이상 증가해 왔네요. 공기업 부채 역시 20% 이상 국민연금이 떠안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에는 국가부채와 공기업 부채의 총 규모가 한 80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20% 정도를 지속적으로 떠안고 있다면 2013년에 가서는 국공채에 대한 투자가 약 한 160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연금이 자금운용의 기준과 원칙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는다면 엄청나게 증가하는 국가 및 공기업의 채권투자에 국민연금이 밑 빠진 독에 쏟아붓는 것처럼 국가 부채, 공기업 부채의 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채권투자, 연금공단 스스로 밝힌 국내 채권 투자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방침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2007년 23조였던 공기업 채권 보유가 2009년에는 42조, 무려 100%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LH공사의 경우에는 채권 보유가 2009년에 8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2007년의 3.4조 원에 비하면 2배가 훨씬 넘었었어요.

공기업 부채 상위 5개 기관 나열해 보면 한국전력에 22조, 한국도로공사 20조, 한국가스공사 15조, SH공사 16조 이렇게 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가 큰 공사의 연금 투자 비중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요 공기업 투자 현황을 보더라도, 한국토지공사 하나만 불러 볼게요, 2007년 말에 한 3조 4000억, 2008년 말에 6조 9000억, 2009년 말에 8조 6000억, 2010년 7월 기준으로 8조 2000억이 이미 상반기에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가면 한 9조 이상이 되지 않을까 보이는데 특히 LH공사처럼 부실 우려가 큰 공기업 일수록 정책당국은 손쉬운 국민연금의 투자를 계속 압박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렇게 보더라도 밑 빠진 독에 쏟아붓는 물 붓기처럼 공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봉처럼 취급되는 것 막아야 되는데 자금운용에 대한 어떠한 확고한 원칙·기준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개별 투자 권으로 해서 저희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인력과 직원들과 간부와 대화하는 기회는 없습니다라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은 우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투자의 가치에 입각해서 전문가적 양식과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秋美愛 委員 아니, 잠깐만요.

이사장님,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이미 앞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지금 국민연금이 이렇게 국가 부채, 공기업 부채를 대부분 떠안고 있고 또 제일 손대기 쉬운 게 국민연금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이렇게 마치 돌려막기 식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비율을 낮추겠다든지 연차적인 어떤 계획, 구체적인 목표 수치 이런 것을 촉구하는 것이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지금 그 비율을 점차 낮추어 나가겠다 하는 것은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희 중장기 투자 계획을 보면 자산배분에 있어서 채권 비중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좀 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금의 증가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월 평균 한 2조 정도씩 늘어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바로 금방 낮춰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라는 투자 비중은 계속 낮춰 나가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방향입니다.

○秋美愛 委員 투자 비중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보여야 되니까 그것을 수립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게 하겠습니까.

○秋美愛 委員 다음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워킹푸어에 대한 보험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워킹푸어 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秋美愛 委員 뭘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일은 합니다마는 충분한 생활이 안 되는 그런 계층이 되겠지요, 어려운 계층.

○秋美愛 委員 일을 할수록 생활 자체가, 생존 자체가 감당이 안 되고 점점 더 가난해지는 그런 계층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서 그렇다면 본인의 책임이겠지만 아무리 일을 해도 이 사회의 기준을 따라갈 수가 없다 하는 어떤 절망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워킹푸어의 중심에 비정규직근로자가 놓여 있고요. 그 비정규직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제가 정확한 숫자가……

○秋美愛 委員 정확한 것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사장님의 상황 파악을 묻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한 40~50%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秋美愛 委員 통계청이 지난 6월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직장가입 대상자 중에 39%만이 국민연금이 가입돼 있고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은 43%만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이 정상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어요.

워킹푸어의 국민연금 가입률, 2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3 정도가 가입돼 있지 않은 거지요.

워킹푸어는 전체적으로 얼마로 추산하고 있으

세요?

한 500만 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500만 명……

○秋美愛 委員 그러니까 이 중에 4분의 1만 가입하고 있다고 하니까, 물론 가입되지 않은 4분의 3 중에는 연령이 60세 이상 넘는거나 하는 분들도 100만 이상 있다고 봐 저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절반 정도가 문제가 되겠지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정부는 내년부터 4대 사회보험을 통합 징수하면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그냥 듣기 좋은, 보기 좋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허상이에요.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많은 영세사업장을 건강보험·고용보험 등과 상호교차 확인을 통해서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대강 한 170만 정도로 추산되는 미가입자를 찾아내겠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4대보험을 아예 하나도 가입하지 않아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장도 많이 있어요. 그것 이해하고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秋美愛 委員 별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더 묻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연금보험료 징수만을 욕심을 낸다 그러면 지난 2004년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반감이 대단히 높았던 것 기억하시지요? 국민 저항이 오히려 커지거나 오히려 징수율 하락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장님, 워킹푸어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보험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지금 위원님 의견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부분은 재정 문제라든지 저희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뜻에 적극 동참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秋美愛 委員 잠깐만요, 저 한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선 예.

○秋美愛 委員 뜻에 동참하겠다, 국회의원이 지

적하는데 뜻에 동참하시고 눈만 깜박이시면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워킹푸어 300만 명 전체에 대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감면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면 연간한 1조 6200억 원, 만약에 25%를 감면해 준다면 8100억 원 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50% 감면이 어렵다면 25%라도 감면해 주는 데한 8100억 원 정도 소요면 되는 것이니까 국민연금 수익률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그것을 복지부를 끌고 나가야지요. 설득하셔야 되는 거지요. 기재부를 설득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임금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용불안에 고통받는 근로빈곤층이 노후빈곤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단의 각별한 정책의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정책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사실은 다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전에 얘기 나온 것들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질의를 바꿨습니다.

현안 문제로 이사장님은 합리적 노사문화 정착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합리적 노사관계라는 것이 누구의 시각으로 본 합리적인가, 이것은 양측이 서로 인정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객관적이다, 그리고 서로 양보할 것 양보하고 원하는 것 원하는 대로 됐구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인가는 양보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쪽도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공단의 노사관계는 서로 상대방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의 상당 부분은 이사장님의 사고방식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노사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는 이런 문제를 풀 때 무조건 굴복시키는 것은 가장 하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가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

장님이 오셔서 언론에 보도된 것이나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본인은 최고의 그런 것들을 누리려고 하면서 직원들에게는 버릇을 고치겠다라는 이런 태도로 사실은 일관해 왔다라는 것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잠시 굴복은 시킬 수 있지만 언젠가는 또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2009년도 임단협도 체결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2009년도 임단협도 체결을 못 했다는 것은, 저는 이사장님이 내치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조 갈등 심화는 이사장의 융통성과 정치력 부재를 증거하는 그런 증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얘기하신 것 중에, 이사장은 2009년도 12월 2일 날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스물 몇 번에 걸쳐서 실무진과 취임하기 전부터도 즉 협의가 있어 왔습니다, 노사 협의가. 2009년도 임단협을 위해서 협의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해결을 하라고 하니까 의견을 다, 힘을 실어 주니까 5박 6일간의 협의를 통해서 12월 23일 날 잠정 합의를 했는데 이것을 분명히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한 이유가 노조전임자 수 줄이기와 3급을 연봉제로 하는 것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거부한 것입니다.

“나는 이 문건을 보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안 보신 것 아닙니다. 이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거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것을 협의했던 대표인 최기영 경영지원실장을 1월 18일 날 바로 교육을 보내 버렸는데 일 잘해서 보냈습니까, 아니면 일을 못 했다고 생각해서 보내셨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저는 좌천을 시켰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일부 인사를 하는 가운데 시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해서 바꾼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경영지원실장을 이것 합의 잘못된 것 때문에 보낸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2009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건데 이사장님 오자마자 이사장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까? 오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전혀 현 상황을 잘 모르시면서 무조건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사장의 전임자 수 축소 관련해서 발언의 문제점을 보면 지금 전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고 요구했지만 실제로 전임자 1명을 2009년도까지 유지하고 그리고 1명은 줄이는 걸로 여기 이 합의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법이 개정이 된다면, 그때는 아직 타임오프제 그 법이 개정이 안 됐습니다. 12월 말에나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라는 정부여당의 의지가 있었을 뿐인데 그렇게 된다면 그때 가서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면 그 법 개정 이후에 해결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사장님의 대단히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2010년도에 보충협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임자 요구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신 것은 5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차명진 위원이 10월 8일 날 환노위 국감장에서 이사장님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조합원은 3370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줄 것을 예상해서 7명까지 유지하는 것은 안 된다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다, 법으로는 현재 조합원의 숫자에 따라야 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합리적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이사장님의 태도가 올바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급 연봉제입니다. 이 3급 연봉제 문제는 기존에 지금까지 활동을 해 왔던 실무진들이, 노조 실무진에게 사실은 연봉제를 공단 실무진들이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무진들이 국민연금 업무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 협상 과정에서 노조가 그동안 국민연금제도가 성과주의확대로 국민들의 지탄과 원성 그리고 불만을 고조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3급의 경우도 결국은 4급 이하 직원과 마찬가지로 실무적인 일에 전념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서 4급 이하 직원의 평가처럼 업무

평가의 공정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입장이다, 지금 현재 평가하는 것도 공정성이 없다라는 것이 불만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사 실무진이 연봉제가 문제 있음을 공감하고 노조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2010년도에 재논의하기로 잠정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불합리하고 강력한 노조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만 본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위원장님의 태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 각국이, 또 국내 시장도 투자 유치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마 이사장님이 가는 곳마다 황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저는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외부에서는 어깨에 힘 들어가고 또 직원들에게는 군림하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땀 흘려서 벌어들여서 쌓인 자금을 투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굽신거리지만 사람들이 뒤에서는 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사장님이 국민들이 낸 그 연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겸손하게 그리고 내부 사람들이 스스로 일하겠다라는 그런 자발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해 보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우선 노사 문제 또 그 외의 문제로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서……

○최영희 위원 그 문제는 여러 번 얘기하셨기 때문에 대책만 얘기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래서 제가 여기도 제 입장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노조 문제에 관해서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무리한 입장을 취했다고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무리하게……

○최영희 위원 아니요, 제가 무리하다는 것들 다 입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지요.

○최영희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도…… 왜냐하면 이사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제가 다 들었습니다. 앞에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다 들었

습니다.

11개 연금 다 하겠다고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사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아까도 좀 내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은 처음부터 전 직원 대상으로 하려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장께서 취임할 때 기재부하고 경영계약서를 합의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급만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2주 전에 기재부하고 경영계약서 새로 쓰면서 합의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전 직원 대상으로 연봉제를 하겠다고 경영계약서를 합의했고 노동조합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3급을 먼저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6급까지 다 하겠다는 것이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노동조합이 이것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재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2급입니다. 기재부에서 요구하는 통상 6개 직급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2급 이상이 간부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만 특별히 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사에 있는 사람은 부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본사로 오거나 1급지로 가면 그 사람은 부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에게 연봉제를 하려고 하십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뭉뚱 생각을 해 보면, 이사장님의 무리한 요구입니다.

답변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저는 무리하지 않다고 말씀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제가 그 실무 협의에 앞서서 전임노조를 10명을 5명으로 줄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제가 10명에서 5명으로 줄이라는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했다면 제가 무리겠지요. 제가 분명히 그때 입장을 얘기를 한 것은, 우리가 공공기관 중에서 여러 해 동안 가장 취약한 그런 노사관계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러면 차제에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공단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10명에서 9명이 되든 8명이 되든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

습을 보이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9명 되지 않습니까? 9명 됐는데 요. 최근까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것은 지금은 이제 그 문제가 아닌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것은 내년에 줄어들 조합원 숫자 이것에 비례해서 타임오프제법에 정한 대로 5명을 하라라는 요구 때문에 안 됐었던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위원님, 그 타임오프제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조 쪽에서도 잘 압니다. 이것은 이슈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것이 6명이 됐든 7명이 됐든 그게 이슈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최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3명에 대해서 공단이 월급을 주지 않고 조합비로 월급을 주겠다고 하는 것조차도 합의 안 해 주시는 이유는 뭔가요? 노동조합 간부들을 비급여로 해서, 왜냐하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3명을 비급여로 해서 조합비로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이것조차도 해결해 주지 않으시잖아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아니……

○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 김선정 기금이사가 좀 답변드릴까요?

10월 8일 날 제가 증인으로 환노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한테 차명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게 아니고 노조지부장한테만 질의를 했고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마이크 넣어 줘요.

○신상진 위원 마이크 하세요, 마이크.

○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 김선정 지금 그 타임오프하고 관련된 것을……

○신상진 위원 마이크가 안 돼요, 마이크.

○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 김선정 노조에서도 사측과 법원칙대로 협상할 용의가 충분히 있고요. 앞으로 단체협상 과정에서 노조와 큰 의견 차이 없이 합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희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애주 위원 제가 1차 질의 마지막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국민연금의 가입과 끝날 때의 수령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원래 임의가입은 아니지요? 임의가입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임의가입하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의가입에 든 사람들은 주로 주부들이고, 또 소위 말하는 강남권의 주부들이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처음에 일부 그렇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애주 위원 저기 임의 연금 도표를 봐 주시면, 임의로 들고 있는 가입자들을 보면 50만 원 미만의 소득자는 아주 적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200만 원 이상인 소득자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5.3%가…… 증가는 66.3%다 그렇게 저희가 계산을 뽑아 왔습니다. 거의 맞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이애주 위원 그렇다면 저 50만 원 미만인 사람이 연금도 못 들고 있고 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 50만 원도 안 되어서 못 드는 사람들에게 대한 대책을 꼼꼼히 따지셔서 저희 방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계산을 뽑아서 장기 계획으로 해서라도 안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애주 위원 감사합니다.

연금을 이제 수급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60세가 되면 원래 연금이 끝나는 거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이애주 위원 빨리 빨리 답해야지 시간 없어요.

그런데 60살이 되어서 조금 더 붓고 싶은 사람은 붓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나 됩니까, 더 붓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지금 한 4만 명~5만 명 가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애주 위원 그분들은 아주 다행이고 60세가 넘어도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더 붓겠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0이 되기 전에 아니면 60이 되자마자 일시불로 찾아가시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지요.

○이애주 위원 그분들은 몇 %나 됩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5만 명, 최근 통계로서 그렇습니다.

○이애주 위원 국민연금을 부어서 국가를 믿고 또 국가가 보장하는 혜택을 받겠다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해약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좀 말린다든가 어떻게 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당사자들하고 하고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저희가 노후 대책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설계서비스라든지 소위 CSA라고 해서 이런 노력도 하고 있지요. 물론 이런 분들이 중간에 반환일시금을 받으시는 어려운 상황이 있으셔서 그렇겠지만 그것이 길게 보면 이것을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이애주 위원 가능하면 권유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적인 문제 유발을 방지하는 데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해외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외국에 특히 우리나라가 해외투자한 돈이 미국하고 영국에 부동산을 많이 사셨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최근에 와서, 작년 이후에 영국이 좀 많은 셈은 됐습니다. 그런데 좀 확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요.

○이애주 위원 부동산을 사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나중에, 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겠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크게 투자하는 게 반드시 좋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부동산을 그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나중에 환급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환급 시에 아무래도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생길 수 있습니다.

○이애주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감안해서 투자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 현재의 미국의 부동산이 상당히 저가 평가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작년 금년에, 물론 시장이 언제 바닥이나 하는 것을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 부분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구입한 부동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통계로 보면 저희가 산 시점으로 부터 지금 한 8~9개월 동안에 상당 부분 이렇게……

○**이애주 위원** 회복이 됐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애주 위원**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의 돈입니다.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습니다.

○**이애주 위원** 이 연금 자체가 국민이 낸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투자하시고 관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행기 1등석 얘기도 나왔을 겁니다. 국민의 돈이라는 것을 항상 유념하셔야 되는 데가 국민연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이애주 위원** 예, 좋습니다.

가입자 오류로 인해서 9억 3700만 원이 미지급됐다는 것 보도에 떴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이애주 위원** 그것 찾아 주기 위해서 직원들이 야근하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열심히들 일하고 있습니다.

○**이애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오류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애주 위원** 그런데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야근을 하지요? 야근비가 얼마나 나가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작년 통계를 보니까 한 달에 9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네요.

○**이애주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9억 3700만 원 찾아 주기 위해서 직원들이 9억 원이 넘는 야근을 했습니다. 이것 누구 돈이에

요? 그러니까 직원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국민의 돈은 돈대로 내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내용하고 주민전산자료와의 실시간 자동대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검증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애주 위원** 문제는 9억 원 이상 수당이 나갔는데도 아직 다 못 찾아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를 더 수당을 써야 찾아줄 수 있을지 이것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장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하시는 답이 굉장히 듣는 사람이 스마트하게 들리게 하세요. 그렇지요? 그런데 정말 답변을 많이 공부하신 것 같거든요. 정말 진실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침에 윤석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차에서 딱 내리니까 너무 많이 서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 안 하고 다 나와서 서 계시는 것 같아서요. 이것 너무 부담이거든요.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시고 국감 받으실 분들은 시간 돼서 오시면 되는 거지 그렇게 다 서 계시니까 이게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오버타임이 나가는 것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정말 정확하게 오버타임 나갔는지도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9억 3700 찾아 주기 위해서 9억 5000 쓰셨는데 아직도 못 찾아왔거든요. 이것은 남들이 봐도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답변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애주 위원** 저는 시간 남았는데 2차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김금래 위원님……

○**주승용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

나 하겠는데요.

○위원장 이재선 예.

○주승용 위원 오늘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기금운용본부에서 어제 그제, 토요일 일요일 국정감사 준비도 하지 않고 또 본 위원이 사무실에 전화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 또 휴대폰까지 알아 가지고 7명에게 전화를 해도 7명 전원이 다 약속이나 한 듯이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에 대한 답이 지금 없어요. 알아봤습니까? 공개석상에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기금운용본부장.

○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 김선정 예, 저희가 우선 이유야 어쨌든 잘못됐다고……

○주승용 위원 아니, 이유야 어쨌든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 김선정 위원님께 사과를 드렸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희 기금운용본부에 있는 직원이 공교롭게도 여직원 3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탁팀에 오 차장, 그다음에 전략실의 김 차장, 해외의 한 과장, 세 분이 전부 여직원이어서 아마 제가 보기에선 낯선 전화라고 생각되어서 안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애주 위원 확인하셔야지요.

○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 김선정 그다음에 나머지는……

○주승용 위원 낯선 전화라고 해서 못 받으요? 784국, 782국이 국회 전화니까 안 받은 것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 김선정 그렇지 않습니다.

○주승용 위원 또 나머지 네 분은요?

○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 김선정 그다음에 한 친구는 해외투자실장인데 해외출장 갔다가 어저께 밤에 들어왔습니다.

○주승용 위원 나머지 세 분은요?

○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 김선정 나머지 세 분은 공단의 홍보실장하고 그다음에 국회 담당하고 그다음에 한 분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공단 내부 직원입니다.

○주승용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어쨌어요? 그분들은 왜 전화 안 받았어요? 이게 말입니다 7명이다 전화를 안 받았다는 것은, 더군다나 휴대폰 전화를 안 받았다는 것은 고의적이고 ‘토요일 일요일 날 전화 받지 마라’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무지무지하게 기분이 나빴어요.

오늘 제가 이사장님 답변하는 것에 몇 위원님들이 노사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들어도 경영지원실장이 잠정합의를 해 가지고 온 것을 이사장이 본인의 어떤 요구사항이 전제되지 않았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그것은 무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경영지원실장이 잘못했으면 잘못을 했지 경영지원실장이 5일 동안 와서 협상을 해 가지고 사용자 측에서 보고를 만들어 가지고 ‘잠정합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경영지원실장을 질책해야지 이사장이 요구했던 것을 안 받아들였으니까 무효다라는 일방적인 그런 처리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유재중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밑에 하위직 직원이 이사장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해서 특별감사를 해 가지고 징계를 하는 이런 기관에서 과연 우리 직원들이 숨이나 쉴 수 있겠는가, 저는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저는 빨리 이 노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노도 문제가 있고 사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오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국정감사를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모든 것이 이사장님은 나는 문제가 없다, 노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일방적이고 독선적이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퍼스트 클래스라든지 렌터카를 고급차만 빌린 것, 이것 지적 안 하려다가……

이사장은 그렇게 해도 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노력하고 검토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노사 문제, 아침에 들어올 때도 얼마나 보기 싫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알고 빨리 해결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사장님의 답변태도를 보면 이게 조만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사장이 어

졌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의 답변태도가 모든 것이 나는 100% 옳은데 노조 측에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거북스러운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는, 이사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그리고 아까 기금관리이사께서 주승용 위원께서 자료를 추가질의 전에 달라고 했는데 왜 본인은 알고 있으면서 보고를 안 해서…… 보고를 왜 안하십니까? 지금 당장 자료 갖다 주세요.

○국민연금공단기금이사 김선정 예.

○위원장 이재선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금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래 위원 공적연금연계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대 공적연금 퇴직자가 1년에 한 7만여 명인데 이 중 64%인 4만 5000여 명이 가입기간이 부족해서 연금을 일시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공적연금연계제도를 실시하고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금래 위원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공단에 접수된 연계신청 건수를 보면 510건에 불과하고 직역연금에 신청한 건수는 124건 그래서 모두 634건에 불과합니다. 현재 수급자는 41명입니다. 이처럼 연계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우선, 물론 저희의 노력이 부족하겠습니다. 마는 제도도입의 초기단계가 아니겠느냐, 작년에 시작한 제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아서 아직 해당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런 것들도 이유가 된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금래 위원 글썩요, 상식적으로 볼 때 일시급보다는 이런 제도가 있으면 활용하는 것이 훨씬 본인한테도 좋은데 보면 너무 저조합니다. 지금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보면 개인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연계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범

률적으로 바로 연계신청이 되도록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개시연령이 상이한 부분이 또 있지요, 아시겠습니까. 강제적으로 연계제도를 실시하게 될 때에 직역연금 가입자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김금래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연구를 해 보시지요.

지금 4대 직역연금하고 공동전산망 구축이 되지 않아서 업무처리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구축 중인 연금 공동연계급여정보시스템이 어떤 상태입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저희가 전산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금래 위원 지금 완전히 돼 있는 건 아니고 진행 중입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런 상황입니다.

○김금래 위원 이것이 되면 정보공유를 통해서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래 위원 지금 우리나라 보면 65세 노인빈곤율이 45%로 OECD 평균보다 3.4배가 높습니다. 또 굉장히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강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연계제도가 정착이 돼서 노후생활의 어떤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래 위원 지금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해외투자 문제 저 역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투자 보면 건당 수천억씩 하는 그런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금운용위원회에 제대로 사전·사후 보고도 되지 않고 안전장치가 부족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빨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또 보면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요, 해외투자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김금래 위원 그래서 직급을 신설해서 일반투자자와 구분해서 운용하는 그런 것도 빨리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인력채용 프로그램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금래 위원 거액투자를 잘못해서 손실이 났을 때 이게 전부 국민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이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스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내부 행동강령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앞서 지적된 기금운용 퇴직자가 금융 부문으로 가는 부분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보안성이나 도덕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채용 때 오리엔테이션만, 기존 직원들은 수시공람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교육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주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돼서 못했는데요, 연금 임의가입이 재테크 수단으로 또 투기수단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하한 보험료가 월 8만 9100원 이 정도라면 사실 저소득층 취약 계층이 이것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 사실 저소득층을 위해서 만든 임의가입자제도가 아주 강남의 어쨌든 주부들 재테크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고소득자한테 돼 버리면 당초의 목적과 다르다라는 것을 지적했는데, 그러면서 임의가입자가 부자 동네에 집중되어 있고 중산층 이하의 계층은 가입자가 많지 않다라고 지적해서 이 8만 9100원의 하한 보험료를 폐지하고 적은 금액도 임의가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 제가 이렇게 아침에 지적을 하고 끝냈는데요, 이 국민연금이 민간 개인연금에 비해서 수익이 매우 높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습니다.

○주승용 위원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40세 여성이 월 8만 9100원씩 납부했을 때 65세가 돼서 수령을 했을 당시에 얼마를 수령할 것인가를 봤더니 국민연금을 8만 9100원씩 넣게 되면

65세 때 37만 7000원씩을 받게 되고 민간 개인연금에 했을 때는 23만 6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민간 개인연금에 했을 때보다도 국민연금에 했을 때가 한 1.6배 정도의 수익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다음에 또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적게 낼수록 수익률이 높고 많이 낼수록 수익률이 낮게 지금 설계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비교해 봤어요. 40세 여성이 25년 동안 납부하고 65세부터 수령할 때 국민연금을 월 8만 9100원 최하한 선으로 냈을 때에 수령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7만 7000원을 수령하는데 월 20만 원씩 납부했을 때는 54만 5000원, 그래서 20만 원 냈던 것의 2.7배만이 수령하지 못한데 비해서 8만 9100원을 내신 분은 4.2배를 받는다, 그래서 8만 9100원을 내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배수로 보면 그렇습니다.

○주승용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8만 9100원씩 전부 다 지금 넣는데 이게 저소득층이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소득층이 이걸 가지고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또 실제 그렇게 지금 부유층이 사는 동네에서 많이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투기적 성향을 방지해야 된다고 보고 임의가입자가 가입할 때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도 많이 내고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보험료도 적게 내게 해서 차등적으로 임의가입자를 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 뜻은 공감을 합니다, 보험료를 차등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여하히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주승용 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두 가지, 이것하고 두 가지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메가박스에 지금 300억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07년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2007년인가 좀……

○**주승용 위원** 메가박스 영화관을 인수하는 데 300억 투자했어요. 맥쿼리가 220억, 연금공단 300억, 또 행정공제회가 700억, 군인공제회가 300억 해서 1520억을 출자하고 1400억을 빌려서 2920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 이게 지금 감사원 감사 받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주승용 위원** 감사원 감사를 받아 가지고 이견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주승용 위원** 이게 한 3분의 1 가격이면 살 수 있었던 것을 너무 비싸게 인수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수익은커녕 원금회수도 어려울 전망이다 해 가지고 작년 9월 달에 메가박스 공개매각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이것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제시돼서 매각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설명을……

○**주승용 위원** 2012년도에 다시 매각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시장점유율이 2005년도 11.3%에서 작년 말 현재 9.5%로 떨어졌고 수익성도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별 그렇게 여건이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이 낸 연금 300억 원이 지금 손실될 처지에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징계를 하라고 징계처분이 내려졌는데 징계처분 어떻게 했습니까? 300억의 손실을 가져오는데 2명 주의조치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위원님, 그 배경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투자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절차상의 문제에 따른 책임을 묻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 300억 원을 다 손실을 보는 단계는 아닙니다.

○**주승용 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제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원 감사 자료를 보고.

그런데 지금 징계를 요구했는데 2명을 주의조치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제가 이해하기로는 감사원 요구사항인 것으로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감사원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주의조치를……

○**주승용 위원** 주의조치를 하라고 감사원에서 요구했어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제가 기억하기론……

○**주승용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확인하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이따 추가질의 때 이야기해 봅시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위원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하균 위원** 이사장님 오전 질의 때 “장애등급 변경 시 처리를 제 때 안 해서 더 받거나 덜 받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7월 달에 우리 의원실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 연금공단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고 시스템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아마 부랴부랴 해서 8월 달에 일부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다시 보고를 받았습시다. 제대로 이것이 시스템이 운영되는지를 나중에라도 따로 의원실로 직접 오셔서 누구 다른 사람을 보내 들어봐도 되니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균 위원** 장애등급 심사할 때 우리가 처음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내게 됩니다. 그 이의신청서를 내게 된 원인을 받아 보니까 대부분이 검사기록서 등 자료제출 미비로 첫 심사할 때 잘못 심사를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장애유형 중에 정신장애의 경우 약 40% 정도가 다시 자료제출 때문에 이의신청이 됐고요, 뇌병변장애는 약 20%, 그다음에 지적장애는 10% 정도가 이의신청을 다시 하게 되는데 이때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상향이 돼서 제대로 걸러지는 것은 애초에 처음에 심사할 때 그 심사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장애유형에 따라 정신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의

경우는 특별히 진료기록서, 즉 검사기록서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첫 심사할 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추가 제출에 의해서 한꺼번에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제출되지 않는 자료 가지고 그대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향 평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정신장애의 경우에는 GAF라고 하는 척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검사결과이고 기준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기능만을 묻고 답하는 일종의 문답식입니다. 또 뇌병변장애의 경우에는 수정바텔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심사에 분명히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고요. 또한 지적장애의 경우는 사회성숙도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검사 자료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등급을 받을 수 없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애초에 처음에 일선 시·도 동사무소에서 처음에 이런 민원을 받을 때 이런 자료를 반드시 지참한 상태에서 심사 가능하니까 이런 자료를 철저히 준비를 하게끔 홍보를 해야 되겠고 또 만약에 미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선불리 평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하균 위원 공단 장애심사센터의 심사직 직원들을 보니까 올해 159명의 입사자 중에서 벌써 41명이 퇴직을 했고 그 41명의 평균 재직기간은 31일, 약 한 달 정도였고 단 열흘도 근무하지 않은 근무자가 46% 정도가 열흘도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빨리 퇴직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동안은 저희가 한시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비정규직, 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정하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비정규직으로 해서 이렇게 그만두는 사람, 퇴직자가 반 이상씩 나오게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정책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안정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심사인력을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기재부

를 포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 나오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균 위원 심사직에 있는 분들이 대개 사전 예비심사를 하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정하균 위원 사전예비심사를 하는 사람들의 자격이 대개 간호사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정하균 위원 이런 분들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오래 있을 수가 없지요.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올해 장애심사센터에 원격 화상자문회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정하균 위원 원격 화상자문회의 시스템이 우리가 자료 조사한 것 보면 병원별 월평균 0.7회, 한 번 정도도 회의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아마 1회, 한 번 회의가 열리는데 약 34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유치해서 설치해 놓고 고작 월 0.7회 정도 열린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화상 시스템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제대로 이용이 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하균 위원 화상자문회의라는 것도 사실은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현대사회가 워낙 바빠져 되다 보니까 그나마 화상자문회의라도 열어서 그것을 옳게 고치고자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의미가 없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정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활용률이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문 의사들의 참여가 낮아서 이 부분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광정숙 위원 지난번 복지부 제가 국감하면서 공단의 단체협상 관련해서 장관께서 알고 있는냐, 한번 이곳을 방문해라 이렇게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후로 복지부에서 와서 그것 관련된 보고를 하게 한다든지 이쪽에 방문을 했다든지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아직은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지요.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장관께서도 해외출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곽정숙 위원** 가서 별도로, 따로 보고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사장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아직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제가 말씀을 나누는 적은 있었습니다.

○**곽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오전에 하였던 부분을 조금 이어서 다시 좀 확인하겠습니다.

연봉제 도입 및 성과연봉 확대가 경영약정이었고 이 경영약정을 할 때는 연봉제 도입은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정을 하기 전에 노조와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장께서는 노조와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내용이 어떻게 됐든 성과급제·연봉제 도입 자체가 옳으나, 그러나 얘기 전에 노조에 대한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 설득하던 논의하는 과정 자체를 무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과정에 대한 노조를 존중하는 태도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관의 장으로 수많은 직원들을 거느린 리더로서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1년 이상 2년이 되도록 이렇게 그 협상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심각한 리더십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무조건 노조에서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노사 그 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이런 태도가, 노조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셔서 노사공동위원회를 속히 구성을 하시고 서로 존중하는 의견의 장으로 좀 하실 것을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정숙 위원**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금공단은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기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연기금 운용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곽정숙 위원** 그렇지만 연금공단은 기금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을 운용하고 있고, 또 같은 성격의 건강보험공단은 어느 유형이신지 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것은 저희하고는 다른 유형으로 돼 있지요.

○**곽정숙 위원** 문화·국민생활 유형입니다. 그래서 연금공단도 그쪽 유형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재부에서 이쪽 기금 운용 기구로, 연기금 운용 유형으로 분류해 놓은 것에 대해서 그 유형을 변경해야 된다는 요청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 부분은 저는 꼭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생각은. 왜냐하면 기금의 규모나 중요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곽정숙 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사회보험이고……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부분의 직원이 제도 쪽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인 것은 사실이지요.

○**곽정숙 위원** 그래서 충분히 이 유형이 이제 대 국민, 국민의 복지를 기준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금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생활 유형이라는 것이 적합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사장의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적극 이것도 검토하셔서 그래서 조금 더 국민의 편에, 서비스 편에 우선할 수 있는 그 유형으로 이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제언도 하시거나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곽정숙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등급 심사판정 기준에 대해서 공단에서 지난번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이 농성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센터에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곽정숙 위원** 농성하는 기본적인 요구가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물론 이 등급이 낮아진 분들 재활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부분들이 심각한 문제로 이해를 했습니다.

○**곽정숙 위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사장께

서 어떤 지시를 내린다든지 보고를 받는다는지 어떻게 좀 해야겠다라는 대응하는 어떤 액션을 취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구나 이런 파악을 하셨고 또 어떤 조치를 하신 것이 있으신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이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공단 자체 내에서 또 결정,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이 되는 복지부 담당부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정숙 위원** 장애계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 그리고 공단하고 아주 중요하게 직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것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하게 하고 그것을 보고를 받으셔서 빠르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도록 지시 내지 논의를 하셨어야지요. 공단에서 책임자로서 그냥 두 손 놓고 수수방관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崔敬禧 委員** 늦게까지 국감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업주부 세대주가구 등 취약계층 임의가입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0년 8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1906만 명으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받기로는 임의가입 대상자는 자신의 소득이 없는 국민연금제도의 취약계층인 전업주부나 학생 등의 경우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10년 8월 기준으로 임의가입 대상자는 1314만 5000명 어바웃(about) 됩니다. 1314만 5000명 중에 6만 5000명만이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7년 정도 더 깁니다. 이혼이나 사별 등을 겪으면서 전업주부 세대주가구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편의 연금을 물려받는다 해도 그것은 계층에 따라 40%에서 60%밖에 못 받기 때문에 본인의 그것에 의지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

기 때문에 비록 소득이 없어도 본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제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물론 전액이 아닙니다. 일부 할인을 해 주고 세제혜택을 주는 등 전업주부,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민연금 시대에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제도에 포함시켜 관리할 유인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일종의 국민연금 소외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일종의 국민연금 햇별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쓰는 말은 아닙니다라는 용어를 좀 도용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료 대납했을 때에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방안 검토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정책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崔敬禧 委員** 그게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전업주부들에게는 광명과 같은 길입니다. 노후에 자식한테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꼭 시행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 4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열아홉 차례 단체교섭 실시한 이후 2010년 9월까지 총 55회의 단체교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이나 서구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 이후 아직 노조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쟁점사항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었는데 임단협이…… 다 말씀하셔서…… 2010년에 파업일수, 참여인원은 얼마나 되며 그로 인한 업무손실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조업같이 한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손실금이 추정에 의해서 예상하는데 이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회사입니까, 노조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저희 금년도 파업일수는 13일이었고요. 1일 평균 참여한 직원은 3200여 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손실 부분에서는 앞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파업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지원이 있어서 민원업무에는 큰 지장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崔敬禧 委員** 그리고 질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노동조합 업무편람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한 지배·개입을 방지하고 사용자는 노무관련 기밀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에 누설되는 것을 예방하여 교섭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사용자 측으로 분류하여 이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불허, 인사·급여·노무 등의 사용자 측 부서에 노동조합원이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인사·급여·노무 분야에 근무하는 조합원은 현재 몇 명입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현재 사용자 부서에 15명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崔敬禧 委員** 15명이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崔敬禧 委員** 사용자 또는 집단의 이익에 배치되는 부서에 노동조합원이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일시에 상실하도록 조정해야 하는데 이사장은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에 대한 대책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오늘……

○**崔敬禧 委員** 지금 당장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敬禧 委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원희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희목 위원** 이사장님, 피곤하실 텐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똑같이 안 내고 있는 두 사람이 같은 날 장애를 입었다 했을 때 국민연금을 22년이나 납부했던 전업주부들에게는 장애연금을 안 주고 1년 납부한 납부예외자에게는 장애연금을 준다면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충 금방 알아보는지요, 이사장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원희목 위원** 그렇게 되면 전업주부들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원희목 위원** 이게 사실이니까,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원희목 위원** 그래서 이렇게 납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 같은 적용예외자들이 현재 503만 명입니다, 맞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원희목 위원** 이 사람들 중에서 납부기간이 10년이 넘어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50만 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국민연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적용제외자니까 장애연금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국민연금제도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 돈만 받아가고 필요할 때는 안 준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희목 위원** 연금 납부 이력이 있어도 적용제외기간에 입은 장애이기 때문에 장애연금을 주지 않는 현재 제도는 요즘 속칭 얘기하는 공정사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 일정기간 이상의 납부이력이 있다면 적용제외자라 하더라도 장애연금 대상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생각이 어떠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위원님 지적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적용제외와 납부예외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희목 위원** 이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좀 시정돼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 중에는 분할연금제도라는 게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있습니다.

○**원희목 위원** 분할연금은 이혼한 후에 배우자가 연금을 받게 될 경우에 청구권이 생기는 제도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원희목 위원** 그런데 이혼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현재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지를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떨어져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

서 청구안내를 제대로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가 그 알게 되는 정보의 소스가 되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원희목 위원 그런데 2007년 이후에 686명이 분할연금 청구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청구권 소멸까지 간 사람이 2007년 이후로 21명이고 올해에만 17명이 현재 돼 있습니다. 그것 보고 다 받으셨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원희목 위원 공단 자체감사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지적받는 지사의 비율도 2007년도에 19%, 2008년도에 20%, 올해는 25%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여기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원희목 위원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서 최소한 공단의 청구안내 소홀로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그러한 국민들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꼭 해야 되니까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희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만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는 보고 받으셨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원희목 위원 2005년도에는 21만 개소가 있고 올해에는 32만 개소로 약 47% 정도가 증가가 돼 있는데요, 체납사업장이.

체납사업장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체납한 상태에서 문을 닫아버리는, 휴폐업하는 휴폐업 사업장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지요?

여기에 대해서 마저 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가동 중인 체납사업장은 33% 정도가 증가했고 휴폐업한 체납사업장은 68%, 한 2배 가까이 그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휴폐업 체납사업장의 증가는 체납기간도 장기화시키게 되지요. 그래서 악성체납화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휴폐업 체납사업장의 평균 체납기간이 2005년도에 6.6개월로 돼 있는

데 올해는 8.2개월로 약 24% 정도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가동 중인 사업장의 평균 체납기간은 오히려 28% 감소된 것에 비해서 대조적으로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연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면 문제는 소속 근로자가 이중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습니다.

○원희목 위원 결국 소속 피해자들이 월급에서 연금이 원천공제될 때 한 번 피해를 보고 연금이 납부되지 않음으로써 연금 수급에서 손해를 보게 되면서 또 한 번, 이렇게 이중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런 이중의 피해,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철저한 관리대책이 필요한데 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체납액 징수 기회를 일실하지 않도록 저희가 재산조사라든지 조업 재개 여부 등 이런 데 대한 모니터링을 지금 강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희목 위원 철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수 위원 이사장, 복지부가 지난 2008년에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라는 내부보고서를 만들고 연금 급여율 축소를 골자로 하는 네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라는 요지의 지난 10월 6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보신 바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봤습니다.

○박은수 위원 어떻습니까, 이사장은 이 보고서를 사전에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별도 보고라기보다 내용 현황 파악한 자료로서 2008년도에 그런 분석이 있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은수 위원 그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08년 4월 16일에 전재희 복지부장관 직

속으로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9개월간에 걸쳐 토론·연구 끝에 작성한 보고서예요. 2008년 12월에 만든 보고서인데 여기에는 국민연금공단 산하에 있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김성숙 연구조정실장까지 참여를 해서 지금 현재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으로 있는 진영곤 당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KDI, 조세연구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사연 이렇게 다 해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재구조화 방안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9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만든 보고서를 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제가 이해하기로는 충분한 공감대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은수 위원 어쨌든 이 내용에 따르면 국민들은 연금보험료는 현행대로 내고 나중에 가면 받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적게 받는 그런 내용이 주된 골자지요, 결론적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 와중에서 또 몇 가지 옵션에 따라서는 재정지출도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은수 위원 어떻습니까, 이렇게 국민연금에 대해서 오늘 이사장의 업무보고에 따르더라도 이게 우리가 법 이름도 기초노령연금법인데 ‘기초노령연금법’이라고 하는, ‘기초’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하고 완전노령연금 이런 또 처음 듣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기초연금에 대해서 무슨 거부감을 갖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 현재 법대로 따져 보더라도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 이것을 2028년까지 반드시 2배로 올리도록 부칙에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2028년까지 2배가 되려면 2008년부터 해마다 0.2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게 맞아요, 이게 10년간에 걸쳤으니까. 이렇게 부칙에 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 여당은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2006년 2007년에는 오히려 국민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A값의 20%까지 지급하겠다고 했고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액을 2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여당에 대해서 연금제도개선특위, 이 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하자고 제안을 해도 거절하고 있고 보다 못해 양승조 위원과 본 위원이 연금제도개선특위 구성촉구

결의안까지 내었는데도 이게 아직까지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계산해 보면 말입니다. 국민들에게 법에서 지키도록 약속한 것이고 한나라당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 것이고……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이것을 1년에 0.25%씩 이렇게 계획대로 인상을 했으면 어르신들이…… 일인당 월 1만 3500원씩 이렇게 돈을 그냥 눈뜨고 보고 뺏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3년간 이 노인 분들이, 어르신들이 뺏긴 돈이 5680억 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사장이 한번 나서서라도 정부에 다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까?

오히려 복지부는 연금공단의 기초노령연금센터를 사통망을 관리하는 한국보건복지정보원으로 이관하겠다고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이것 잘못됐다, 선별적 공공부조로 축소하겠다고,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이 나중에 노후에 받아야 될 연금급여율은 최대 15%까지 삭감한다는 내용이 이 보고서에 담겨져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 견해는 어떠하며 이것을 정부 당국에 대해서 이사장은 어떤 태도로 임하실 계획입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위원님, 솔직히 기초노령연금제의 부조화라고 하는 이슈는 매우 복합적이고 그런 내용이 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정리된 의견을 개진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수 위원 이게 이사장은 진정성이 아주 참 의심스럽게 들려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성진 위원은 아까 전에 통일에 대비해서도, 그렇지요? 연금에 대해서 통일에 대비한 TF는 검토하라고 하니까 그걸 검토해 보겠다 이라고 있으면서 이것은 이미 TF가 구성이 되어서 이제 다 나온 거예요. 나온 것에 대해서 이것도 그냥 숨기고 쉬쉬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에 기초노령연금이 28년까지 10%로, 2배로 올리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회에 연금개선특위를 구성하라고 법에서 다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그냥 마냥 회피하면서 어떻게 지금 통일에 대비해서 무슨 TF를 하겠다고

그렇게 쉽게쉽게 대답을 하시고, 뭐가 이게 진정성이 안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정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희 의원실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다음에는 손숙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손숙미 위원 손숙미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납부예외자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지역가입자 10명 중에 6명 정도가 납부예외자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국민연금에서는 납부예외자를 줄이고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손숙미 위원 그런데 보니까 본 위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의 해외 출입국 현황을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2009년 한 해 동안 이들 중 64만 명이 해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0회 이상 출입국한 사람도 7000명 가까이 됩니다.

물론 출입국만으로 이들의 납부능력을 파악하기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생활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해외 출국이 힘들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관리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저희로서는 출입국이 빈번한 그런 자에 대한 실태 확인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서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체납 처분 등 이런 조치를 통해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숙미 위원 좀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도 통계청 취업자수에 비하면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취업자의 60%가 사업장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 의원실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

습니다.

○손숙미 위원 그다음에는 고소득 체납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세소득이 파악되고 있는 국민연금 고소득 체납자 문제가 있는데요. 지난 8월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보험료 고소득 체납자 특별관리 현황'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고소득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국민연금 납부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에 대한 관리가 3년째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10%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고소득 체납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상황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 절반이 넘는 55%가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면서 국민연금은 내지 않는 것이 어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사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 신뢰도를 반영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요즘 임의가입자가 늘어나는 신뢰 회복이 됐을 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되겠고, 또 저희가 실태 확인을 통해서 아마 더 징수 활동을 강화해야 되는 이런 양쪽에서의 노력이 다 필요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숙미 위원 앞으로, 물론 임의가입자를 통해서 신뢰가 상당히 회복됐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아직도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라든가 인식 개선에 대해서 새로운 적극적인 사업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계획을 향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은 임의가입자가 늘어서 국민들의 신뢰 그게 높아졌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신뢰 제고가 임의가입자로 그렇게 나타난 것처럼……

○손숙미 위원 계기가 됐다 그런 말씀으로 알아 들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에 신용카드를 납부를 할 때에 수수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도별·납부방법별 국민연금 수납

현황을 분석을 해 보니까 매년 30~40억 원이 납부수수료로 지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의 경우에 건당 5300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이체 수수료 37원의 144배가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신용카드 납부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를 2%선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서 건당 5000원이 넘는 과도한 수수료가.....

1분만 더 주십시오.

다른 납부자의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저희가 그런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신용카드 사용의 경우는 비용이 수수료가 높지만 고객 입장에서 편의성 때문에 그것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수수료 인하 노력과 함께 수납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이체나 인터넷 납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 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손숙미 위원 아니, 신용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납부수수료를 인하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바우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수료율이 낮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제가 방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노력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손숙미 위원 그런데 얼마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낮출 생각이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얼마?

○손숙미 위원 수수료를 지금 어떻게 네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계획만 잡고 계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지금 실질적으로.....

최소합니다. 제가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1.85%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손숙미 위원 바우처의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낮아서 0.5% 수준으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 내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더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숙미 위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잠시 감사를 중단했다가 18시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18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진 위원 성남 중원 출신 한나라당 신상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장애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급여 중에서 장애연금의 목적이 뭐니까, 이사장님? 국민연금 급여 중에서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목적은 뭐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불의의 장애를 당하게 된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그런 연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우선 이것은 연금 가입 이후에 생기는 장애의 경우에 이제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신상진 위원 그렇게 어디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국민연금법에 근거하는 것 아닌가요?

○신상진 위원 국민연금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습니다.

○신상진 위원 국민연금법 67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연금 가입 전에 생겨서 진행 중이거나 하는 유전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이영양증이라고 보통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근육병 근육병 그러는데 점진적으로 이제 병이 진행을 해서 근력 감소가 되고 또 나중에 급기야는 보행능력도 없어지고 호흡도 잘 안 되고 점차 심해지는 그런 병인데 그런 유전적 병, 그러니까 어려서 꼭 생기는 것은 아니고 성인이 되어서 연금 가입 이후에 자

기도 잘 몰랐다가 상태가 안 좋아져서 진단을 받아 보면 그런 질병이 이제 이렇게 되어서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그게 연금 인정이 안 되어 가지고 2010년 올해 3월에 대구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신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 판결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어린 시절부터 있어 왔다가 점차 악화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심해지는 유전병 같은 경우 증상이 악화되면서 연금 이후에 그것이 장애가 생겨서 급여를 신청할 경우에 안 된다고 하니까 제소를 해 가지고 대구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있습니다, 올해 3월에.

그 내용은 ‘그것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해 주기로. 그래서 아마 연금공단에서 현재 항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십니까, 이사장님? 누가 아시는 분 없어요, 뒤에 실무자 중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들이 없으시군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국민연금법에는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연금 가입 이후에 생긴 장애만 이렇게 되어 있게 됐는데 판결이 현재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병이 악화가, 진행이 되어서 장애로까지 되어서 연금을 받을 정도가 되는 상황은 연금 가입 이후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경우에 따라서 잘 그것을 판단해야 되지 그냥 연금 이후에 발견된 장애는 무조건 안 된다 하니까 이런 법원의 판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나 독일 같은 그런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 지금 이런 경우 장애연금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검토하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 문턱에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잘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한번 이사장님 검토하시고 앞으로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신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재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재중 위원 한나라당 부산 수영의 유재중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오전에 이어서 수고가 많으신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지적입니다.

공단이 주식투자한 국내기업 수가 현재 몇 개사 정도 됩니까? 많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많습니니다. 5% 이상 지분 가진 것만 해도 130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재중 위원 그렇습니다.

대개 600개, 하여튼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습니다.

○유재중 위원 그래서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건수도 09년도 782건에서 올해 6월까지만 해도 2000건이 넘는 것으로 해서 7년 사이에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의결권 행사 시 반대의견을 제시한 의결권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09년도에는 15건에 불과했는데 벌써 올해 6월에는 160건이 넘는 것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퍼센티지로 보면 6~7% 이상 반대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재중 위원 결국 이렇게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횟수가 많아지고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증가한다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이 일반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방증이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겠습니다.

○유재중 위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다른 어떤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쳐 자칫 기업 경영에 대한 정부의 입김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는 어떤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오전에도 위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기본 방향이, 기본 원칙이 경영개입이나 경영간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저희가 국민의 재산을 수탁 받아서 위임받아서 운영하는 수탁자의 의무로서 저희가 투자한 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주주권 행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본래 우리가 기대하는 주주권 행사의

순기능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중 위원** 그런데 잘못 행사가 되면 정말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의 역할들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습니다.

○**유재중 위원** 이사장님 어깨가 참 무겁겠습니다. 이 312조를 운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수익성도 보장받아야 되고 안전성도 있어야 되고,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유재중 위원** 정말 향후 공기업에서 연금공단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정말 투명성 있게 신뢰성을 높이면서,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면서 해 나가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유재중 위원**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노사 문제라든지 또 이사장님의 거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어떤 주시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금융위원장으로 재직함이 있어서 그런 어떤 경륜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아마 신뢰를 하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연금공단이 좀 잘해 주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주시고, 여러 위원들도 많이 지적하는 것은 그만큼 연금공단의 중요성, 그렇지요? 우리 국민의 소리를, 국민의 여러 소리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좀 깊이 새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잘 알겠습니다.

○**유재중 위원** 여러 가지로, 앞으로도 굉장히 이 312조의 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건복지뿐 아니라 국가 중책으로써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금에 대해서는 특위로 구성하자는 국회의원들 여론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금운용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연금공단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미처 못 배서 아까 질의순서를 못 드렸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복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전현희 위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복지사업에 관련된 보육시설이 됐든지 실버타운, 뭐 다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그다음에 병원, 휴양시설, 생활안정, 학자금대여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복지사업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결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지금 공단의 복지사업 그동안 어떤 것 하셨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저희 기금을 활용한 복지사업 말씀하시지요?

○**전현희 위원** 예.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안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현희 위원** 그동안 안 하셨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결과가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전현희 위원** 지금 법에 따라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그동안 사실입니다. 맞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관심……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전현희 위원** 안 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전현희 위원** 안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제가 그 질의를 하니깐, 안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못 했다고 하는 측면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현희 위원** 말을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안 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아까 질의를 했지만 지금 연금공단에서 카지노라든지 또 술 그다음에 담배 이런 사업은 사실상 크게 수익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손실이 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는 이게 지금 공단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금융계 출신인 이사장님 오셔서 더욱 더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것은 단순히 수익만을 내는 그런 민간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연금에 대한 이런 성격상 국민들의 어려운 사각지대 또 복지 이런 것을 보살피고 챙겨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복지법에도 또 이런 근거 규정을 두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복지사업에 대한 실적, 제가 보니까 2003년도에 1건 있었고 그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대여사업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간의 손해가 나더라도 또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관심 기울이고 하시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그런 의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 대여사업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전현희 위원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대여를 하는 사업인데요, 애초에 이 사업을 계획할 경우에 약 29만 3000명 수요자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고 보니까 6626명만이 대여사업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보니까 신용불량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대여금 지급이 당사자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곧장 금융기관에 전달이 되어서 신청인의 채무상환금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신청인이 그 혜택에 대해서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직접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사실상 사업이 저조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지원사업이 실속 있게 제대로 수요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되도록 좀 설계를

를 다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액금융지원사업이 지금 저희 프로그램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명순 위원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제 1차질의에서 대답 못하시고 굉장히 답답해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방에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 중에서 부부가 농어민일 경우에 부부 중 1명만 지원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가입자로 농어민 협업 배우자를 가입시켜서 편입하는 방안, 이것을 지금 국고보조금 지원방안에 관해서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부가 협의 중에 있다라는 자료를 봤습니다. 협의 많이 하셨습니까? 몇 차례나 하셨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잠깐 설명을 실무자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순 위원 예, 간단하게.

○국민연금공단연금제도연구실장 김성숙 연금제도연구실장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부하고 공단하고 연구원에서 TF를 구성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짰은 회의를 통해서 협의하는 중이고요.

○강명순 위원 농어민들 위해서 회의 몇 번이나 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연금제도연구실장 김성숙 그동안에는……

○강명순 위원 TF만 구성하고 회의 안 했지요?

○국민연금공단연금제도연구실장 김성숙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명순 위원 정말이에요?

○국민연금공단연금제도연구실장 김성숙 예, 연구원의 용역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강명순 위원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동안에 회의했던 자료들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연금제도연구실장 김성숙 예. 알

했습니다.

○**강명순 위원** 아까 존경하는곽정숙 위원님이 추천한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지역가입자실태조사 2008년도 보고서와 동일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가 본인이 원해서라기보다는 고용주가 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사실상 가입을 가로막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강명순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가입을 방해하거나 부담금 지불을 거부하는 그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례 같은 것은 확인해 보니까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까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님 말씀은 고용주가 방해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뭐든지 그냥 저희들이 자료를 여쭙보면 모른다, 없다, 사례가 없다 그러면서 자료도 늦게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국정감사를 받는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순 위원** 그리고 저희 방에서 상시국감 종합평가에 찾아가는 노후설계 서비스나 이런 여러 가지들, 지난해에 네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보장 서비스나 또 미납기간, 소득수준에 따른 축소, 이런 지역가입자의 문제, 또 등급판정시 하향조정이 많은 정신장애에 대한 판정체계 개선 이것을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저희 방에서는 상시국감 관리를 위해서 정책과제에 대한 것을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설계 서비스 활성화 필요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현저하게 개선이 됐고요. 반환일시금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중-’ 지역가입자 수에 대한 또 납부예외자는 ‘하-’ 또 정신장애에 대한 판정체계는 ‘중-’입니다.

이것 봤을 때 A+로 평가된 찾아가는 노후설계 서비스는 잘하고 있는데요, 인력 면에서 노후설계 서비스 56명으로 증원된 반면에 고객상담은 58명, 또 연금지급은 10명이 감원됐습니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작년 10억에서

올해 19억으로 증가했지만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큰 증액은 아닙니다마는 예산 확보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은 좀더 확보를 해서, 23억을, 이 사업이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순 위원** 인원 보충을 좀 해야 되겠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순 위원**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반환일시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5년이 지나도 신청 안 하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표를 보시면 1, 2, 3의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게 1, 2, 3의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서 이렇게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하거나 국외 이주를 했을 지급대상이 되는데 지금 연두색으로 돼 있는 이 부분 4, 5 같은 경우에 소멸되었더라도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시에 다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지금 연노란색으로 1, 2, 3, 4, 5 죽되어 있는 것을 모든 경우에 반환일시금이 소멸되었어도 다시 받을 수 있는 걸로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질의를 하고 계속 얘기를 했더니 이것 정말 많이 헛갈리고 계셨습니다. 이게 받을 수 있나 없나 이러면서 여러 가지 공단에서 법 개정의 내용을 잘못 이해를 한 건지 소멸된 반환일시금이 있는데도 없다고 속이는 건지, 이렇게 저희들이 따져 물었더니 바로 오늘 오후에 공단 측에서 저희 공단 측이 잘못 해석했다는 전화가 왔다고 지금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생길 때 잘못 적용했다면 이 생긴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사업으로 활용해야 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석용 위원님.

○윤석용 위원 서울 강동구의 윤석용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시다.
이사장님, 한 달에 지출이 가장 많은 때가 언제쯤 됩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저 개인 말씀신가요?

○윤석용 위원 예, 그렇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글썽요, 지금……

○윤석용 위원 월말쯤 안 되겠어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월말에 계산할 것도 있고……

○윤석용 위원 서민들이 제일 많이 나가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런데 연금은 25일 날 지급이 되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윤석용 위원 서민들이 불편하고, 사실 그날 받아 가지고 돈을 그날……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30일 날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러니까 30일 날도 월말이 있으니까, 여섯 달이 월말 아닙니까? 그것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큰 달도 있고 작은 달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정확히 말씀을 드리느라고 그랬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게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돈 받아 가지고 그날 지출이 많으면 좀 많이 안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날 돈을 월말까지 안 내면 과태료를 내는 이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이게 서민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25일쯤, 다른 연금은 다 그렇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을 개정해서 이걸 하도록 고민을 한번 해 주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정부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렇게 하세요.
장애인 등급판정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시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 때

문에 장애인들 표가 많이 떨어지고 우리 여당이 다음에 참패를 하면 또 이사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데, 오판술 판정팀장님 오셨습니까?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장 오판술 예.

○윤석용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십니까?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장 오판술 아닙니다.

○윤석용 위원 그러면 장애인 업무를 해 보셨습니까?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장 오판술 지난 2007년 당시에……

○윤석용 위원 그러면 의사도 아니시지요?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장 오판술 예, 그렇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래서 이 판정이 문제가 많고, 장애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농성도 하고 이랬지요?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장 오판술 예.

○윤석용 위원 이것 문제가 있으니 안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 특성에 맞게 판정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걸 좀 하세요. 지금 진짜 장애인들이 시한 폭탄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장 오판술 예, 알겠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래서 이것이 교육도 책자 하나 쥐 버리고 의사들보고 너희 평가해라 하면 잘 안 합니다. 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지침도 만들고 또 직접 대면해서 문진해서 평가도 하도록 이런 지침을 내려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장 오판술 예, 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석용 위원 건의만 하면 우리 정부는 또 말 안 들어요. 특히 복지부는 더더욱 애먹이고 속도가 늦어요. 그러면 이 정부 끝나 버리고 저 버리고 이러면 참 문제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한나라당을 돕는 입장도 있지만 정말로 나라를 바로 생각해서 장애인들 입장에서라도 바로 만들어 주세요. 내가 이걸 웃기는 말이니까 삭제해도 됩니다. 정말로 진짜 답답합니다, 이게.

국민연금을 못 찾아가는 사람이 많지요? 5년 동안 미 청구건수가 991건 액수도 142억, 142억

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행방불명자 국외이주자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공단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물론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것도 홍보를 다양하게 해서 인터넷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 신문 이런 데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용 위원 이사장님, 귀 공단에 혹시 장애인 운동선수가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제주지사에……

○윤석용 위원 여기, 여기에. 역도도 있고 안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본부에는 없습니다. 지사에……

○윤석용 위원 지사에. 몇 명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1명……

○윤석용 위원 아까 복지사업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장애인실업팀에 대해서 고민도 한번 해 보세요. 장애인들은 수명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한 10년 짧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연금도 이제 취급하지 않습니까?

또 체육진흥법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이나 일반 실업팀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1명이 운동해서 효율성이 나겠습니까? 그 사람 코치도 없고 감독도 없고 혼자 독자적으로 수업해서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하 2명은 해야 주고받으면서 안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공단의 현주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실업팀도 크게 많이 만들 필요 없습니다. 한 서너 명, 4명 정도 시작하면 됩니다. 큰 돈 안 듭니다. 1년에 한 1, 2억 들면 그것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청풍리조트에 수백억을 이렇게 내버리는 것보다는 그런 것 해 가지고 국민들이나 장애인한테 희망을 주는 것이 더 보람 있는 공단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부탁 한번 합시다. 고민하셔 가지고 저하고 의논 좀 할 수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물을 게 많습시다마는 고민을 한다고 해서 물음을 그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추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秋美愛 委員 공단이사장님, 2009년 4월에 시작한 임단협 교섭을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하고 있고 또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으로서는 드물게 단체협약을 해제했어. 이에 노조는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 잘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타임오프제 말씀이십니까?

○秋美愛 委員 예.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알고 있습니다.

○秋美愛 委員 근로시간 면제제도, 근로시간 1000시간당 만약에 유급전임자를 둔다면 몇 명을 둘 수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몇 명 중에서도요? 저희요?

○秋美愛 委員 0.5명을 둘 수 있어요.

그러면 공단에는 근로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지금 4900명 정도입니다.

○秋美愛 委員 그러면 4900명이면 1만 4000시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1만 8000 시간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몇 명입니까?

(「조합원」 하는 위원 있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 직원이고 저희 조합원은 3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秋美愛 委員 이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제가 만든 겁니다, 노동위원장으로서는.

노동부가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 기관에는 7명을 둘 수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알고 있습니다.

○秋美愛 委員 그러면 알고 있는 것하고, 실천은 안 하고 계시는데 물어보겠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자 이외에 무급전임자를 현행법상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

○秋美愛 委員 무급전임자를 현행법상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가능하지 않나요?

○秋美愛 委員 소신 있게 대답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예……

○秋美愛 委員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秋美愛 委員 정확히 잘 모르니까 노사 간에 협의가 안 되는 거지. 그것 말이 됩니까? 지금 노조들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연일 하소연하고 탄원을 하는데 국회까지 와서, 이사장이 모르신다면 이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모른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국정감사 준비를 하시고 나오시는 겁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마는……

○秋美愛 委員 무급전임자를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秋美愛 委員 가능하면 법을 잘 연구해서 가능하도록 단협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

○秋美愛 委員 이사장님의 학 경력은 어디까지입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대학교 말씀이십니까?

○秋美愛 委員 박사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秋美愛 委員 뭘 전공하셨어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저는 경제학, 경영학을 했습니다.

○秋美愛 委員 경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니지먼트(management)라고 하나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말씀……

○秋美愛 委員 조직관리 이런 것 다 경영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습니다.

○秋美愛 委員 이사장님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잘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알고 있습니다.

○秋美愛 委員 누가 합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것은 평가위원……

○秋美愛 委員 평가기관이 누구입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기획재정부도 그 부분에……

○秋美愛 委員 기획재정부가 주관을 하겠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秋美愛 委員 그러면 거기에 기관장평가 따로 있고 기관평가 따로 있다는 것 잘 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알고 있습니다.

○秋美愛 委員 우습게도 가장 노조의 반발을 심하게 사는 허준영 사장이, 옛날에 철도공사가 기관장평가에서 본인은 A를 받고 본인이 지휘하고 있는 조직은 C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직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 우수기관장으로 표창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사장이 그대로 그것 따라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타하는 것 들으셨지요? 그 질타를 들으시고도 휴식 시간까지 가지시고도 국감 막바지에 이르러서 노동조합법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피감기관으로서 자격을 갖추셨습니까?

지금 이사장님은 경영평가 몇 점 받으실 것으로 기대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사실……

○秋美愛 委員 경영이란 건 그 조직을 아끼고 휴먼 리소스(human resource)를 가장 창발성 있게 만들어내고 조직융화를 시키고 조직안착을 시키는 그것이 경영 아니에요? 경영을 가지고 박사 학위를 따신 분이 그것을 모르시고서 일부러 이 연봉제를 압박을 하고……

연봉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부 기준이 뭐던가요? 정부 지침은 뭐였습니까? 조직의 10% 이내에서 1·2급 대상으로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만 유달리 3급으로 고집부리는 이유가 됩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의 가이드라인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秋美愛 委員 아니, 이사장의 고집이든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든지,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그러지 않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연금기관에 비교해 볼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다 1·2급만 하고 있어요. 정부 가이드라인도 10%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기관들하고 저희는 연기금을 관리하는 그런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분류를 떠나서 저희는 막대한 자금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성과주의 문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秋美愛 委員 그러면 추가질의에 다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다음에는 최영희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앞서 주승용 위원이 제기하신 것, 부유층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임의가입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향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내 연금 갖기-평생 월급 국민연금’ 캠페인 시작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서 임의가입자가 굉장히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상시에는 2000~3000명 수준이었는데 7월부터는 월 1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의가입자 중에 국민연금 가입자 배우자는 56.7%이고 나머지 43.3%는 공무원, 즉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배우자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학생이나 군인도 좀 있지만 그 수는 아주 매우 적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가 공무원 가족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임의가입한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이 사망을 해도 둘 다 전액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의 경우는 다른데요, 임의가입한 후에 한 쪽이 사망하면 유족연금 또는 자신의 임의가입 연금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즉 유족연금이 클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임의가입 연금이 유족연금보다 클 경우에는 자신의 연금에 유족연금은 20% 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불합리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가 공무원에게, 뭐 꼭 공무원만은 아닙니다 군인이나 사립학교교직원 모두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

무원급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임의가입제도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의 목적도 있는 만큼 홍보를 강화해서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불합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지금 말씀하신 불합리한 그런 불공평한 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임의가입자 가입 활성화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부수효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겠는지 저희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이 지지부진해서 한때 무산 위기로 치달았던 용산 역세권 투자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사장 출신인 박해춘 전 이사장이 회장으로 부임했는데요, 취임 일성이 중국 자본과 국민연금공단 등 연기금 유치를 검토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연금공단이 최근 해외빌딩을 매입했지만 투자가치가 높은 국내부동산 인수한다고 흥결이 있을 수 없다라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까?’라는 언론보도에 물음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민연금이 1250억 원을 투자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과거에 그랬습니다. 2007년인가 몇 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법적분쟁과 원인규명을 통해서 원금 등 일부는 회수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250억 원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아마 적정한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 사업의 투자를 결정할 당시에 공단 내부 리스크 관리실은 토지매입 위험 및 민원위험이 존재하며 토지보상 지연 가능성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용 증가 위험이 존재한다고 사실상 보수적인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자문보고서는 토지매입가 상승 및 직접공사비 상승할 수 있지만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적극 투자 확인을

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얘기 들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얘기 들었다고 하시는데 당시 외부자문보고서는 2007년도 11월 21일에 작성했는데 그때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했습니다. 당시 이사장께서 딜로이트 코리아 회장이셨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27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최영희 위원 2007년이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때는 그랬습니다.

○최영희 위원 코리아 회장을 하셨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최영희 위원 당시 외부자문서의 주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직간접적으로 이사장이 회장으로 있던 곳에서 자문보고서가 긍정적으로 나왔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이 투자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향후 진행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제대로 된 그런 검토와 또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신중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들이 투자원칙에 입각해서 잘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깊이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다음에는 이애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애주 위원 진행발언 잠깐만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예, 그러십시오.

○이애주 위원 저희 방에서 ‘퇴직자 재취업기관에 대한 거래제한 기준’ 보내 달라고 그랬는데

요약본으로 주셨거든요, 써머리(summary) 해 가지고. 이것 말고 원본으로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받은 부서는 알고 있을 거고요, 퇴직자 재취업 관련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애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자금 배분에 대한 전관예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시중에 있습니다. ‘공적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감사’ 받은 적 있으시지요, 올해?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9월에요?

○이애주 위원 올해 감사.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이애주 위원 감사에서 뭐라고 지적됐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

○이애주 위원 채권거래에 관한 경우 있기로는 사실 메신저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몇 가지 건이 있어서……

○이애주 위원 예, 일단 아주 중요한 것은 검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정성을, 그래서 채권운용자가 특정 중개인과 편중된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애주 위원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이애주 위원 그래서 그것을 놓고 보면요, 자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쉽게 말해서 친한 사람, 아는 사람한테 거래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례가 없을까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

○이애주 위원 개연성이 있지요? 지난번에 어떤 특정 인물이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이것 신문 인터뷰입니다.

‘취임 후 은행과 연기금 등 갑과 관계를 정립하느라 눈코뜰새가 없이 바빴다. 그는 증권사 영업본부장도 해 봤고 갑중의 갑인 국민연금 증권 운용실장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서로 가려운 곳

을 끌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신문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국민연금의 입장에서 그렇게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철저히 우리가 모럴헤저드의 소지라고 할까, 이해상충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준법감시실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애주 위원** 이분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누구요?

○**이애주 위원** 이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잘 모르겠습니다.

○**이애주 위원** 우리 대체투자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분이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얼마든지 아는 사람끼리 밀어주기, 그렇지요? 연고자끼리 서로 하기 이런 것에 큰 오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 보시면 국민연금의 증권사 평가등급표에서 특정인이 간 데가 등급을 더 받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것 전혀 모르시는 일이세요? 여기 연금에서 실권자가 옮겨간 회사가 등급을 상향조정받았습니다.

물론 그동안 열심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오해의 소지는 상당히 크다는 것을 내포할 수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애주 위원**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고민이 되시겠지만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대우가 안 좋아서 옮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증권사나 보험사 같은 데서 유혹해서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애주 위원** 그렇다면 보안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철저히 보안을 해서 나가면 적어도 얼마 동안은 국민연금에 손을 못 대게 한다든지 또 여기에 옮겨 오는 사람들이 보면 같이 옮겨다

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실에서 실장님 그만두면 밑의 한두 사람 몇 달 내에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한꺼번에 옮겨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것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더군다나 옮겨가서 물론 나는 증권 사는 업무를 안 한다 하지만 그 워선으로 가면 얼마든지 쉽게 말해서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애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그겁니다. 우리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대우를 더 잘해 주시든지 그리고 절대로 나가서 탄짓을 못 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데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다른 증권사 있다 두세 명이 여기 왔다, 또 여기서 같이 얼마 있다가 또 나간다, 이러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리 돈이 중요한 세상이라도 국민의 돈을 움직인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서 정말 안을 정확하게 해서 저희 방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이직을 좀더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간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서 저희 방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차질의시간에 제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사장님의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제가 들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농어민들은 도시민들보다는 복지시스템에서 우선적으로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박상은 위원** 그러니까 결국 복지에서도 사각지대인데 지금 문제는 이 농어민 노후보장 강화가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공단에서는 국고 지원제도가 있지요,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있습니다.

○박상은 위원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알고 있습니다.
 ○박상은 위원 그래서 이 국고지원제도에 의해서 지금 월 75만 원,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박상은 위원 그 이하라고 봐야 되겠지요, 이 쪽은 지금 우리가 정률로 지원해 주고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79만 원 이하는……
 ○박상은 위원 이것 지금 얼마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79만 원 이상 가입자가 월 3만 5500원.
 ○박상은 위원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박상은 위원 정확하게 2분의 1이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반입니다.
 ○박상은 위원 그렇게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간 940억 정도 듭니다, 맞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940억.
 ○박상은 위원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 2010년도에 가구별 최저생계비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와 있는 게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박상은 위원 알고 계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박상은 위원 거기에 보면 4인가구의 경우에 약 136만 30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박상은 위원 그리고 3인가구는 11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우리 국가에서 농어민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국고지원제도가 79만 원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상당히 차별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박상은 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120만 원 정도까지 현실화시키면 그러면 현재 약 한 10만 명 정도 농어민이 혜택이 됩니다, 이게. 그런데 그 기금을 본 위원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연간 한 20억 정도밖에 안 들 것 같아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박상은 위원 그래서 지금 20억 정도를 추가 지원하면 약 10만 명의 농어민들이 혜택을 보는

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 제도를 좀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 의향이 아니라 변경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은 위원 그래서 보고뿐만 아니고 제 의견 같아서 지금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혜택을 하고 있는데 농어민들 정말 사각지대입니다. 특히 또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금공단에서 특히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서 결과를 저한테 가급적 빨리 보고해 주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은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2차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셔서 3차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질의시간은 간사 간 협의대로 5분으로 하고 추가 1분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승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단이 지난 10년간 직원들 유학을 보냈어요. 39명을 보냈는데 한 사람당 한 9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유학비가 들었어요. 기금운용본부의 A과장은 학비와 체재비 명목으로 1억 49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최고액을 기록했는데 해외유학비용 외에 연봉은 그대로 연봉대로 나가고 호봉은 호봉까지 인정을 해 주는 것이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주승용 위원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학은 보통 1년 갑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지금 보통 2년 그렇게……

○주승용 위원 2년을 갑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주승용 위원 2년에 1억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런 수준입

니다.

○주승용 위원 그런데 이 모 부장의 경우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MBA 취득을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왔어요. 갔다오자마자 1년간 휴직하고 나서 퇴직해 버렸어요. 이것은 불량유학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주승용 위원 이것 뭐하러 보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가 좀 있을 것에 대비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공단에 근무를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을 만들어야지요?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저희가 지금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 회수해야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기간을 못 채우고 퇴직을 하게 하면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산해서 환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환수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환수했습니다.

○주승용 위원 몇 년간 강제규정을 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저희는 지금 유학기간 1년에 최장 7년입니다.

○주승용 위원 유학기간 1년 갔다오면 최소한 7년은 근무해야 됩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그런데 이 유학 분야가 MBA 등 주로 경제 관련 분야만 집중돼 있어요. 국민연금 본연의 임무라고 하면 사회보장이라든지 노후설계 같은 데도 좀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주승용 위원 지금 거의 77%가 경제 관련 분야에만 보내고 사회보장 분야는 소홀하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국민연금 부당수급액이 지금 현재까지 한 1528억인데 아직까지도 179억 원이 미징수 상태에 있고 최근 5년간만 보더라도 142억 원이 미징수해가지고 있어요.

부당수급 발생 원인은 수급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했거나 소득이 변동했을 경우에 신고를 지연한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쩔 수가 없는 문제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좀 해소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주승용 위원 10개월 이상 장기 부당수급자가 2만 8000명에 769억 원, 24개월 장기 부당수급자는 1만 268명에 370억…… 공단이 부당수급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래서 제가 앞서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 그것은 이렇게 부당수급이 됐을 경우에 환수할 때 이자를 징수하는 이런 법안이 지난 8월에 입법예고돼서 법제처 심사 중에 있습니다. 완전한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그런데 또 이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대개 월말에 사망을 했을 때 그다음 달에 사망신고를 하고 또 그것 심의를 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한두 달은 그냥 쉽게 지연이 되어버려 가지고 수급을 받아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고의성이 아니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주승용 위원 이런 경우에는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주승용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 좀 검토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감사를 마치면서, 국민연금공단은 공기업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주승용 위원 그러면 수익성보다도 공익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주승용 위원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복지사업에 좀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장애인등급심사 있지 않습니까, 처음 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주승용 위원 그런데 보면 36%가 지금 장애인 등급 하향조정됐거든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또 이의신청을 한 사람 중에서 22%인가 25%가 지금 구제가 됐거든요, 상향조정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37%가 하향조정되고 다시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25% 가까이 상향조정됐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문제가 보지를 앓고 서면으로 심사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12만 명 이상 등급심사가 끝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현장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광정숙 위원 장애등급심사 전달체계가 너무 복잡해서 조금 더 간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등급제 자체는 물론 반대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에 대한 판단 여부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하게 하고 정부는 승인으로 이것을 실시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체제 아래서도 당장에 장애당사자의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아까 주승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향조정되는 사례가 거의 40% 가까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심사센터장님.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장 오판술 장애심사센터장 오판술입니다.

○광정숙 위원 이의신청을 했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등급이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상향조정이 다시 될 수 있었던 주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장 오판술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 접수 상담은 지

자체에서 하고 저희가 심사를 맡다 보니까 처음에 충분한 정확한 안내가 부족한 게 1차 원인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정숙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절차가 복잡하고 저 그림 도표를 보시면 여러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공단이 직접 개입하지 못하고 중간에 계속 신청할 때 그리고 결과 전달할 때도 전달자의 입장으로만, 조금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로 1차 심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추가자료를 보완하는 것으로 등급 상향조정됐던 것이 주된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개선을 한다면 읍면동에 있는 담당 공무원이 최초 접수, 심사 과정, 내용 전달 이것들을 공단에서 직접 하게 된다면 이런 피해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을 거다 싶어집니다.

그래서 한 단계든 두 단계든 조금 더 간소화하고 공단이 직접 이것을 받아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하셔서……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장 오판술 예, 그렇게……

○광정숙 위원 지금 당장에 조금 간소화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장 오판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정숙 위원 그리고 국민연금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아 놓은 재산이 없어서 노후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맞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광정숙 위원 특히 보험료의 50%를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는 자기가 100%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가입자, 특히 최저생계비를 조금 웃도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과중하다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잘 아는 사항이지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무연금 또는 저연금 상태가 되는 것보다 국가에 재정적으로 훨씬 절감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광정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어떻게든 강화하려는 일에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단순히 기금을 불리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사장님이 오셔서 국민연금이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연금 가입 확대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시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실제 어떤 이러이런 성과나 조치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셨다든지?

본 위원이 작년에 실업 크레딧 도입이나 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어떻게 노력을 한 것인지, 그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전혀 노력의 흔적이 없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했던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서? 어떤 것 뭘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다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물론 저희 복지사업이라든지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같은 데에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마는 그것을 저희가 공단 차원에서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곽정숙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제안 드립니다.

실업 크레딧 도입 문제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문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은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은수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사장님, 제가 질타하기보다는 이제는 오히려 사정을 할게요, 제발. 정말 저희들 장애인들이 연금관리공단이 이런 장애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었어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장애인 복지 서비스 확충’ 이걸 주요 목차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박은수 위원 이렇게 국민연금공단은 스스로 그렇게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300조를 굴리는 세계에서 네 번째…… 사실 연금공단이 마음만 먹으면 못 할 게 없어요. 보건복지부는 예산이 별로 없어요. 정말로 너무 불쌍해요. 뭘 조금만 이야기를 해도 단돈 1, 2억 쓰는 것도 거기는 어떻게 돈 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렇지만 연금공단은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법 제105조 제1항을 제가 찾아내 가지고, 얼마든지 복지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기대를 걸었다가 장애인들의 마음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보면,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게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사장이 내린—화면에 나오니다마는—문건인데요. 장애인들이 너무 실망을 해 가지고 여기에 찾아와서 항의한 것을 가지고 ‘장애인단체 기습점거 등에 대한 사전대비 철저 지시’ 이런 것은 철저하게 지시, 철저 지시예요.

거기의 내용에 보면 장애인 특히 팔호 해 가지고 휠체어 장애인 방문 시……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장애인이 휠체어 장애인인데 이러면 본 위원이 연금공단에 방문해도 그러면 방문 목적 확인 등 동태를 주시하고 단체행동 의심 시 즉시 출입 통제 실시 이렇게 할 겁니까?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아지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240만 등록장애인이 있고 그분들이 얼마나 어떤 자립에 대한 의지가 강한데 이런 식으로 그냥 경찰력 동원하고 이런다고 해 가지고 이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박은수 위원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존경하는 윤석용 위원님도 하도 답답해서 연금공단에서라도 한 1, 2억 책정해서 장애인실업팀 만들라고 했잖습니까? 그것뿐만이겠어요? 이제는 300조를 가지고 기업마다 의견을 가지는 게 그게 연금관리공단인데 이사장님, 다 투자한 기업인들 만났을 때에 한마디만 해 보세요. ‘그 1, 2억 드는 것, 당신들 말이야, 이렇게 돈 많이 벌고 투자해서, 우리가 돈 대줘서 이만큼 돈 벌면 그중에서 조금만 이런 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써라’, 이사장이 의지를 가지고 한마디만 하면 대한민국이 바뀌어요.

지금은 기업시대 아닙니까? 정부보다도 기업의

힘이 더 강한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의결권을 가지고 참여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조금만 이런 의식,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내가 힘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만 가지면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도 국민연금법 105조에는 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세계적으로 투자자문회사라든지 세계적인 투자사들이…… 유엔 책임투자원칙에도 국민연금이 가입되어 있듯이 이제는 사회공헌 투자라고 하는 게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번에 우리 한국과 EU가 FTA를 할 때도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었지만 EU 쪽에서 우리에게 요구한 게 사회공헌 투자를 약속하라는 거였어요. 그걸 신문에서 보셨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박은수 위원 그러니까 지난 국감에서도 제가 그걸 분명히 지적을 해서 연금공단에서 국회에 돌린 2009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에 보면 “사회책임투자형 투자지침 중 술, 담배, 도박 관련 주식을 투자제한종목군에 포함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존경하는 전현희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국회에는 이렇게 보고해 놓고 오히려 술 담배 카지노에 투자한 것은 2조 8000억이 넘어요. 이러니까 투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으니까 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차제에 ‘국민연금 1%법’, 건축물을 지으면 1%는 예술에 투자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국민연금 1%법’ 이렇게 해서 1%는 바로 사회공헌 투자를 하겠다, 가장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에 우리가 적어도 한 1%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한번 하고 사회복지사업을 통해서……

이번에 신문에서 보셨지요? 아들이 장애인인데 장애인 등록하는 방법을 몰라 가지고…… 장애인 등록하는 방법만 정부가 나서서 가르쳐만 줘어도 자살을 안 했을 거예요. 장애인 등록하는 방법도 몰라 가지고 자살하는 그 아버지가 있는 현실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각지대예요. 그런 것을 보건복지부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복지사업을 통해서 근거를 가지

고, 연금공단에서 그런 일을 해서 사회적 약자들의 마음을 얻고 이런 투자는 기업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이 LG든 현대든 그 회사가 사회공헌에 적극적일 때는 우리가 좀더 투자한다 이런 국민연금공단 1% 투자 원칙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선언을 해서 가지고 정말 이제 돈 많이 버는 재벌 대기업도 약자들을 챙기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얼마나 이사장 된 보람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수 위원 산업 중에서도 장애인화적이고 고령친화적인 산업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지경부에서도……

○위원장 이재선 이제 정리하시지요.

○박은수 위원 예.

지경부에서도 270억을 투자해서 재활공학산업에 산업화를 시키겠다고 지금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정말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부 또 기재부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저도 힘을 다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전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희 위원 기금 운용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단 준법지원실이 점검한 결과를 보면 금년 5월에 기금운용본부 대체투자실의 직원이 개인거래 원칙을 위반하고 8400여만 원의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운용규정에 위반되는 것 맞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전현희 위원 또 하나 금융지주 주식의 4% 초과 및 1% 이상의 변동 내역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서 금감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696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맞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금융지주회사법 관련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현희 위원 관련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상장법인 주식 10% 소유 관련 주요 주

주의 주식 보유 상황 및 변동 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락해서 금융당국 지적을 받았고, 또 공공의 성격을 가진 한국전력공사의 보통주를 3% 이상 초과해서 소유제한규정도 위반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런 것과 관련된 내부 규정과 그리고 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런 사례들이 매우 많은데 기금 운용 관련되어서 관련자들의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또 법률교육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시스템을 검토하시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리고 또 기금 운용자의 투자지침위반 사례가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위탁운용사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매매 금지종목인 주식을 매수한 것 그리고 또 이런 금지종목을 매입했다가 되파는 일이 적발되어서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 위탁운용사의 관련 법규 위반이 총 5건이 적발이 최근에 됐는데요. 이런 위탁운용사의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이 적발이 되면 운용사 선정에 불이익을 주는 이런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래서 관련자 내부 직원들과 그리고 위탁운용사 관련 규정을 점검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해서 본 위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업무용 차량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주송용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연금공단 업무차량이 보험 가입한 게 582건인데 총 3억 1700만 원이 특정업체에 몰려 있습니다. 92%가 몰려 있는데 이런 특정 대리점 몰아주기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부분의 업무 지점이 이렇게 몰아주기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보도가 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자료화면을 보십시오. 그런데 더욱더 문제인 것이, 이렇게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를 한 내용을 보면 보험액이 다른 일반 보험회사 영업점보다도 무려 각 한 20만 원 정도 가까이 금액이 비싼 겁니다.

한번 보시지요. 이사장님, 내용 아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전현희 위원 금액 자체가 거의 20만 원 가까이 비싸게 보험을 체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장님, 이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요즈음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하면 저희가 보험비용을 상당히.....

○전현희 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은 법규 위반이라는 겁니다. 지금 비싼 것을 뺀히 알면서도 그 회사에 몰아주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험을 체결하는 직원은 여러 보험업체를 이렇게 검토를, 비교를 해서 보험가격의 적정성을 확인을 하고 최대한 유리한 그런 가격의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뺀히 알면서, 특정 업체에 비싼 줄 알면서도 이렇게 가입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업무상배임죄의 법률 위반 소지가 있고.....

또 하나는 보험업법에 의하면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과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불공정 보험 모집을 우려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험대리업 등록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업법에도 위반되는 그런 심각한 범법행위에 해당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이 사항을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개선하도록 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개선방안이랑 검토를 해 보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선 다음은 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순 위원 서면질의를 해야 되는데,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 이것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개인정보가 업무 이외에 유출되는 것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호주에 갔을 때 센터링 크라는, 모든 지원을 실업자들 청년들 노인들 모든 분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정부 예산의 30%를 다 이렇게 받아서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실무자가 정보 유출을 필요 이상으로 다른 것을 하려고 했을 때 거부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 체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불법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서 10만 명의 정보가 유출이 됐다, 어떻게 됐다 하는 소식이 올해에는 꼭 해결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순 위원 센터링크 시스템을 보면…… 아까 우리가 연금 체납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체납액이 무려 6조에 이르고 1년 이상 체납하는 경우가 62% 아닙니까? 그런데 이럴 때 200만 원 이하가 되면, 특별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득월액 200만 원 이상, 미납 기간 6개월 이상, 체납액 50만 이상인자로 선정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만 원 이하이면 생계형체납자가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1인가구가 월소득액이 200만 원일 경우에는 고소득자지만 7인이라든지 5인일 경우에 500만 원이 되면 최저생계비 이하가 됩니다. 공단에서 정말 제대로 생계형체납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기준, 재산이라든지 가구, 규모 파악 이런 것들은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잘 되어야지 사회보험 통합징수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센터링크 시스템을 좀 배워서 보완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점심 때 약간 산책을 하고 돌아오면서 농성하는 노조원한테 여쭙 봤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연봉제 문제라든지 협의 없이 타 직장으로 보내는 것, 이런 얘기하면서 어쨌든 좀 심도 깊게 같이 논의를 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형태의 대화를 하셨겠지만 이번 국감을 통해서, 정말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올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서…… 농성을 이렇게 오래 하고 있으면 마음이 다 불안해서, 이사장님도 불안하고 또 노조원들도 불안하고 너무 불안해서 어떻게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연금공단의 기본이 국민을 섬기고 서비스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는 정말 이사장님이 멋있게 한번 정말 대화를 깊이 해서 최대한도로 빨리 해결이 되었다, 타결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정말 좋은 직장이다, 정말 좋은 대화를 통해서 노사 문제가 해결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 이렇게 되도록 이사장님과 또 뒤에 배석하고 있는 임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명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秋美愛 委員 앞서 강명순 위원님 질의에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말씀이 제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아직 들리지는 않네요? 진정성이 안 물어 있습니다.

10월 9일 현재 공단 노조원은 3370여 명인데요, 노동부고시 기준으로 조합원 3000~4999명까지는 유급전임자를 최대 7명까지 운영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는 1만 4000시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秋美愛 委員 그렇다면 공단에서는 현재 노조 전임자가 10명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秋美愛 委員 그래서 유급을 7명 둘 수 있는

거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秋美愛 委員 그렇다면 3명의 처리가 문제여서 이것은 아까 제가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서 노조가 비용을 부담하는 무급전임자로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秋美愛 委員 그러면 이사장님의 소신이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지 않습니다.

○秋美愛 委員 소신은 법 아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잘 지키는 것도 소신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렇습니다.

○秋美愛 委員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빨리 조속히 해결하십시오. 3명의 무급전임자를 노조의 비용으로 둘 수 있도록 합의를 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노조와의 관계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秋美愛 委員 노조와의 관계를 이 자리에서 묻는데 왜 이 자리에서 말을 못 합니까? 그래서 이사장의 소신이 법보다 위에 있다는 것 아니에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그렇지 않습니다.

○秋美愛 委員 그렇지 않다면 합의를 빨리 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최대한……

○秋美愛 委員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다가 아니라 최대한 있는 얘기는 다 한 것 아닙니까? 대화가 부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기본적으로……

○秋美愛 委員 이미 논점은 모아졌지 않습니까? 아까 성과급제 도입 정부방침보다 더 확대하려고 하시는 것……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秋美愛 委員 노조는 반대하고 있는 것……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기획……

○秋美愛 委員 그리고 노조 전임자 문제에 있어서 근로시간면제제도로 7명이 허용이 되면 나머지 흡수되지 않은 3명은 노조가 부담하는 무급전임자로 법에 따라서 둘 수 있어요. 그것을 못 하

게 하는 것 노조법 위반입니다. 부당노동행위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획이사가 환노위에서 보고드린 말씀……

○秋美愛 委員 기획이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전임 노조법을 만든 위원장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아니, 제가……

○秋美愛 委員 국회가 법을 만들었어요. 들어보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秋美愛 委員 국회에 가서 무슨 답변을 어떻게 잘못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노조법 규정 제24조1항과 3항에 있습니다.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고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못 하게 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아요. 자꾸 그렇게 갈등을 유발하시겠습니까? 경영학 박사님 출신이시면서 내부조직관리, 사내 인권, 사내 복지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당연히 쓰고 있고요.

○秋美愛 委員 그러면, 그렇게 염려가 많으시다면 공기업보다 더 이윤에 빠삭한 사기업 예로 들 어볼게요. 기아차노조 온 사회의 이목을 집중 받았 습니다. 자동차 수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회사 입 니다. 수출은 1원이라도 아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근로자임금 또 노동조합 문제, 문제가 됐지요. 기아차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 드릴게요.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라서 21명 의 유급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미 한 100명 가까이 노조전임자가 활동을 해 왔어요. 여기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무급전임자로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80명을 노조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무급전임자 있는 겁니 다. 그리고 사내의 화합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지금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공기업 사기업 다 포함해서 전체 사업장의 76%가 노사 합의로, 노사 간 협약으로 잘 안착을 하고 있어요.

300조나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노동조합과

이사장께서 이 10명을 해결을 못 해 가지고, 그 중에 3명을 해결 못 해 가지고 이렇게 단식농성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아까 기획이사도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노조 쪽에서도 환노위에 가서 말씀드린 것이 지금 타임오프제는 이슈가 아닙니다. 저희 양쪽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앞서 설명을 드릴 때 지금 연봉제, 3급 연봉제 확대가 쟁점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秋美愛 委員 30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선 예, 30초만 더 쓰십시오.

○秋美愛 委員 성과급, 연봉제에 대해서는 기재부 정부 방침을 따르세요. 조직 10% 이미 달성하셨으면 이사장이 무리하게 욕심내지 마세요. 더 욕심내신다면 그것은 정말 윗분 눈치만 보는, 그것 윗분도 싫어할 거예요. 기재부도 싫어할 겁니다. 기재부 방침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기왕에 지금 시원하게 말씀하셨어요. 노조전임자 문제, 문제도 아니다 말씀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실천만 남아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위원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추추가 안 주실 건가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천안지사에서 지사장이 국민연금 고객들에게 내부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선물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적발돼 중징계 받은 사실 알고 계시지요? 잘 모르십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곧 기재부에서 고객만족도 조사하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고객만족도조사를 앞두고 시험 보기 전에 반 평균점수를 높이려고 같은 문제로 몰래 모의고사를 보는 것과 같은 편법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공단 내에도. 이것은 과도한 성과주의가 낳는 폐해거든요. 평가는 공정성이 생명인데 결국 평가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유의해 주시고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최영희 위원 노조도 연봉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평가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최영희 위원 이사장께서 아마 제가 어떤 질의할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간점검회의로 인해서 이사장이 직접 투자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받고 계시는데 혹시 전 박해춘 이사장의 향균회관건물 투자 중요사건은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바람직하지 않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본인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영희 위원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녹취록을 봤습니다.

모든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사장이 개별투자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특히 금융권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지시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운용본부장 임기가 만료돼서 레임덕 우려로 차기 본부장을 선임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주간회의를 진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기금운용본부장을 대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기금운용은 기금운용본부장 책임 하에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복지부가 이 기금운용본부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들이 계속 수차례 이것 건의를 해서 이사장에게 임명권을 뺐습니다. 그만큼 독립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회의는 기금운용본부장이 주관을 하고 또 월 1회 이사장이 주도하는 그런 회의도 사

실은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허락을 한 것입니다. 월 1회 회의, 이것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이것 준 것입니다. 그런데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했다 보면 매번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사장이 점검해야 할 정도라는 것인가, 저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기금운용본부장의 임기만료를 말씀하시는 데, 연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기금운용본부장이 결재는 다 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예.

○최영희 위원 또 기금운용본부장은 지난 7월 1일자로 비 연임이 결정되면서 후임자 선임 전까지는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본인도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국감장에 오셔서도 증인으로 선서도 하시고 또 답변도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금운용본부장이 지난 10월 1일에도 제9차 해외자원개발CEO포럼에 참가해서 ‘국민연금도 자원개발 관련 투자대상을 열심히 모색하고 있으며 투자를 적극 고려하겠다.’ 이렇게 국민연금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등 최근까지 직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굳이 매주 주간회의를 통해서 기금을, 이런 점검을 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안 주던 자료가 지금 왔거든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내 채권에서는 어떻게 하고, 8월 중 수급 불안에 낙폭과 뭐 IT 종목권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그다음에 금융주에서는 신한지주, 삼성증권, 삼성화재 등 이렇게 해서 비중을 확대하는 계획이라든지 또 국내 채권에는 삼성테크윈 무보증 회사채 투자 검토, 대한해운 ABS 투자 검토, 예보채 등 공기채는 선별적으로 투자 검토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사 이름을 들고, 저는 잘 읽지도 못하겠습니다 마는 오파리노(O' Parinor) 매입계약 추진 이것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무슨 회사를 계약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5400억 원을 투자하는 그런 집중 예정 이렇게 구체적인 회사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간회의를 통해서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 활동에 개입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사장께서는 기금운용본부장을 조속히 선임하시고 또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연금제도 개선과 기금운용의 양 날개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기금운용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연금을 걷고 나누어주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양 날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규칙대로, 정해진 법규대로 운영을 하시고 주간회의는 폐쇄하십시오. 그리고 박해춘 이사장님처럼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사장께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10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감사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및 위탁투자의 적정성 문제, 복지 부문 투자비중 문제, 납부예외자 증가로 인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 연금보험료 고의 장기체납자 문제, 공단의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열람 문제, 노사 갈등으로 인한 연금 신뢰도 저하 문제 등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 지적과 더불어 정책대안도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광우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3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23인)

강명순	공성진	곽정숙	김금래
박상은	박은수	손숙미	신상진
양승조	원희목	유재중	윤석용
이낙연	이애주	이재선	이춘식
이해봉	전현희	정하균	주승용
최경희	최영희	추미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두
김대현

○피감사기관 참석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감사
기획이사
업무이사
기금이사
연구원장
기획조정실장
경영지원실장
고객지원실장
가입자지원실장
연금급여실장
정보시스템실장
감사실장
홍보실장
시설사업단장
기초노령연금지원센터장
미래사업추진단장
기금운용지원실장
증권운용실장
대체투자실장
해외투자실장
운용전략실장
리스크관리실장
준법감시인
연금제도연구실장
기금정책분석실장
장애심사센터장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장

전광우
이영우
류지형
김상순
김선정
백화중
김경식
배성훈
김이신
양권현
최광철
허신철
김덕용
류해석
박동진
양재하
김영석
한동주
하영호
박용덕
김성숙
박태영
오이재석